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일러두기

인천은 문학산을 중심으로 미추홀로부터 출발하여 2030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군을 비롯하여 문학산 고인돌 등 선사인들의 자취로부터 고대 중국으로 가는 최초의 뱃길이었던 능허대, 고려시대 왕실의 유향이 서린 7대어향(御鄕), 고려 후기 제2의 수도였던 강화도에서의 팔만대장경 조판, 조선시대 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 왕실 도서관 외규장각, 민족정신을 온존시킨 강화학파의 정신적 공간이 인천이다. 더구나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고 근대문화가 이입되면서 해관, 호텔, 등대, 공원 등 제도나 시설, 문물 등 최초의 사례들이 많이 생성되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천의 역사·문화 속에서 한국 최초이자 인천 최고(最古)가 되는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다. ‘최초’와 ‘최고’의 사실들을 책자로 만든 것은 인천 시민들이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보다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인천에 애정을 갖고 있던 많은 인천 연구자와 향토사가들에 의해 ‘최초’와 관련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10년 전 『근대 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5) 라는 책자로 이미 발간된 바도 있다. 개인으로서 인천 자료를 찾아 나선 지역 향토사가들의 노고는 지역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며, 이 책의 발간에 밑바탕이 되었다.

이 책은, 2015년 인천이 지향하는 바 ‘인천 가치 재창조’가 오랜 인천 역사를 바탕으로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기왕에 출판되었던 내용들을 재조명하고, 그간 새롭게 발굴된 사실을 추가하여 증보한 것이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천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을 것이라고는 하나, ‘최초’의 의미가 타 지역과의 비교 검증을 통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이 책에서 활용한 전거자료는 당시에 발행된 신문이나 문헌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인천개항100년사』(1983)와 『인천시사』(1973, 1993), 『인천광역시사』(2002, 2013)와 각 기관·단체들에서 간행한 100년사 자료 및 향토사가들의 저서와 개인의 연구논문들도 비교자료로 참조하였다.
- 특히, 전거로 인용한 일본인의 자료, 예를 들면, 『인천사정』(仁川事情, 1892)과 『인천개항25년사』(1908), 『인천항』(인천상공회의소, 1931), 『인천향토지』(인천교육회, 1932), 『인천부사』(인천부, 1933) 등은 비록 일본인이 당시 인천항의 경제현황과 인천향토사를 그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 인천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비교·검토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적 의미는 지닌 책들이다. 따라서 비판의 입장을 견지한 방향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 이밖에 각 전거에 나타난 음양력에 차이가 있었지만 가능한 인용한 전거의 연월일을 그대로 따랐다.
- 본문의 구성은 전거로 밝힐 수 있는 <한국 최초>인 것과 <인천 최고>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인천 최고(最古)’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의미이다. 항목의 배열은 연대순으로 했으며 각 항목의 전거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100선으로 규정한 것은 지면을 고려하여 그간 많은 인천인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거나 공감하는 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전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처 서술되지 못한 부분이나 이후 시기에서 찾아지는 ‘최초 자료’는 계속 보완하여 향후 순차적으로 정리·출간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차례

01. 최대 규모의 강화 부근리 고인돌	10
02. 인천의 발상지 문학산성	12
03. 첫 번째 국제항 능허대	15
04. 가장 오래된 절 천등사	17
05. 남한 유일의 단군 관련 공간 참성단	20
06. 개천대제와 성화 채화 마니산	23
07. 13세기 간척의 시대를 연 강화도	27
08. 왕도의 공간 유일의 7대어항	29
09.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상청고금예문	32
10. 가장 오래된 대장경 팔만대장경	34
11. 남한 유일의 고려왕릉군	36
12. 공자상을 처음 모신 교동향교	39
13. 서해안 일대 유일한 국가 제사 터 원도사	41
14. 물 반 고기 반 연평파시	44
15. 왕실 도서관 외규장각	47
16. 인천 유일의 학산서원	50
17. 인천과 관련된 서양인 기록	53
18. 근대 최초 조약 체결지 강화 연무당	55
19. 축구와 야구의 도입지	58
20.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 체결지	61
21. 최초의 서양 무역회사 이화양행	64
22. 개항장 행정기관 인천감리서	67
23. 관세 수세 인천해관	70
24. 국제도시의 상징 인천 외국인묘지	73
25. 유일의 외국인 전용 거주 지역 각국조계	77

26. 화교사회의 시작 청관	80
27. 양관의 효시 세창양행 사택	83
28. 우체국의 효시	85
29. 우리 호텔 130년 역사의 시작 대불호텔	89
30. 인천상공회의소의 효시 신상협회	91
31. 감리교의 출발 내리교회	93
32. 근대 상업광고의 출발 세창양행 광고	97
33. 근현대사의 타임캡슐 각국공원	99
34. 천주교 담동성당	102
35. 인천에 최초의 해외지점을 둔 일본계18은행	104
36. 랜디스가 건립한 청누가병원	106
37. 신식 화폐를 만든 인천 전환국	108
38. 스팀 동력 정미기 담손이 방앗간	112
39. 초등교육의 기원 영화학당	115
40. 민간 해운업의 효시 이순사	118
41. 대한제국 군함 양무호	121
42. 해군사관학교의 시작 조선수사해방학당	123
43. 보육기관의 효시 해성보육원	125
44. 김구를 살린 전보 그리고 최초의 시외전화	128
45. 근대 예술 공간 협률사	130
46. 선물시장의 시작 인천미두취신소	133
47. 외국인 관련 사건 재판의 시작 개항장재판소	136
48. 소년 운동의 선구 엽싯청년회	138
49. 조선인 어시장 인항어상회사	141
50. 기공식을 두 번한 경인철도	144

51. 한옥으로 지은 성공회 강화성당	147
52. 최초 외국인들의 사교클럽 인천제물포구락부	150
53. 선박의 입출항을 알렸던 예포	152
54. 인천에서 담배 제조의 시작	154
55. 한인 디아스포라의 출발 하와이 이민	156
56. 밤 바다의 길잡이 팔미도등대	158
57. 민간인이 세운 계령학교	161
58. 무선 시설을 갖춘 광계초	163
59. 민족계 은행지점 천일은행	165
60.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168
61. 아라뱃길을 만든 경인운하 계획	170
62. 대낮처럼 밤을 밝히는 인천전기(주)	175
63. 해안가에 즐비했던 붉은 벽돌 쌀 창고	177
64. 정오를 알리는 소포	179
65. 조선인을 위한 인천공립보통학교	181
66. 천일염의 원조 주안염전	183
67. 무지개를 닮은 홍예문	187
68. 우물을 대신한 상수도시설 송천배수지 계수변실	189
69. 최초의 경제 월간지 상계월보	191
70. 20세기 초 짜장면과 짬뽕	193
71. 묵은 때도 깔끔하게 비누	196
72. 도로의 기점 인천도로원표	197
73. 해발의 기원 수준원점	198
74. 최초의 인공항만 갑문	200
75. 인천의 성냥공장 인천성냥	203

76. 짧은 지성의 요람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206
77. 청주제조와 병술 약주	208
78. 해수탕의 원조 월미도 조탕	211
79. 최초의 공설운동장 솟터골	213
80. 공공도서관의 출발 인천부립도서관	216
81. 한글 점자 훈맹청음	219
82. 천문관측도 했던 인천기상대	221
83. 추억의 꼬마열차 수인선	223
84. 병참기지로 시작된 경인공업지역	227
85. 미군기지 애스컴	230
86. 최초의 공립 인천부립박물관	233
87. 광복 후 우리 말 신문 대중일보	236
88. 6·25전쟁의 대반전, 인천상륙작전	237
89. 우리 손으로 만든 새나라 자동차	239
90. 해외 복음 전파방송의 시작 극동방송	241
91. 유리도 우리 손으로 인천판유리	243
92. 화약의 국산화 한국화약	245
93. 굴다리에서 시작된 지하도상가	248
94. 고속도로의 효시 경인고속도로	250
95. 매콤 달콤한 쫄면	253
96. 하늘로 세제로 인천국제공항	255
97. 인천 또 하나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257
98. 동북아 경제 인프라 인천대교	260
99.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262
100. 하늘로 하늘로 동북아무역타워	265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최대 규모의 강화 부근리 고인돌



강화 부근리 고인돌

강화 부근리에
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탁자식 고
인돌인 강화 부근
리 고인돌(사적
제137호)이 있다.
강화 부근리 고인
돌은 주변에 있는
고인돌군 중에서
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건립된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원래 네 개의 켄돌 위에 덮개돌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고인돌 축조에 동원된 인원은 약 800명 이상으로 추산하며 덮개돌의 무게만 약 80톤에 달한다. 높이 2.6m의 켄돌 2개가 길이 7.1m, 너비 5.5m, 두께 2.6m의 거대한 덮개돌을 받치고 있다. 원래 네 개의 켄돌이 방을 이루고 그 위를 덮개돌이 덮는 형식이지만 현재 켄돌 두 개가 소실되어 양 옆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외에도 강화군에는 15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70기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켄돌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 탁자식 고인돌이 주류를 이루고, 돌을 괴지 않고 묘실 위에 상석을 바로 올린 개석식 고인돌이 혼재되어 있다.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고인돌이 조성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강화 고인돌은 대부분 산기슭에 분포하면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주로 고려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하점면 부근리, 삼거리,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양사면 교산리 등의 지역에 무리지어 있다. 해발 100~200m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다른 고인돌이 위치한 평균 고도보다 높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천리 고인돌군이 해발 250~350m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

고인돌(지석묘; 支石墓, dolmen)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석기념물의 일종이다. 돌을 꺾어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의 ‘궤돌’ 또는 ‘고인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지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된다. 한국의 고인돌은 주로 청동기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남북한을 합쳐 4만 기가 넘는 정도로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전세계 고인돌의 40% 정도 되는 수치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기에 권력자가 아니면 고인돌을 조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고 주로 고인돌을 권력자의 무덤 혹은 제단이라고 추정한다.

한국에서는 인천 강화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에 집중적으로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고인돌은 각 지역에 수백기 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거석 문화의 형성 과정과 함께 한국 청동기 시대의 사회구조 및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아 지난 2000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고인돌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하며, 역대 한국 세계유산 중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유산이다.

인천의 발상지 문학산성



문학산성 동문(1950년대)

문학산(文鶴山)의 정상 부에는 테를 두른 듯한 모양을 한 문학산성(文鶴山城)이 있다. 문학산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한 것으로, 토축으로 된 내성이 100m, 석축으로 된 외성이 200m 가량 되는 규모였다고 한다. 특히 정상부에는 약 5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고 전해지나 현재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되었으며 일부 구간에 한하여 정비가 이루어졌다.

문학산 일대는 인천사의 발상지로, 개항 이후

인천의 중심지가 개항장으로 옮겨가기 이전까지 인천의 중심이었다. 전 시대를 통틀어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었으므로 문학산을 빼고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할 수 없다.

옛 문헌에서 미추왕 비류가 남하하여 기원전 18년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삼국사기』 백제 건국설화에 의하면 “주몽의 아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았던 아들(유리왕)이 태자가 되자 남쪽으로 이동하여 비류는 미추홀(彌雛忽)에 도읍을 정하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전한다. 『동사강목(東史綱目)』,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 따르면 비류가 조성한 도읍지로서 석성 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비류가 도읍지로 정한 미추홀이 지금의 인천이라고 언급하며, 문학산 위에 비류성이 있었고 성 안에 비류정(沸流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천의 옛 지명이 미추홀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류가 문학산 위에 석성을 조성한 것은 인천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문학산성은 왜국의 침입이 잦았던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는 이곳에서 왜군을 격파하기도 하였다.

1997년 문학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문학산성이 백제의 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문학산성이 삼국시대에



문학산성 성벽(1960년대)

축성되었다는 점, 미추왕릉으로 전하는 곳이 문학산성 내에 있었다는 점, 백제의 다른 성과 문학산성의 축성 기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백제의 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4년

문학산성 주변 문화재에 대한 시굴 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져 문학산성 방어용 초소로 추정되는 유구와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편과 토기 편 등 상당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학산성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6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1962년 문학산 정상부에 미군 부대가 들어섰고, 1979년 미군의 뒤를 이어 우리 공군이 들어서 학술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은 물론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

동안 시민들은 여러 차례 문학산 정상부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군사시설인 관계로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군 병력이 철수하였으나 예비 진지로 사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시와 국방부 간에 문학산 개방 협의가 시작되어 2015년 10월 15일 인천 시민의 날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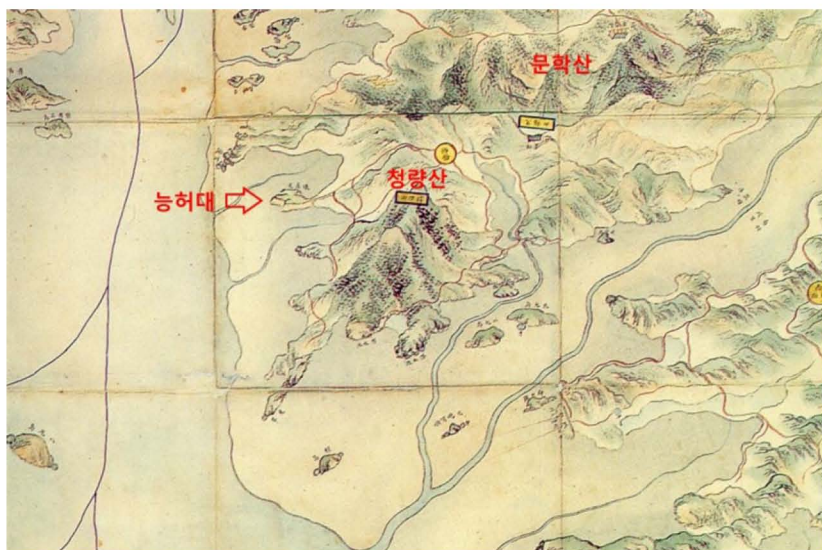


문학산성 성벽(2015)

문학산성의 옛 명칭

문학산성은 유구한 역사만큼 많은 명칭으로 불렸다. 남산에 위치한 석성이라고 하여 남산석성(南山石城), 남산에 위치한 옛 성이라고 하여 남산고성(南山古城), 문학산에 위치한 옛 성이라고 하여 문학산고성(文鶴山古城), 같은 의미로 문학고성(文鶴古城)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고을 이름을 따서 인천산성(仁川山城), 미추홀고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외에 비류 전설과 관련하여 비류성(沸流城), 예분성(悵憤城)이라고도 한다.

첫 번째 국제항 능허대



〈화도진도(花島鎮圖)〉에 보이는 능허대

연수구 청량산 끝자락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조그만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능허대(凌虛臺)는 과거 중국 사행(使行) 길에 오르는 사신들이 배를 탔던 곳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매립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원래 이곳은 바다와 맞닿은 반도형의 소구릉으로, 동쪽 끝에는 ‘소독’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공제방이 있어 포구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 포구를 일컬어 ‘한나루’[漢津 또는 大津]라고 한다.

19세기의 『인천부읍지』에 의하면 “(능허)대 아래에 있는 대진(大津)은 삼국정립 때 백제의 조천로(朝天路)이다. 고구려에 의하여 (길이) 막히자 중국 가는 사신이 여기서 바다를 건너 (중국 산동의) 동래주(東萊州)에 닿았다 한다.”고 하였다. 즉, 백제는 372년(근초고왕 27) 처음으로 중국[東晉]과 통교하였는데, 1년 전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만든 일을 계기로 양국이 구수관계(仇讐關係)에 놓임에 따라 고구려 연안을 지나는 북방항로를 포기하고 황해횡단로를 통해 중국과 교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백제가 인천을 통해 중국과 교섭한 시기는 웅진(熊津)으로 천도하기 전인 475년(개로왕 23)까지 100여 년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唐)의 소정방(蘇定方)이 득물도(得勿島, 현재의 덕적도)를 경유하여 백제를 공격한 점, 용유도에 고려 사신이 머물렀다는 조천대(朝天臺)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 남경(南京)에 도읍을 한 명(明) 초기와 여진족이 발흥한 후기에 중국으로의 사행은 육로(陸路) 뿐 아니라 해로(海路)도 활발히 이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인천연안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는 계속되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부평의 별리고개[別離峴], 문학산의 사모지고개[三呼峴], 용유도의 기암(妓巖) 등 인천 곳곳에서 전해지는 중국 사행과 관련한 전설들은 그 교류의 흔적이라고 하겠다.



1940년 무렵의 능허대

가장 오래된 절 전등사



전등사

기록에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은 375년(고구려 소수림왕 5)에 세워진 초문사(肖門寺; 省門寺로 부르기도 함)와 이불란사(伊不蘭寺)이다. 372년과 374년, 각기 중국에서 고구려로 들어온 순도(順道) 화상과 아도(阿道) 화상을 이들 사찰에 머물게 하여 불법을 전파시켰다고 한다. 백제에는 인도 승려 마리난타가 384년에 들어와 이듬해 한산에 사찰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런데 1942년에 편찬된 『전등본말사지(傳燈本末寺誌)』에 의하면 강화도의 전등사는 “신라 아도화상이 세운 바이니,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창건한 절이다. 절의 옛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이다.”라고 하여 전등사가 381년(소수림왕 11)에 창건된 진종사였음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1916년 「전등사 대웅보전 급 대조루 제4도 중수기문」에도 “전등사는 아도화상이 세웠는데,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창건한 절이다[海東鼻創佛宇]”고 하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아도화상을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파한 전설적 인물인 묵호자(墨胡子)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신라 눌지왕대에 일선군(一

善郡; 지금의 선산군)에서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고쳐주고, 그 공로로 불교를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등사를 창건한 아도화상이 고구려의 이불란사를 창건한 아도화상과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한 묵호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전등사의 창건연대(381년)가 백제의 불교 공인 연대(384년)에 앞선다고 하여 신빙할 수 없는 기록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 공인 이전에도 사찰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었고, 당시의 백제는 하남위례성을 수도로 하는 ‘한성백제’ 시기였던 만큼 한강의 입구인 강화도를 통해 불교가 전해졌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전등사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



전등사 대웅보전 내부

찰'이라는 지위에 있다.

전등사의 처음 이름인 '진종사'는 글자 그대로 참된 종교, 혹은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고려시대의 향로(香爐)에도 '진종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이름은 꽤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진종사가 전등사로 개명하게 된 것은 고려 충렬왕대 정화궁주(貞和宮主)의 불사에 의해서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등사는 “지원(至元) 19년(1282)에 충렬왕의 원비(元妃) 정화궁주 왕씨가 승려 인기(印奇)에게 부탁하여 바다를 건너 송(宋)에 들어가서 대장경(大藏經)을 인쇄해와 이 절에 보관하였다”고 하였고, 『전등본말사지』에는 “정화궁주가 진옥(眞玉) 등잔을 불전에 시주로 바쳤기 때문에 전등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충렬왕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원(元)에게 항복한 후 제1왕비의 자리를 원의 공주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에게 넘겨야 했던 비운의 왕비 정화궁주가 송(宋)의 동선등각원(東禪等覺院)에서 퍼낸 대장경을 가져오고, 또 옥등(玉燈)을 시주함에 따라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1357년(공민왕 6) 마니산 참성단 초재(醺齋)의 향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색(李穡)은 '전등사'라는 시(『목은시고』권4, 마니산기행)를 통해 정화궁주의 전등사 불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등사는 두 차례(1605년과 1614년) 큰 불이 나, 사찰 전부가 소실되었지만, 1621년(광해군 13) 지경(志敬) 스님의 중창 불사로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621년 중창 당시에 세워진 건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당우는 대웅보전과 약사전 등이다. 그리고 1707년(숙종 33)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를 관리하는 사찰이 되어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전등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고를 관리함과 동시에 경기 서부 일대의 사찰을 관장하는 수사찰(首寺刹)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남한 유일의 단군 관련 공간 참성단



참성단

강화도에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곳으로 전하는 참성단과 단군이 세이들을 시켜 쌓게 했다는 삼랑성이 있다. 단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실려 있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의 주요 활동 무대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었다. 즉,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곳은 평양이며 인간으로의 생을 마감한 곳은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관련 유적은 주로 북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고려사』 지리지 이래 각종 사서나 지리서에 언급된 남한 지역 단군 유적은 참성단과 삼랑성뿐이다.

참성단은 『고려사』 지리지에 처음 등장하면서 각종 지리지와 사서에서 단군 관련 유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참성대(塹城臺)·참성초단(塹城醺壇)·마리산초단(摩利山醺壇)·마니산성단(摩尼山城壇)·마리산제성단(祭城壇)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명칭은 참성단(塹城壇)이다. ‘참호를 파서 쌓은 성에 있는 제단’이라 풀이할 수 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에는 참성(塹城)에서 제사를 지낸 기

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 참성이 종교적 의례가 거행되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성단의 형태는 원형으로 쌓은 하단 위에 방형의 제단을 둔 모양인데, 위의 네모난 것은 땅을, 아래의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음양이 서로 교차하게 되면 조화를 이루어 만사가 형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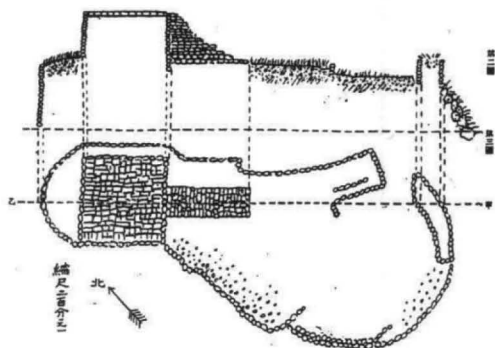
참성단제사를 지냈던 천제암궁지

참성단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참성단의 최초 기록은 『고려사』 1264년(원종 5) 5월에 풍수사 백승현이 마리산 참성에서 초제지내기를 건의하여 왕이 재초를 거행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참성단이 13세기 이전 어느 때인가 축조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풍수사들이 국조 단군의 존재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단군과 관련되는 곳을 길지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참성단이 단군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왕실이 강화로 천도하면서부터 풍수도참가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와 조선왕조는 때때로 이곳에서 도교식 제천행사인 초제(醺祭; 별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참성단이 민족의 성지(聖地)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구한말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大宗教)가 성립한 이후였다. 이때부터 강화도는 단군시대 정치중심지의 하나로 인식되고, 참성단의 네모난 상단과 둥근 하단은 각각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고려와 조선시대 왕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거행하던 장소였던 참성단의 제사는 강도시대(江都時代) 원종(元宗)이 직접 주재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관리가 국왕을 대신하여 제사하였다. 이 때 파견되는 관리는 참성단행향사(塹城壇行香使)라 하였는데, 행향사는 참성단 아래의 재궁(齋宮)에 머



참성단 실측도

측된다. 비정기적인 제사는 외적의 침입이나, 한발(旱魃)이 있을 때 수시로 거행되었다. 국가제사의 경비조달을 위해 제전(祭田)도 별도 지급되었다.

참성단과 관련하여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제기(祭器)와 제물을 준비하던 천제암(天祭庵)이라는 재궁터[齋宮址]가 남아 있다. 삼단의 석축(石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넓이가 약 70평 정도이고 부근에는 금표(禁標)와 표지(標識), 우물 등이 있다. 또, 1717년(숙종 43) 5월에 강화유수 최석항(崔錫恒)이 참성단을 수축한 사실을 기록한 참성단 중수비(重修碑)가 남아 있다.

단군은 우리 민족과 역사를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참성단은 제천의식뿐만 아니라, 1955년 이후 전국제천의 성화를 재화해 왔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도 재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인천이 우리 역사의 근원적 공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참성단 중수비

개천대제와 성화 채화 마니산



마니산 참성단 개천대제(2008)

개천대제(開天大祭)란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제례이다. 매년 10월 3일이면 정부 주도의 공식 ‘개천절’ 행사와 더불어 마니산 참성단,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삼성궁

등 전국의 단군 성지에서 각 지방자치체 및 민간단체, 종교단체의 주최로 개천대제가 열린다.

이들 개천대제 중 역사적 시원성과 고유성, 그리고 대표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누가 뭐래도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塹城壇)이다. 참성단은 평양의 승령전(崇靈殿), 구월산의 삼성사(三聖祠), 묘향산의 단군굴, 강동의 단군릉, 강화도 삼랑성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군 관련 유적지의 하나이며, 또한 1949년 처음 지정된 개천절 행사의 공식 의례 장소였다는 역사성도 지니고 있다.

재야사서라는 한계가 있지만 『환단고기(桓檀古記)』에는 참성단의 축조시기를 단군왕검 51년(기원전 2283년)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려시대 이전의 여타 다른 사서에서는 참성단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고려 말 이색(李穡)과 이강(李岡)의 시에서도 누가 축조한 것인지 모르겠다거나, 막연히 태고적의 일이라고 하여 참성단의 단군시기 축조설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처럼 참성단의 축조 시기는 문헌상 정확히 고증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고려 말부터는 참성단에서의 제례가 끊이지 않았음은 많은 기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참성단 제례에 관하여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264년(원종 5) 6월 원종이 마니산참성(摩利山塹城)에서 초제(醺祭)를 지냈

다는 기록이다. 아울러 『고려사』 지리지에는 참성단을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단”이라 하였으며, 『세종실록』 지리지도 “조선 단군이 하늘에 제사지내던 석단(石壇)”이라고 하여 참성단과 단군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즉, 이 시기 참성단 제례는 비록 도교(道敎)식 제사인 초례로 치러졌지만, 고려 말 단군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침입을 받던 강도(江都)시기에 민족의 결속을 다지는데 있어 중요한 정신적 토대이자 역사의 근원인 단군의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이다.

참성단 제례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폐지하지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태종~세종 때까지 존폐를 반복하였다. 폐지론자들에 의하면 참성단 초제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제천(祭天)에 해당하므로 제후국에서 제사하는 것은 명분에 어긋나는 참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조 때 일시 부활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앙의 국가제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지방 차원에서의 제사는 조선후기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성단이 ‘민족의 성지’, ‘단군성조의 천제처(天祭處)’, ‘제1의 생기처(生氣處)’로 다시 주목받은 시기는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해 민족의 시조로써 단군이 재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단군 유적인 참성단은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순례의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1945년 해방 후 개천절이 부활되면서(개천절은 1909년 대종교에 의해 음력 10월 3일을 단군 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시작) 참성단은 개천절 경축행사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

특히 1946년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이 주목된다. 1946년 10월 27일(음력 10월 3일) 서울 저동 소재 대종교총본사의 천진전(天眞殿)에서 채화된 성화가 마니산 참성단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봉송된 것이다. 당초 계획은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孫基禎) 등이 성화를 봉송하고, 임시정부의 김구(金九) 주석이 이를 점화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이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강화청년회 등 천여 명이 참석한 독자적인 개천절 경축식이 참성단에서 이루어졌다.

1947년의 개천절에는 특별히 ‘개천절경축위원회’가 조직되어 행사를 주관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목되는 것은 성화를 서울에서 봉송해 오지 않고 참성단에서 채화하였다는 점이다. 새벽 5시 반에 채화된 성화는 군내 각 국민학교 학생들이 계주하여 행사장에서 점화되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화 채화식(2014. 8. 12)

1948년의 개천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맞는 개천절이었다. 개천절 행사의 중심은 서울운동장에서 거행하는 기념식이었지만 참성단에서도 신익희(申翼熙)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30여 명과 안재홍(安在鴻) 전 미군정 민정장관 등 관민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또한 주목되는 사실은 기념식과 더불어 고식(古式)에 의한 제사도 함께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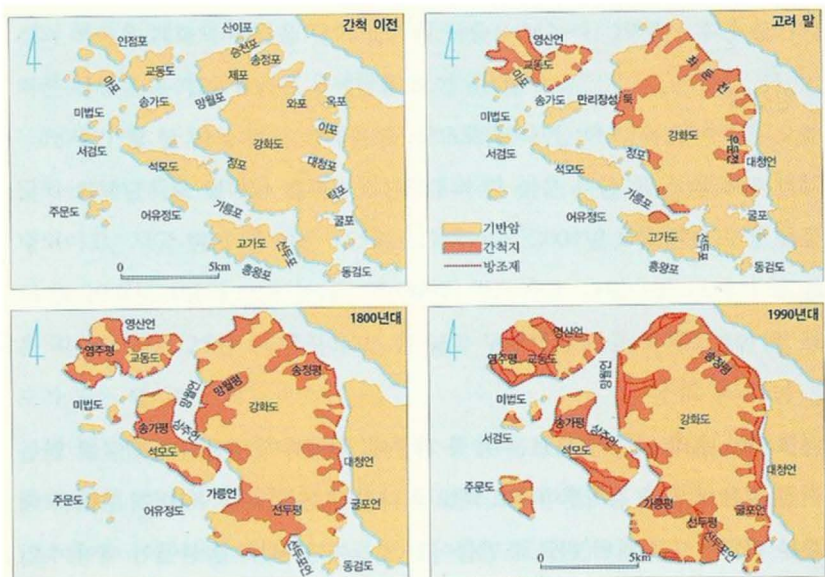
1949년의 개천절은 개천절 역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때의 개천절부터 음력이 아닌 양력 10월 3일이 기념일이 되었고, 삼일절·제헌절·광복절과 함께 국가의 4대 국경일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해의 개천절은 정부의 공식적 기념식이 서울이 아닌 강화도에서 치러졌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전등사 대웅보전 앞에서 안호상(安浩相) 문교부장관이 채화한

성화를 강화농업중학생들이 봉송하여 참성단에 봉안한 후, 정부요인을 비롯한 다수의 관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치러졌다. 행사가 끝날 쯤에는 참성단 상공에서 국군비행대의 경축 비행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1952년까지 참성단에서의 개천절 기념식은 중단되었다. 1953년 개천절에 참성단에서 다시 치러진 기념식은 공군이 주최하고, 문교장관·국방차관·민병대 총사령관과 다수의 민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1949년과 같은 국가 차원의 행사로서의 위치는 상실한 것이었다. 공식적인 개천절 기념식은 서울의 중앙청에서 거행되었다.

이후 참성단에서의 개천절 행사는 강화군 자체의 행사가 되어 지금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매년 10월 3일이면 개천대제(開天大祭)라는 이름의 의례가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 특히 1955년 제36회 전국체육대회 때부터는 역사학자이자 체육인인 이상백(李相佰) 박사의 제의로 참성단에서 성화를 채화, 전국체전이 벌어지는 주경기장까지 봉송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성화 채화가 비록 고대 그리스 제우스 신전에 올렸던 올림픽 전통을 모방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전통’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참성단 제례를 국가의례에 버금하는 행사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3세기 간척의 시대를 연 강화도



강화도의 간척사업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의 충족을 위해 새로운 경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고대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의 간척지를 농경지로 변화시키는 간척사업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도 경험 속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충분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간척은 가장 먼저 방조제를 쌓아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을 만들어 토양의 염분을 빼내는 제염작업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많은 인력과 물자가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만큼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간척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와서야 처음 보인다.

고려시대의 간척사업은 강화도에서 시작되었다. 몽골침입으로 인한 강도시대(江都時代)가 열리면서 도성이주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한 간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종대에 강화도의 제포(槎浦)와 와포(瓦

浦)를 막아 좌둔전을 만들고, 이포(狸浦)와 초포(草浦)를 막아 우둔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시의 군량미 확보를 위한 둔전(屯田)의 개발을 목표로 간척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강화도에서 간척사업이 더욱 확대된 시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특히 조선후기 강화와 교동이 군사적 요충지가 된 이후로는 대규모 인력동원이 가능해져 간척이 더욱 촉진되었다. 17세기 중반 효종대에는 강화유수 홍중보(洪重普), 조복양(趙復陽), 서필원(徐必遠)에 의해 굴곶언, 대청언, 만월언, 가릉언, 장지언 등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1706년(숙종 32)에는 강화유수 민진원(閔鎭遠)에 의해 인천, 김포, 연안, 풍덕 등의 군병 11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선두포 축언이 이루어졌다. 선두포 축언으로 얻어진 땅은 1천여 섬지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고 한다. 이 시대의 간척사업으로 강화의 지형이 거의 오늘날과 같이 변화되었다.



강화도 선두포 동수문지의 서측벽



선두포축언시말비

왕도의 공간 유일의 7대 어형



『고려사』 지리지 인주



『고려사』 문경태후 기사



『고려사』 이자겸 기사

나말여초(羅末麗初)의 호족세력은 인천지역에서도 대두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인주이씨(仁州李氏), 부평이씨(富平李氏) 그리고 강화위씨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하대로 오면서 점차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사상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골품(骨品)보다는 실력과 무장력으로 왕위를 쟁취하는 이른바 왕위계승전쟁이 이어졌고, 골품제 하에서 최고의 지식인으로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6두품들도 기존체제에 반발하면서 고대적인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세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런 가운데 각 지방에는 호족세력(豪族勢力)이 등장하면서 경주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지역인물이 역사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각 지역과 출신가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성립된 것이 본관(本貫)이다. 본관제도는 호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들 호족들은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귀족(貴族)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江華韋氏)의 경우이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인주이씨의 선조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선조가 신라의 대관(大官)이라는 점, 사신으로 입당(入唐)하였다는 점, 당(唐)의 천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이씨를 사성(賜姓)하였다는 것은 『이씨가록(李氏家錄)』과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인주이씨는 이허겸의 손자인 이자연(李子淵) 때에 세 딸이 모두 문종비가 되면서 왕실의 외척으로 등장하게 되어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80여 년 동안 중앙정치계에서 핵심 세력이 되었다. 왕실과의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력가(家)들과도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별족세력을 형성하여 고려후기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인주이씨 이외에도 인천지역의 호족세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부평 이씨이다. 『부평이씨대동보(富平李氏大同譜)』에 의하면 부평 이씨의 시조는 이



원인재

희목(李希穆)으로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워 삼한공신(三韓功臣)으로 책봉되었는데, 이는 고려왕조의 집권력 확립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면서 나말여초 호족

세력의 지역적 기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라는 통일 후 활발한 해상무역활동을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서 청해진(완도)·당성진(남양)·혈구진(강화) 등에 해상군진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군진세력과 서해의 해상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 강화·교동·통진 지역의 호족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강화위씨이다. 『고려사』에 강화현인으로 나타나 있는 위수여(韋壽餘)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하시중에까지 올라 그에 관한 기록이 남았지만, 그 외의 호족들은 그 성씨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려시대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80년 동안 인주이씨는 외척으로서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당시 고려 왕실의 왕자·궁주 가운데 인주이씨 외손 또는 생질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인주이씨는 외척으로서의 권세와 별족으로서의 지위를 굳혔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해주최씨·경주김씨·평산박씨·파평윤씨·강릉김씨 등 거족들과도 혼인관계를 맺어 일대 별족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종 대에 조카 한산후(漢山侯)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이자의(李資義)의 난과 1126년(인종 4)에 왕권을 차지하려 했던 이자겸(李資謙)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주이씨는 타격을 받았다. 당시 이자겸의 딸인 두인종비는 모두 폐비가 되었다. 인종은 새로이 중서령 임원후(任元厚)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는데, 공예태후(恭睿太后) 임씨이다. 공예태후는 부평이씨인 문하시중 이위(李瑋)의 외손녀이다. 공예태후는 의종·명종·신종 등 3왕과 2왕자·4궁주를 낳았다. 인주이씨가 몰락한 후에는 김부식(金富軾)·김부의(金富儀) 등의 경주 김씨가 귀족사회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나 그 권세는 인주이씨에 미치지 못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 공양왕은 인주(仁州)를 올려 경원부(慶源府)로 삼았다. 그런데 그 사유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에는 ‘칠대어향(七代御鄉)’,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칠대지향(七代之鄉)’, 강희맹(姜希孟)의 『승호기(陞號記)』에는 ‘칠대향(七代鄉)’ 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공양왕은 고려 말, 무너져가는 고려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7대조인 신종의 선대 7대왕 중 5대왕이 인천을 외향으로 하고 5대 왕비가 인천을 내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알리려는 뜻에서 인주를 부(府)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읍호를 환원시켰던 것이다. 어향(御鄉)은 ‘왕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뜻을 확대하여 7대 동안 인천이 왕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칠대어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상정고금예문



동국이상국집

고려 왕조가 무신집정기에 접어든 직후인 13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몽골(蒙古)의 출현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당시 남송, 금, 동진국, 대요수국 등이 존립한 가운데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고려를 정복

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전쟁을 도발하였다. 1231년(고종 18) 제1차 침공 이후 물러났던 몽골군이 재차 침공하려 할 즈음 고려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데,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기까지 39년간의 '강도시대(江都時代)'를 열게 되었다.

강도시대에는 특히, 팔만대장경 간행 등 정신력의 결집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는데, 팔만대장경 간행 직전인 1234년(고종 21)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이란 책을 펴낸 바 있다. 상정고금예문은 고려 인종 때 최윤의(崔允義) 등 17명이 왕명으로 고금의 예의를 수집·고증하여 50권으로 엮은 전례서(典禮書)이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강화도 천도 후 최이(崔怡, ?~1249년)의 주도 아래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 28부를 인쇄했다는 사실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최이는 1234년 진양후로 책봉됐고 이규보는 1241년 숨졌기 때문에 아마도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직지심체요절』보다 130년이나 앞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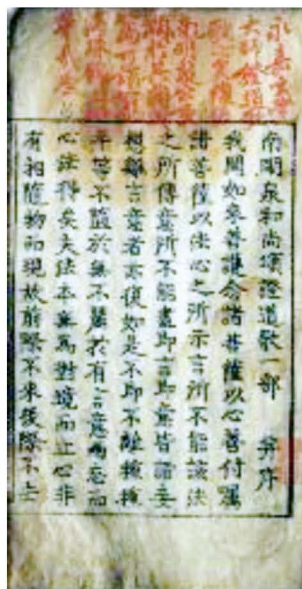
이규보 묘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최이가 직접 쓴 글에 따르면, 강도시대(江都時代)인 1239년(고종 26) 당시 『상정고금예문』 외에도 다른 책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사실이 있는데, 책의 정확한 이름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이다. 실제로 이 책은 보물 제758호로 지정되어 현재 목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금속활자본을 다시 목판본으로 만들어 인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9년은 고려 왕조가 강화도에 천도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으로 천도 직후의 어수선한 상황을 감안하면 금속활자 제작과 인쇄는 강화도 천도(遷都)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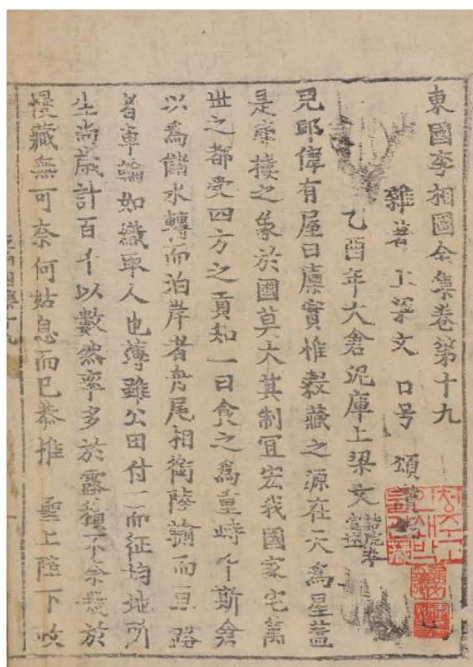
당나라 현각 스님이 득도한 뒤 선종의 법문을 설명한 것에 송나라 법천(남명) 스님이 주석한 책이다. 현재 원본(금속활자본)은 남아 있지 않고, 고려 무신정권 때(1239) 강화도에 서 찍은 번각본(책을 뒤집어 목판을 새긴 다음 다시 찍음)만 전해 온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금속활자가 아니라 활자본이다. 활자는 전해내려 오지 않는다. 이에 반해 ‘증도가(證道歌)’ 자(字)는 실물 형태로 남아 있는 금속활자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고증 작업 중으로 직지와 비교해 적어도 138년(1239년 기준) 이상 세계 최고의 역사가 앞당겨진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가장 오래된 대장경 팔만대장경



대장경각판군신기고문(동국이상국집)

대장경(大藏經)은 불교의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의 삼장(三藏)을 집대성한 것인데, 석가모니의 말씀과 교단이 지켜야 할 계율, 교리에 관해 뒤에 제자들이 연구한 주석 논문을 모은 것을 말한다. 즉, 대장경은 불교 연구에 관한 자료 문헌을 총 망라한 불교총서이다.

고려시대에 대장경이 처음 조판된 것은 1011년(현종 2) 거란족의 침입으로 전란을 겪은 때였다. 이것을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이라 한다. 이

후 1047년(문종 1)에 2차 조판을 통해 빠진 것을 다시 보완한다. 그러다 1096년(숙종 1)에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모은 송·요·일본 등의 것과 국내의 것을 결집하는 제3차 조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속장경(續藏經)이라 한다. 그러나 1232년(고종 19) 몽골군의 제2차 침략 때 부인사(符仁寺)에 봉안한 대장경판(제1차~제3차 조판본)이 전소(全燒)되어, 대장경의 재조(再彫)에 착수한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으로 제4차 조판이다.

‘팔만대장경’은 1236년(고종 23)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무려 16년에 걸쳐 8만여 판의 경판 간행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에 완성된다. 이 기간이 바로 대몽항쟁을 하기 위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던 ‘강도(江都)시대’에 해당한다.

국운이 위태로웠을 당시, 16년이란 오랜 시간을 들여 8만 개가 넘는 대장

경판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족의 침략을 물리치겠다는 정신력의 결집이었다. 실제 200여 년 앞서 거란족이 침공했을 때 초조 대장경판을 만들었고 거란족이 물러났던 사실이 있었다. ‘팔만대장경판’ 제작은 이러한 염원의 발현이었다.

팔만대장경의 조판은 당시 최씨무인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최이(崔怡)의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

주도로 강화 천도 2년 후인 1236년(고종 23)에 시작되어 그 아들인 최항(崔沆)이 집권하던 1251년(고종 38)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강화 선원사는 1245년(고종 32) 최이의 원찰로 창건되어 팔만대장경 판

각을 주도한 사찰로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 1398년(태조 7) 5월 10일 대장경판이 선원사를 떠나 한양의 지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이운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장경이 강화도를 나와 언제 어떤 경로로 해인사에 도착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전혀 알 수 없고 학자들의 논의만 분분하다.

팔만대장경의 우수성과 문화사적 의의는 세계기록유산(2007)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설명하고 있다.



선원사 터

남한 유일의 고려왕릉군



가릉

마련해 돌로 채운 다음 흙으로 덮는 고분 방식인 한국 특유의 무덤 체계가 나타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사방에 석호(石虎), 상석 등 독특한 석물을 배치하는 특유의 개성이 나타났고 평지뿐만 아니라 산지에도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실 가족의 무덤을 신분에 따라 능(陵,



곤릉

왕릉은 왕족의 지위뿐 아니라 예법에 맞게 세심하게 건축된 복합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왕릉은 대체로 고구려, 신라의 능 형식을 이어받았고, 조선시대에 계승되었다. 신라시대에는 목재로 안쪽을 댄 넓은 구덩이를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의 무덤) · 원(園,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의 사친[私親, 재위한 왕의 부모]의 무덤) · 묘(墓, 기타 왕실 가족의 무덤)로 나누었는데, 조선 개국 초기에 조성되어 현재 북한 개성에 자리한 태조 왕비 신의왕후의 제릉과 정종의 후릉 2기를

제외한 40기의 왕릉이 서울 시내와 근교에 자리 잡고 있다. 2009년에 40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시대의 왕릉들은 신라 방식으로 지어졌지만 산등성이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사이에 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왕릉은 경계 석주, 석등, T자형 사당, 비석과 비각 같은 새로운 특징들도 갖추고 있고, 호랑이, 사자, 양을 조각한 석물들이 봉분을 둘러싸기도 한다. 능실 내부에 벽화가 그려진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양식이 이어진 것이다. 산

기술에 3~4층 단을 쌓고, 맨 윗단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른 봉분을 두고, 아래로 석등, 문·무인석, 제향각 등을 배치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왕릉이 크게 다른 점은 고려의 왕릉은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돌계단을 만들어 그 상단에 봉분을 조성하지만, 조선시대의 왕릉은 동그스름한 토단 상부에 봉분을 조성한 점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집중적인 도굴이나 6·25전쟁으로 인해 석물들이 파괴·분실되어 대다수는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개성지역에는 고려 태조의 무덤 등 20여 기의 왕릉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시대 재위 왕은 모두 34명(대수 36대)인데, 무덤 임자가



석릉

밝혀진 것은 모두 12기이고, 현재 모습이 알려진 곳은 태조 왕건의 현릉과 31대 임금이 공민왕, 왕비 노국대장공주의 쌍릉인 현·정릉 정도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야산 곳곳을 남벌하고 농지를 개간하면서 능역이 크게 축소되었고, 혜종·

성종릉의 경우 병풍석과 석축이 파문혔고, 경종릉은 장명등·석상·망주석이 사라졌다. 신종릉은 잘못된 복원으로 깨진 난간석이 굴러다니고 민묘처럼 왜소한 물골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북한 개성 일대에 집중한 고려시대 유적이 ‘개성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는 개성성곽, 만월대와 첨성대 유적, 개성 남대문, 고려 성균관, 숭양서원, 선조교와 표충사, 왕건릉과 공민왕릉, 7릉군, 명릉 등 12개 개별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화도에는 현재 2기의 왕릉과 2기의 왕비릉이 남아 있다. 희종(21대)의 무덤인 석릉(碩陵)과 고종(23대)의 무덤인 홍릉(洪陵), 그리고 강종(22대)의 부인 원덕태후의 무덤인 곤릉(坤陵)과 원종(24대)의 왕비 순경태후의 무덤인 가릉(嘉陵) 등 총 4기의 고려 왕릉이 있다. 이들 왕릉은 모두 고려가 강

화로 천도했던 시기(1232~1270년)에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천도시기에 강화도에 머물렀던 사실 외에도 인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주이씨 이자연의 세 딸(인예태후, 인경현비, 인절현비)이 문종(1046~1083)의 비가 되면서 이후 7대 80년간에 걸쳐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특히, 첫째 딸인 인예태후의 아들인 숙종의 후손들이다. 여기에 숙



홍릉

종의 아들 예종과 그 아들인 인종 역시 인주이씨 이자겸의 딸들과 중첩된 혼인을 했었고, 그로부터 희종(21)~강종(22)~고종(23)~원종(24)으로 계보가 연결되고 있다.

현재 고려 왕릉 중, 강화도 외에 남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공양왕릉이 유일하다. 그런데 당시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가를 알 수 없어 공양왕릉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기도 고양시 두 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느 쪽이 왕릉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고려시대 강화도는 대중국무역의 교통로로써 해상교류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려 후기 제2의 수도로써 왕도(王都)이자 또, 왕실의 보장처가 되었다. 여기에 홍릉을 비롯한 4기의 고려 왕실릉이나 팔만대장경 조판

등 남겨진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남한지역에서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귀중한 고려시대 자료이다.



12~13세기 동아시아 형세

공자상을 처음 모신 교동향교



교동향교

향교(鄕校)는 수도 이외의 각 지방에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한 관학(官學)교육기관이다. 930년(태조 13) 서경에 학원(學院)을 설립했다는 기록이나 987년(성종 6) 경학과 의학에 정통한 박사(博士)들을 12목에 파견하였다는 기록 등을 볼 때, 고려 초에 이미 향교가 존재하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당시의 향교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향교는 그 설치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문벌귀족 문화가 전성기에 접어들었던 12세기 초에는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상 등장하는 고려시대의 향교는 총 29개교 정도이다. 진주, 부평, 강화, 단양, 교동, 태안 등에 있었다. 이 수를 고려시대에 설치된 향교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 군현에 설치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고려시대에는 지방 수령도 전 군현에 파견되지 못하였다.

『교동읍지』에 의하면 교동향교는 고려 인종대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인종은 지방 향교의 확대 설치를 지시했던 국왕으로, 인근의 강화향교가 1127년

(인종 5)에 세워진 것을 고려한다면 교동향교 역시 인종대 전반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동향교의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교동향교는 고려시대에 존재한 수많은 향교들 중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즉, 김득초의 『교동지』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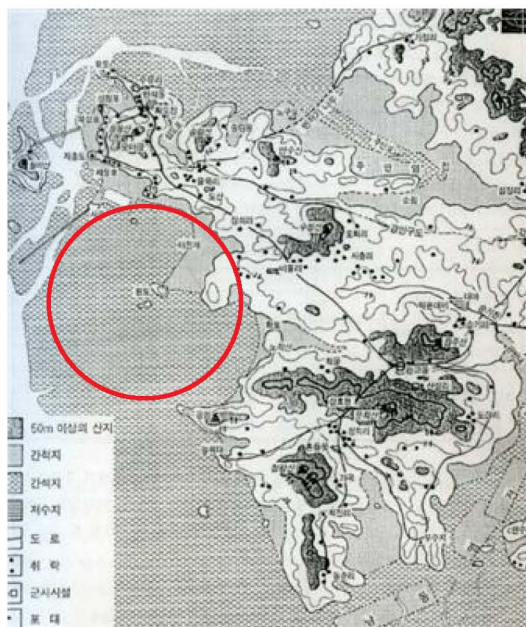
교동향교 대성전

르면 옛 교동읍지의 내용 중에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을 원(元)에서 바다로 가져와 본읍에 이르렀을 당시 처음으로 문묘(文廟)가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화개산 아래 솔 숲 사

이에 공자의 묘가 있으며, (그를 볼 때) 본교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향교임이 분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교동향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였을 리는 없다. 다만 위 일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일화에 따르면 1303년(충렬왕 29) 안향(安珦)이 국학학정 김문정(金文鼎)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공자와 10철(十哲)의 화상,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祭器) 등을 구해오게 하였는데, 김문정 일행이 가장 먼저 기착한 곳이 교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13세기 말~14세기 초, 고려인들의 성리학 수용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화 되던 당시, 교동향교가 그 주요한 공간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문정 일행의 교동기착이 정부의 공식적인 편년사찬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교동향교는 공자화상을 처음 모셨던 공자묘(孔子廟)의 수위(首位)가 되는 묘전(廟殿)으로 추앙받고 있다.

서해안 일대 유일한 국가 제사 터 원도사



1920년대말 인천지도 속의 원도

지금은 아파트 조성과 도시개발에 밀려 고유의 전통이나 풍속을 유지한 마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공동체 구성원간의 단합을 도모했던 동제조차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지만, 제사의 범위나 영향력이 마을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제사가 인천지역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낙섬의 원도사(猿島祠)에서 지

냈던 제사다.

학익동 동양화학 앞에서 용현동을 지나 송의동으로 넘어가는 큰 길에 낙섬 사거리가 있다. 지금은 매립과 도로 개설로 대부분 없어져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몇 십년 전만 해도 이곳 앞바다에 있었던 작은 무인도 ‘낙섬’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주변이 온통 갯벌과 염전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낙섬’이라 불렸던 이 섬은 미군의 커다란 기름 저장탱크와 함께 염전에 바닷물을 대는 저수지가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수영장이었다. 근래에는 도로와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려 그 위치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지만, 낙섬은 조선시대에 원도(猿島)라 불리며 서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

섬의 형태가 원숭이 모양이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고도 하고, 섬의 위

치가 서쪽 방위에 해당하는 신(申)의 방향이라 원승이를 뜻하는 원도는 일부 학자들의 해석처럼 낙섬이라는 이름이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서라기보다는 ‘납(納)섬’, 곧 ‘제사를 드리는 섬’에서 유래했다가 발음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대동여지도의 원도

제사를 지내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원도의 제사는 그 자체가 제사의 대상이 아니라 인천 부근의 여러 섬들의 제례를 합사(合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종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및 사묘조에 “원도(猿島), 부(府) 서쪽 12리 되는 곳에 있으며 섬 가운데에 여러 섬의 신제단(神祭壇)이 있는데, 봄 가을에 악해독(岳海瀆)에 제사를 지낼 때에 수령이 친히 행한다. 원도사(猿島祠), 여러 섬의 신령을 이 섬에서 합하여 제사지내며 봄·가을에는 본 고을에서 제사를 드린다” 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누었고, 국가 예전(禮典)에는 사전(祀典)을 구분하여 중사에는 악해독(岳海瀆), 소사에는 명산대천 등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원도사의 제사는 중사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다.

원도는 이외에 1656년에 편찬된 유형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와

원도사의 설치와 운영 및 그 폐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 왕조실록』 1437년(세종 19) 3월 및 1527년(중종 22) 5월에 국가제사와 관련되어 원도의 경우, 인천군의 자연도(紫燕島)·수심도(水深島) 등 제도(諸島)의 신주를 모아 여러 개의 위판을 대상으로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1842년, 1871년, 1899년에 각각 편찬된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1863년에 편찬된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誌)』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원도의 위치와 춘추에 신단제사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곳은 조선시대 왕조의 안위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지방 수령인 인천부사가 직접 나와 봄·가을로 제사지내던 곳으로 동해는 강릉, 남해는 순천, 서해는 인천 원도에 서 국가제사를 지냈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원도의 존재는 지도에도 명확히 나타나 1861년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표시돼 있고,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만든 지도나 1937년 일본에서 제작한 관광객용 지도 「경승(景勝)의 인천」에도 그 이름이 보인다.

서해안지역 국가제사를 담당했던 원도가 갖는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병자호란때 호국의 장소가 되면서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윤생은 의병을 모집하여 원도에 들어가 최후까지 분전하다가 의병들과 더불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 소식을 접한 부인 강씨는 곧 바다에 몸을 던져 부군과 함께 의절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861년(철종 12) 이윤생은 좌승지에 부인 강씨는 숙부인에 각각 추증되었다. 그 정려각은 현재 남구 용현동에 남아 있다.

원도사의 제사가 언제 없어졌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인천부읍지』(1842, 1871, 1899)의 기록에 모두 ‘지금은 폐지되었다(今廢)’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19세기 초에는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이른바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는 세도정치였고 사회적으로 신유박해(1801)로부터 병인박해(1866)에 이르기까지 4차례 걸쳐 천주교 수용과 그 전례문제로 혼돈과 수난의 시기였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소용돌이 속에 일본과 중국에 이어 조선이 개항되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와 갈등으로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국가제사의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 반 고기 반 연평파시



번성기의 연평도 파시 풍경(1948)

‘파시(波市)’란 글자 그대로 ‘물결[波]’을 타고 바다에서 열리는 ‘시장[市]’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곧 특정 어획물을 어획하는 어장에서 어선과 상선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그 어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업근거지(섬이나 육지의 어항)에서 어업자와 어부를 고객으로 하는 각종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여 말하기도 한다.

‘파시’란 말이 처음으로 나타난 문헌은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전라도 영광군의 서쪽을 조기가 나는 ‘파시평(波市坪)’이라고 하여 “봄·여름 사이에 여러 곳의 어선이 모두 이곳에 모여 고기를 잡는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시 영광군의 바다를 ‘파시전(波市田)’이라고 하여 “매년 봄에 온 나라의 상선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기를 잡아 판매하는데, 서울 저자와 같이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기가 나는 곳은 영광의 칠산 바다뿐만이 아니었다. “칠산 바다는 잔 조기고 연평 바다는 큰 조기란다”라는 배치기 노래가 있듯이 서해의 조기어업의 중심지는 연평도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마찬가지로 “해주 남쪽 연평평(延平坪)에는 석수어(石首魚)가 나서 봄과 여름에 여러 곳의 어선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그물로 잡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조기들은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북상하여 2~3월에 흑산도, 3~4월에 안마도와 위도를 지나 5~6월에 연평도에 어장을 이루는데, 회유하는 수십 억 마리의 조기를 따라 형성되는 시장이 곧 ‘파시’인 것이다.



1950년대의 연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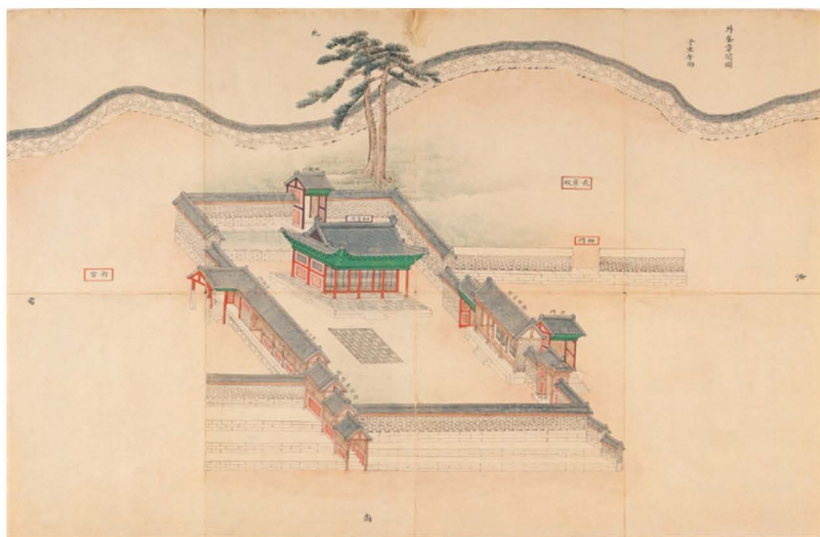
발동선의 보급과 어구·어망의 개량으로 연평도의 조기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일제강점기부터이다. 당시 연평도는 ‘석수어의 왕국’, ‘전조선의 찬장’, ‘서조선의 대보고’ 등의 수식어를 부여받으며, 조기 어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선배, 안강망배할 것 없이 갑판 위까지 가득 조기를 싣고 섬으로 들어오면 마포, 개성, 인천, 군산 등 각지의 상고선(商賈船), 운반선들과 뒤섞여 곧바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선들 뿐 아니라 1년 내내 조용했던 섬마을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공장과 식구미(생필품)를 위한 잡화점, 그리고 임시우체국과 주재소, 요릿집, 주막, 목욕탕 등의 임시가옥이 세워져 하나의 도시가 생성된다. 일찍이 연평도는 흑산도파시, 위도파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파시로 꼽히었다.

매년 2,000척이 넘는 어선 및 운반선과 수만 명의 어부들이 들어오면, 연평도에는 260호의 요정과 술집이 생기고, 소위 ‘물새’로 불리는 400명의 작부들이 어부들을 호객하였다. 따라서 연평도는 파시철만 되면 해주은행 금

고의 돈이 마르고, “사흘 벌어 1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흔한 곳이 되기도 하였다.

연평도의 조기 어획량은 1910년대부터 1950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는데, 1940년대에 이르러 정점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즉, 1946년 22,500톤의 어획을 올렸지만, 이후 1950~60년대에는 1만톤을 넘나들 정도로 감소된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대 말이 되자 조기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연평도의 조기 파시는 막을 내린다. 유자망, 기선저인망 등의 어구를 갖춘 대형화된 동력선들의 마구잡이 어획으로 참조기의 씨가 말라 버린 것이다.

왕실 도서관 외규장각



강화부궁전도(1881)에 보이는 외규장각

1782년(정조 6) 2월 14일 정조는 규장각의 분관인 외규장각(外奎章閣)을 강화에 설립하여 왕실의 중요한 물품과 서적 등을 봉안하였다. 외규장각은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의 유일한 분관이였다. 외규장각 설치 이후 규장각을 내규장각(內奎章閣, 내각)이라고 부르며 봉안품의 성격을 구분하여 내규장각과 외규장각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외규장각에서는 주로 왕실 물품, 어제(御製; 왕이 지은 글)와 어필(御筆; 왕의 친필), 의궤(儀軌), 서적류 등을 봉안하였다.

강화에 외규장각을 설치한 이유는 한양에서 가까우면서도 국내의 변란과 외적의 침입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피하여 강화로 천도한 일이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병자호란 때 왕족들이 강화로 피난해 온 일 등 일찍이 강화는 보장의 땅이라 믿어왔다. 왕실의 중요한 자료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의도에서 강화 행궁(行宮)에 외규장각을 설치한 것이다.

외규장각에 봉안되었던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1857년 작성된 『강화부외규장각형지안(江華府外奎章閣形止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외규장각에는 옥책(玉冊)·금보(琴譜)·교명(敎命) 등 왕실 물품 25점, 어제·어필 68점, 기타 족자류 6점, 의궤 401종 667책, 의궤 외 서적 606종 4,400책으로 총 5,166점이 봉안되어 있었다. 특히 외규장각에 봉안된 의궤의 경우 임금이 보는, 이른바 어람용(御覽用) 의궤로 다른 의궤에 비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



2003년 복원된 외규장각

1866년(고종 3) 프랑스 함대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강화에 침략하여 외규장각을 불태우고 의궤 300여 책을 포함한 도서 360여 책을 약탈하였다. 프랑스에 반출된 대부분의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1975년에 들어서야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하여 외규장각 의궤의 소재와 목록이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프랑스에 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3년 9월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현목수빈취경원원소도감

의궤(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 상권 1책을 전달하고 외규장각 의궤를 반환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으나 나머지 책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에 들어서야 G20정상회의에서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형식으로 대여하고 5년마다 임대를 갱신하는 데 합의하였다. 마침내 2011년 병인양요가 발발한 지 145년 만에 비로소 297책의 의궤가 우리나라로 귀환하였다.

현재 외규장각 건물은 2003년 강화군이 복원한 것으로, 내부에 외규장각의 설치 과정과 의궤의 반환 과정 등의 내용을 다루는 전시실이 조성되어 있다.

규장각의 설치 과정

처음 규장각의 설치는 조선시대 숙종대에 이루어졌다. 1694년(숙종 20) 종부시(宗簿寺: 종친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의 부속 건물로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어제와 어필 등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이 건물에 숙종이 친필로 쓴 ‘규장각’ 현판을 달았다. ‘규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어제와 어필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때까지의 규장각의 역할은 어제와 어필의 보관, 그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

1776년(정조원년) 3월 왕위에 오른 정조는 창덕궁 금원(禁苑: 현재 비원이라 속칭) 북쪽에 규장각 창건을 명하였다. 같은 해 9월 완공된 규장각은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서는 역대 선왕의 어제와 어필을 보관하고 2층은 왕세손 시절에 경희궁(慶熙宮)에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고 논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던 주함루(宙含樓)를 이전하였다. 또한 주함루 일대에 봉모당(奉謨堂)을 지어 선왕들의 유품을 보관하고, 열고관(閣古觀), 개유와(皆有窩), 서고(西庫) 등의 건물을 지어 국내의 서적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정조의 개혁정치를 위한 중추기관이자 산실이었다.

인천 유일의 학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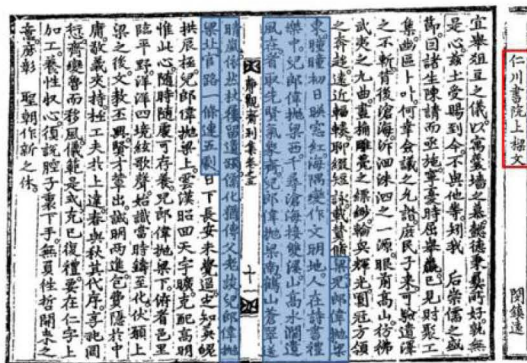
18세기 후반 여지도 속의 학산서원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실천하고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전국에 관학을 설립했다. 중앙에 성균관과 4학(四學), 그리고 지방의 부·목·군·현에 각기 1개씩을 설립한 향교(鄕校) 등이었다. 이외에 초등교육기관이랄 수 있는 서당이 마을마다 사설로 운영되었다.

당시는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중등교육 기관인 향교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생원, 진사의 호칭을 받고 성균관으로 가서 수학했다. 그리고 다시 대과에 응시하여 고급관직에 오르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다보니 향교가 교육보다는 과거 준비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관학의 관료주의적 운영을 타개해 보고자 설립된 것이 서원(書院)이었다.

서원은 16세기 이후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데 교육[講學]과 더불어 선현을 제향(祭享)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곳이다. 인천지역의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는 향교 4곳과 서원 2곳이 있었다. 향교는 인천, 부평, 강화, 교동향교가 있고, 서원은 학산서원(鶴山書院)이 유일하며, 서원 형식의 사당으로 선현봉사의 기능을 했던 강화도의 충렬사(忠烈祠)가 있다.

학산서원은 1708년(숙종 34) 설립된 사액(賜額)서원으로 인천부사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을 추모하여 건립되어 인천지역의 인재양성과 풍기교화를 담당했던 곳이다. 1786년(정조 10)에는 인천부사를 지낸 이단상의 아들 이희조(李喜朝, 1655~1724)도 배향되었다.



인천서원 상람문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이후에 그 전례를 따라 전국적으로 세워지는데, 서원의 면세나 구역 면제 등의 특권을 악용하면서 점차 폐해

가 늘어나 금지하는 일이 생겼다. 따라서 1871년(고종 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가 단행되어 전국에 679개나 되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헐어 버렸다. 당시에 학산서원도 없어졌다.

학산서원은 삼호현으로 오르는 길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아래로 터널이 생기고 주변이 밭이 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가 근래 학산서원 터를 찾아 지표석도 세우고 그 정신적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학산서원 표지석과 터(1950년대)



충렬사

서원은 ‘무슨 서원’이란 명칭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서원은 사(祠)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강조하는 유학에서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화도의 충렬사는 흥선 대원군 시기에 서원 철폐과정에서 살아남은 47개의 서원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대표서원이라 할 수 있다.

충렬사는 조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종묘의 위패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다가 청군에 의해 강화가 함락되자 남문루 위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한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공조판서 이상길 외 26분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여기에 신미양요 때 순절한 어재연 장군과 그 아우를 모셔 모두 29위의 선열이 배향되고 있다.

1641년(인조 19) 건립하여 현충사(顯忠祠)라 명명하였던 것을 효종 때 충렬사(忠烈祠)로 사액을 받았다. 현존 건물로는 사당과 책을 보관하는 전사청, 출입문인 외삼문 등이 남아 있다.

인천과 관련된 서양인 기록



서양인이 본 제물포

19세기 서구인들은 경제적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동양인의 생활이나 관습 등에 관심이 많아 여행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의 조

선에 관한 지식은 어이없을 정도로 일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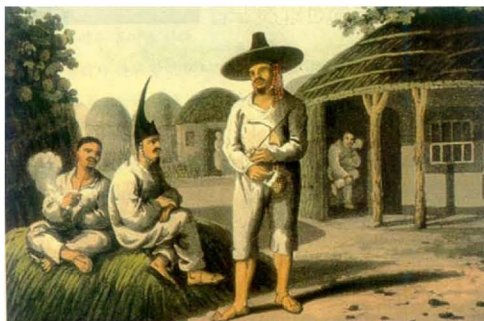
사람들은 ‘코레아’가 적도나 지중해, 흑해의 근방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가 하면 그 무렵 조선에는 우수한 모피와 종이, 아름다운 도자기, 인삼이라는 영약, 풍부한 해산물이 있다는 소문이 미국사람들 귀에 들어갔다. 또한 옷을 장식할 정도로 금이 혼하고, 묘에는 호화로운 부장품을 함께 묻는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모두가 서구인들의 귀를 쫓긋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여행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분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서양인의 기록에는 인천의 모습도 등장한다. 첫 기록은 동인도회사에 근무하던 해군장교 홀(Basil Hall)의 서해 5도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인 『조선서해탐사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이다. 주 중국 대사인 맥스웰(Murry Maxwell) 대령과 홀의 주요 임무는 백령도 해안과 동경 124° 46′, 북위 37° 50′ 일대의 섬들에 대한 측량이었다. 그들은 섬들을 ‘씨 제임스 홀 군도’(Sir James Hall's Group)라고 해도에 명명했다. 그들이 작성한 해도에 따라 서해 5도는 홀 군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홀 일행이 1816년 9월 1일 아침 9시, 백령도의 한 만(灣)에 정박한 뒤 섬에 상륙해서 본 것은 ‘갈대에 진흙을 발라 대강 엮은 듯한 40채의 집들과, 얼굴

이 구리 빛으로 탄 험상궂고 약간 야만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영국인의 눈에 보인 백령도 주민들의 첫인상이었다. 중국을 거쳐 온 홀은 특히 전족(纏足)이 궁금했던지 이곳 여인들의 발이 '중국에서처럼 죄이지 않은 보통 크기였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홀은 그 후 10일간의 여정으로 서해의 몇몇 해안 지역과 제주도 등지를 탐사한 뒤 약간의 한국어 어휘를 채집하고 귀환했다.

이후에 인천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외국인들로는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외교관인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미국총영사 겸 공사관 서



외국인이 본 소청도

기관 샤이레 롱(Chaille-Long, 1842~1917), 프랑스의 여행가이자 지리·민속학자인 샤를 바라(Charles Louis Varat, 1888), 아놀드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Landor, 1890), 영국의 작가 이사벨라 비숍

(Isabella B. Bishop, 1831~1904) 등이 있다.

인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은 대개 개항장 제물포의 고즈넉한 풍광을 소개하거나 각 조계지의 건물과 활기찬 거리나 사람들의 모습을 서술하였다. 특히,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최초로 발간된 잡지인 『Korean Repository』(1892.1~1898.12), 『Korea Review』(1901.1~1906.12)에는 근대 건축물이 즐비한 일본, 청국, 외국인조계지의 이국적인 풍광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고 있고, 제물포클럽 개회식 모습, 그밖에 강화에 대한 인상과 인천항에서의 역사적 사건(제물포해전 등)이 기술되어 있다.

근대 최초 조약 체결지 강화 연무당



연무당

1876년 2월 27일 한국 최초의 국제조약이 인천 강화 연무당에서 체결됐는데 조약의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로 강화도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조선과 일본 양국이 대등한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체결한 근대적 국제법상의 통상조약이기는 하였지만, 과정은 일본의 무력 행위에 굴복하여 반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었고 상호 ‘무관세(無關稅)’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FTA이기도 했다. 농수산물 위주의 조선과 공업생산물 위주의 일본이 무관세로 무역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약에 따라 부산이 개항되고 1880년과 1883년에 원산과 인천이 각각 개항되었는데, 쇄국에서 개항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불과 협상 15일 만에 성사된 것도 놀랍기만 한 대목이다.

이 조약을 맺기 5개월 전인 1875년 9월 20일 일본은 ‘운요호’를 통해 무력적 함포시위를 단행, 강화도의 초지진을 단시간 내에 쑥밭으로 만들고 인천 영종도에 상륙하여 약탈과 강간을 자행하였다. 일본은 운요호가 출항하기 전 이미 ‘사건의 수습책’에 관한 자세한 메뉴얼을 미리 만들어두고 있었는데 “평화적으로 활동 중이던 운요호를 조선이 느닷없이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발동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세계 각국에 주지시켜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개항을 협상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교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청국과 영국, 미국 등 주변 열강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은 물론이다.

일본은 1868년 수백 년 동안의 막부 체제를 끝내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서양의 체제를 모방했다. 거기에 개항을 전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일본의 공업은 상품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조선과 무역을 틀 뿐 아니라 종전의 제한도 없애고 본격적으로 무역이 확대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조선의 희생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운요호사건으로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군함 6척을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하여 무력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1876년 2월 11일 하오 1시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와 배상에 대한 제1차 회의를 열렸다. 다음날 12일 2차회담 때에는 미리 준비된 13개 조항으로 된 조약문을 제시하고 ‘10일의 기한’ 내에 회답을 얻지 못하면 양국간의 국교는 단절된다고 위협하였다. 수모적 분위기에 결국 2월 27일 강화부 연무당에서 조일수호조규에 조인하고 비준서를 교환하고 말았다.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최종 조인된 장소로 이 곳에서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 원산을 일본에게 개항하였다. 1870년(고종 7)에 창건된 연무당은 본시 지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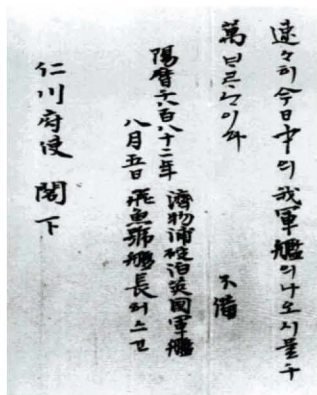


운요호

강화군 농협 자리 서쪽에 있었는데, 비좁아 동소문 밖으로 옮겼다가 내성서문 남쪽에 당을 세우고 그 전면에 조련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연무당은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곳으로서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 곳에 기적비가 세워져, 민족 자주의식을 드높이 간직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보름 남짓 걸린 상황에서 조선의 위정자들이 줄지에 맺게 된 조약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란 무리였다. 조선 내부에서도 회담에 반대하는 신료들의 비중이 오히려 높았지만 그들을 저지할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당시 국제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불평등 조약일지라도 형식적으로 당사국이 합의한 것이라면 유효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에 의해 이러한 만행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며, 이것이 제국주의자들이 주창했던 ‘적자생존’이었다. 강압과 사기로 한번 재미를 본 일본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국부를 늘리려 했고, 해외에서 얻은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점점 더 군국주의화되었다. 상대방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한 협박과 기만적 술책에 의한 착취는 결국 그 착취자에게도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했던 것이다.

축구와 야구의 도입지



1882년 플라이 피쉬호 허스킨 함장이
인천부사에게 보낸 공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축구의 도입과 최초의 팀창단은 인천이다. 영국을 모태로 하는 근대 축구가 한국에 전파된 것은 1882년(고종 19)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이 피시(Flying Fish)의 승무원들을 통해서라고 전해진다. 1882년 플라이 피시호가 제물포에 입항했을 때, 수병들이 잠시 상륙하여 자기들끼리 축구 시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정식 시합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한국 땅에서 벌어진 최초의 축구 경기로 알려진다.

영국 수병들은 축구가 끝나 배로 돌아가면서 공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고 갔다고 하는데 이 공이 또한 한국에 전해진 최초의 축구공이며, 이때 공을 찬 한국 아이들이 최초의 서양 축구공을 찬 한국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축구 전래설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문헌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 실제로 확인해 낼 수가 없으나, 1882년 플라이 피쉬호 허스킨 함장이 인천부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그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식 축구의 보급은 1904년 서울의 관립 외국어학교에서 체육 과목의 하나로 채택하면서부터이고, 한국 최초의 공개 축구 경기는 1905년 6월 10일 서울 훈련원(오늘날의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대한체육구락부와 황성기독교청년회간의 시합이라고 기록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라 경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경기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1901년에 강화에 근대 축구팀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1901년 3월 21일 시드니 J. 파커가 제물포(인천)에서 영국 성공회 발행 잡지 ‘모닝 킴(Morning Calm)’ 편집자에게 보낸 글(편지)에는 강화학당 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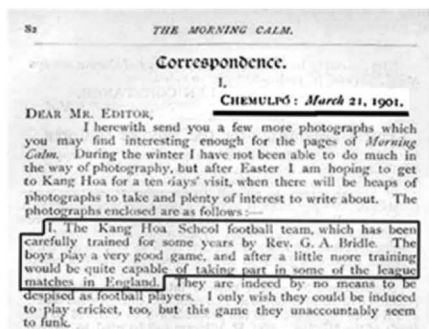
팀이 G. A. 브라이들 목사에게 수년간 훈련을 받았다(Kang Hoa School football team, which has been carefully trained for some years by Rev. G. A. Bridle.)고 쓰고 있다. 또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선수들이 좀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잉글랜드 리그 진출도 가능하다.(The boys play a very good game, and after a little more training would be quite capable of taking part in some of the league matches in England)고 썼다.

이 문헌은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 근대 축구의 보급 연도(1904년)는 물론 국내 최초 공개 축구 경기 연도(1905년) 등 대한민국 근대 축구사를 수년 앞당기는 획기적인 일이고, 인천이 우리나라 축구 도입지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은 일제시대부터 ‘구도(球都)’로 불릴 만큼 야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으며, 시민들의 가슴속엔 항상 야구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인천이 국내 야구의 시발지인 까닭이기도 하다.

한국야구계에서는 한국야구의 기원은 1904년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Philip. L. Gilet)가 야구 장비를 들여와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회원들에게 타구(打球) 또는 격구(擊球)라는 이름으로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왔다. 이어 1906년 2월 11일 황성기독교청년단과 독일어학 교팀이 야구경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야구경기로 알려 졌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1890년대 후반에 이미 인천항 등에 집단거주하고 있던 일본 거류민들이 야구를 즐겼다는 이야기와 인천항을 오가는 상인들에 의해 야구가 전국적으로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전거를 삼을 게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인천영어야학회(1895~1904,



영국 성공회에서 발행하는 'The Morning Calm'에 게재된 강화 축구팀 소개 글(박스 부분)
(영인일보 2007. 7. 20. 기사)

인천고등학교의 전신) 1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후지야마 후지후사의 1899년 2월 3일자 일기에 “베이스볼이란 서양공치기를 시작하고 5시경에 돌아와서 목욕탕에 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건대 인천에 이미 야구가 있었던 듯하다. 이는 미국인 선교사가 보급한 1904년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셈이다.



한용단 야구팀

일본에서는 1872년 가이세이학교(동경대학의 전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호레이스 월슨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때린 공을 잡게 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일본 야구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아마도 인천 개항과 더불어 일본 야구가 일부나마 인천에 이미 보급됐었을 개연성이 크다.

최근 한국 야구 도입원년을 정의하기 위한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어 아직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한국 야구 시발지로의 인천의 위상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한국에 야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5년이라고 알려졌으나, 1904년이 맞다.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야구 장비를 들여와 YMCA의 전신인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한국 야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통설인데, 나현성이 1958년 『한국운동경기사』를 발간하면서 이 시기의 서력 환산을 1905년으로 잘못하여, 이후 야구 관련 서적들이 이를 따르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길용이 1930년 연재한 『조선야구사』에는 “야구의 토산국인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거쳐 조선에 처음으로 도입되기는 지금으로부터 27년전인 서력 1904년 봄의 일이다.”고 전하며, 한글로 된 가장 오래된 야구 규칙집 『야구 규칙』에도 야구가 도입된 시기가 1904년으로 명기돼 있다.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 체결지

1876년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통해 일본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1882년 4월 6일(양력 5월 22일) 제물포에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서구 열강과 맺게 되는 최초의 조약이었다. 그런 가운데 일본과는 임오군란의 배상문제로 제물포조약(1882.8)을, 중국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



조독수호통상조약 체결

더구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지 15일 후 영국(4.21), 독일(5.15)과 인천에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1884년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 프랑스, 1892년 오스트리아, 1901년 벨기에, 1902년 덴마크 등과도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결국, 을사늑약 바로 전인 1904년 12월 외교관, 영사관제가 폐지되면서 각국 주재공사의 철수명령이 내려지고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과 수교 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쟁탈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청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구미열강과 수교할 것을 결정하였다. 뒤이어 청국의 리홍장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함에 따라 수교 논의가 진전되어 1882년 3월 25일 조약체결을 위해 슈펠트 제독이 인천에 도착하였다. 조선은 신헌(申憲)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김홍집을 부관,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미국 측과 협상한 후 제물포에서 4월 6일 ‘조미수

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조약이 이후 영국, 독일 등 구미 열강들과의 조약체결에 근거가 되었다.

전문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일본 및 청국과의 조약보다는 그 정도가 완화된다는 하였지만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사실 영국은 조약 체결 이후에도 아편의 수입금지와 최고 3할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부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독일 정부에도 비준을 거부하도록 종용하였다. 영국의 경우, 결국 재협상을 통해 10월 27일에 수정·조인하였다. 수정된 조영조약에서 협정관세와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와 연안무역권, 연안해운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조선시장은 외국상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조독수호통상조약과 이후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열강과의 조약체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후 한국의 관세수입에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장소와 관련해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지도에 보이는 해관관리관 사택
(세무사 공관) 위치

이견(異見)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사교과서에서는 ‘인천 재물포’에서 체결되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1959년경 인천의 향토사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잡지로 알려진 『The Korean Repository』(1897년 10월호) 및 『The Korea Review』(1901년 1월호)에 게재된

내리교회 존스 목사의 글을 토대로 ‘화도진’으로 구체화하였고, 그 이후 최근까지 화도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무렵에 신학을 연구하는 인천 연구자가 앞서의 자료에서 영문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화도진이 아닌 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 아래 초기 ‘해관’ 근처에 천막을 치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약체결 장소에 대한 실마리는 ‘해관 관리관의 사택’이 과연 어디에 있던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같은 책에 아펜젤러목사가 서술한 ‘슈펠트의 회고’라는 글 가운데 해관 관리관 사택 부근에서 천막을 치고 체결했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그 장소는 처음에 미국이 영사관부지로 선정했다가 해관에 양도했던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지도 같은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던 차에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쥔이 설계한 ‘대조선인천제물포각국조계지도’(1884)가 2013년 세관에 근무하는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해관 관리관의 사택은 자유공원 청일조계경계계단 위쪽,



해관관리관 사택 터 현재 위치(언덕 위)

현재 음식점이 있는 자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위치는 1962년경에는 선교방송인 극동방송(HLKX)의 스튜디오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그 언덕 인근에

천막을 치고 체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1882년 일본과의 ‘제물포조약’ 체결 장소인데, 현재 인천개항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과 대불호텔 터 일대이다. 그러므로 당시 조미조약에 이어 제물포조약, 영국, 독일과의 조약도 전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금의 자유공원으로 가는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부근에 천막을 치고 맺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초의 서양 무역회사 이화양행



광장양행 광고

1883년 1월 인천의 개항은 기존의 부산과 원산의 개항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서해안의 요충지였고 수도 서울로 진입하는 최단 거리였던 인천에는 앞서 중국과 일본에 진출해 있던 유럽과 미국계 상사들이 가장 먼저 상륙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조선은 앞으로 개항할

인천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이미 청국과 교감을 나눈 상태에 있었다. 1882년 말 중국 해관(세관)에 관계하던 뮐렌도르프(穆麟德)가 청의 추천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그는 조선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상사와 많은 접촉이 있었다. 부임할 당시에는 이화양행 소속의 영국인 광산기술자 버틀러(Buttler, 巴爾)가 동행하기도 하였다. 다음 해 1월 뮐렌도르프가 광산개발 및 철도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왕의 전권대사로 상해에 파견되었을 때, 이화양행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상해·재물포간의 정기항로 개척권 및 광산권 이양을 타결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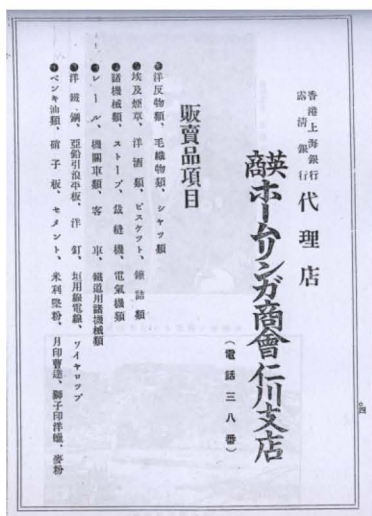
이를 기회로 한국에 제일 먼저 진출한 서양의 상사는 1883년 영국계 이화양행이었다. 이화양행(怡和洋行)은 중국식 이름으로, 본래의 상호는 자딘매티슨(Jardine Matheson & Co)이다. 이 회사는 1832년 영국의 윌리엄 자딘(Scots William Jardine)과 그의 대학 후배인 제임스 매티슨(James Matheson)이 중국 광저우에 설립한 상사로, 동인도회사의 대중국무역 독점이 폐지된 1834년부터 영국에 홍차와 비단을 수출했고, 인도산 아편을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했다. 1842년 홍콩에 본사를 세운 후 면 제조 공장을 세웠고 부두, 창고를 지었으며 또한 보험회사도 세웠다. 1858년에는 일본 요코하마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고베와 나가사키에 진출한 전형적인 무역회사로, 현재 홍콩의 가장 유력한 재벌기업으로 존재하는 자딘그룹의 모태이다.

이화양행은 조선과의 협약에 따라 우피(牛皮)무역에 종사하면서 청국 초상국(招商局) 소속 660톤 급의 기선 남승호(南陞號)를 투입하여 나가사키와 부산을 경유하여 인천과 상해를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정기 항로를 개설하고, 광산채굴권을 획득했다. 당시 인천항 중국인 거류지 앞 바다에 폐선을 띄워놓고 사무실 겸 창고와 일꾼들의 거주지로 사용했다. 부업으로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할도 겸하였는데 이것 또한 한국 최초 보험업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화양행의 조선에서의 이권에 대한 관심은 광산에 집중되었다. 특히 상해 대리인 거빈스(J. H. Gubins, 高斌士)는 뮐렌도르프와 친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1883년 7월 이화양행은 뮐렌도르프와 계약을 맺어 이익의 10분의 3을 과세한다는 조건으로, 열강 중에서 최초로 한국에 근대식 채굴기계와 광산기술자를 파견하여 경기도 영평 만세교 사금장에서의 채굴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금화, 금성지역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내한 목적은 교역 보다는 처음부터 광산채굴에 있었던 것이다.

이화(怡和)는 ‘행복한 조화’라는 뜻이었지만 한국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종일관 경제적 이권만을 얻는 데 관심을 보였다. 1884년 정기선 운항은 1년간의 계약이 만료되자 누적된 운항 결손으로 중단하였고, 11월에 이르러서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결국 조선에서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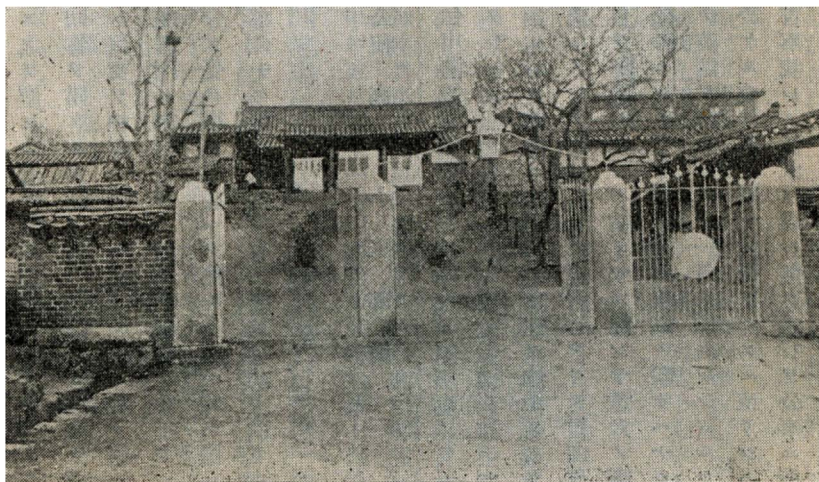
홍령거양행 광고



홍령거양행

홍콩 등지를 본거지로 한 영국계 상사들(廣昌洋行)이 한국과의 교역 가능성에 착안하여 한국 진출을 여러 모로 꾀하였으나 수출할 가치 있는 상품의 빈약 등의 이유로 극히 부진하였다. 뒤를 이어 1884년 독일계 세창양행, 1885년 미국계 타운센드양행, 영국계 홍령거양행 등이 사업수원을 발휘하여 상업의 주도권을 형성하였다.

개항장 행정기관 인천감리서



인천감리서 정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부산과 원산에 개항장을 설치하였으나, 본격적인 개항업무는 1883년 1월 1일(양력) 인천이 개항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정부는 새롭게 직면한 대외관계를 관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필요로 하였다. 실제로 인천의 개항부터 그간 무관세(無關稅)로 일관하던 관세행정이 개정되어 외국과의 교역에 관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세관 행정을 담당할 ‘인천해관’을 6월에 설립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 납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관은 외국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에 개항장에서 의 통상사무, 외국인의 입출국, 개항장의 내·외국인 문제 등을 관장·감독할 행정기관으로 감리서(監理署)를 최초로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인천항 감리서는 부산, 원산 등의 개항장과 함께 1883년(고종 20) 8월 19일 감리(監理)가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개항장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제물포 항구 인근인 내동 83번지에 감리서를 건립하였다. 초대 감리인천항 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 이하 ‘감리’로 줄임)로는 조병직(趙秉稷)을 임명하였는데, 조병직(1833~1901)은 1881년 정부가 파견한 조선 12인 조사 일본시찰단(朝鮮十二人朝士日本視察團; 신사유람단)에 참가하였고 귀국

후 통리기무아문 부경리를 역임한 후 이곳으로 부임한, ‘신문물’인 해관사무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다.

조병직에 이은 제2대 인천항 감리는 1884년 4월 부임한 홍순학(洪淳學)으로 이후 1886년에 이르러서 인천부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리서 행정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인천부사직과의 차별성을 갖고 해관



인천감리서 뒷모습

업무에만 전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감리서는 1890년대에 이르러 감리 1명과 방판(幫辦) 1명, 서기관 5명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서기관은 감리와 방판의 업무를 보좌

하였고, 방판은 감리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자 그 업무를 분장하는 직책으로 새로 추가되어 설치되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방제도의 개편에 의해 종래 전국의 8도(道)가 23부(府)로 편제되었다. 인천관찰부는 인천 개항장에 설치되고 관찰사가 수장이 되어 인천을 비롯한 12개군(郡)을 관할하고 감리

서의 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895년 5월 인천항 감리서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개항 이후 수도 서울의 관문이 된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안



인천감리서 원경과 응봉산

일부를 하나의 부로 독립시킨 것이었으나, 일반행정 업무와 인천항의 통상 및 외국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찰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성격이 다른 업무가 복합되어 있어 행정상의 어려움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항장 사무에 관한한 인천군수가 관찰사와 동등

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지사서(知事署)를 개항장에 설치하였지만 상호 권한 문제로 인해 개편이 요구되고 있었다.

1896년 8월 또다시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인천관찰부는 폐지되었고 종전 인천관찰부가 관장하던 인천항의 통상사무는 새로 신설된 인천부윤(府尹)에게 자동적으로 겸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개항장감리서를 다시 설치하고 감리가 그 지방 부윤을 겸임토록 하게 함으로써 통상사무를 일원화하기에 이르렀다. 감리서가 폐지된 지 1년 4개월이었다. 복설된 감리서 감리의 임무는 각국 영사교섭과 조계와 항내 사무 일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종전에 주로 통상사무만 관장하던 감리보다 그 기능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또한 고유한 업무이외에도 인천 부윤직은 물론 개항장재판소의 판사직, 지역내 학교의 학교장직까지 맡아 개항장에서 최고 위자로서 내외의 각종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개항장에 경무관을 두고 감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경찰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권력의 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1903년 1월 개항장 감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던 부윤직을 분리 독립시켜 권한을 약화시키더니, 이 해 7월 지방제도 중 일부를 개정하여 인천, 부산, 원산 등의 부윤(府尹)을 군수로 격하하였다. 부윤의 통상사무 전담 기능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격을 낮춘 것이다. 한편 일제는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와 함께 지방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하였다. 개항장 소재지의 군을 부(府)로 개칭함으로써 인천은 다시 부로 승격되었으나 인천감리서를 폐지하고 10월 1일을 기해 그 업무는 인천부에 인계되었다. 감리서의 업무는 이 사청과 인천부로 분리되고 감리의 업무 상당 부분이 신설한 통감부 인천이사청(理事廳)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는 일제에 의한 지방의 실질적인 통치행정권의 장악을 의미하며, 1910년 합병 이전 이미 대한제국은 국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관세 수세 인천해관



인천세관

관세징수는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의 상품유입에 맞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그것은 동시에 중요한 국가재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였다. 그러나 근대적 통상외교의 경험이 없었던 조선은 관세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채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그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무관세·무세관체제에 수수방관함으로써 관세자주권을 스스로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교활한 수단에 의해 무관세무역을 인정해 버린 조선정부는 부산을 개항한 뒤에야 관세자주권의 중요성을 깨달아 관세의 설정을 당면 중요 정책으로 삼고 해관 창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수차에 걸친 일본과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조선은 부산 두모진(豆毛鎭)에 자체적으로 해관을 설치하고 대일무역에 종사하는 조선 상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지만, 조선인 상인들의 발길이 끊겨지게 되자 일본은 급기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벌이게 됨으로써 조선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관세자주권은 1882년 5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일단 결실을 보아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후 조선은 관세사무에 밝고 학문에 정통한 서양인 뫼렌도르프를 초빙하여 조선 해관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차후 조선 청년을 훈련시켜 그 업무를 대체토록 계획하였다.

한국 최초의 해관인 인천해관은 1883년 6월 16일부터 수세 업무를 시작하였는데(원산 6월 17일, 부산 7월 3일), 그 관할구역은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의 5도였다. 수출입세와 톤세로 구성되는 관세는 해관 창설 직후인 1884년 2월 당시 총세무사 뫼렌도르프가 해관세 수세업무를 위탁계약형식으로 일본제1국립은행에 양도함으로써 각 개항장의 지점에 징수 예치되었는데, 일본제1은행 부산지점 인천출장소가 생겨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인천지역사회가 구태에서 벗어나 외국상품의 집적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근대적 거리로 변신하여 국제도시로 탄생하는 전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초기 해관

인천해관의 관세수입은 개항과 더불어 신설된 각종 기관의 경비 일부 및 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의 급료로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정규적인 지출 이외에도 각 해관의 제반시설비 및 개항장 내의 각국거류지 공사비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

학생과견비, 친군영, 광무국의 경비로 지출되었고 외국에 대한 각종 배상금으로도 지출되었다. 또한 용도를 밝히지 않는 명목으로도 정부에 상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세수입의 주요한 용도의 하나는 대외차관의 원리금 상환이었다. 이는 관세수입이 당시 조선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재원이었고 조선정부가 대외 차관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정부의 청·일 및 구미열강과의 차관은 대부분 관세수입을 담보로 성립되었다.

인천해관의 창설은 관세행정의 효시로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관세 전반에 관하여 피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었고, 정부는 관세의 수입을 단지 궁핍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국고의 수입증대를 위한 신재원으로만 파악하였다. 관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정부재정에 응급적이고도 다각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항에 수반하는 효용적 자금으로 운용되지 못한 채 대외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급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관 어음

당시 해관 총세무사는 독일인 뮐렌도르프였고 해관 종사원 또한 모두 외국인이었는데, 인천 앞바다의 선박 계류시설이 불편했던 당시 본선(本船)으로부터 화물이나 인원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의 기상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883년 9월 1일부터 정규적인 해양 기상관측이 시작되었고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인천 해관에서 종합적인 연안기상관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제도시의 상징 인천 외국인묘지



북성동 외국인묘지 원경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자 인천은 새로운 변화로 술렁거렸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제물포는 많은 선박들과 각종의 물건들이 모이는 교역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청국, 일본은 물론 문화와 관습이 전혀 달랐던 서구의 외국인들을 위한 각국거류지까지 형성되었다. 그들의 자치기관인 신동공사(神董公司)를 통해 거류지의 규칙이 정해지고 주택과 제도 및 새로운 문화들이 생성되면서 영원한 안식처인 공동묘지도 조성되었다. 중국, 일본인 공동묘지 외에 조선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모습의 외국인묘지가 북성곶에 만들어졌다.

인천의 외국인 묘지는 사실상 국내 최초의 외국인 묘지로 북성동 1가 1번지에 위치하였다. 묘역의 넓이는 26,400㎡(8천 평)으로 설치된 것은 1883년이었지만, 최초 매장은 1885년 11월 미국인 조셉 티몬스(Joseph Timmons)였다. 1914년 조계제도가 철폐된 후에는 각국영사관이 관리하다가 1941년 묘지 주변 일부가 철도용지로 수용되어 축소되었다. 6.25전쟁 중에 일부 묘가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던 것을 복원하여 관리하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1965년에 도시 계획에 따라 현 연수구 청학동 야산 12,400㎡

(3700평)의 새 묘역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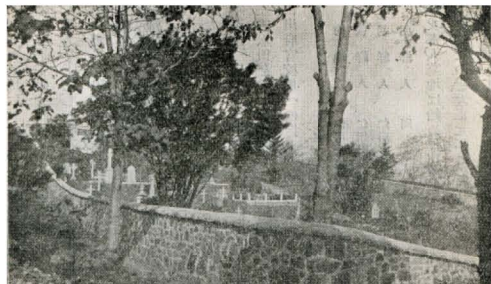
여기에는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 왔던 외국인들의 묘비 66기가 남아있다. 오랜 세월 비석이 마모되어 이들 중 매장 연대를 알 수 있는 피장자로는 개항기 인물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1952년과 1962년에도 피장자는 있었는데, 1952년은 6·25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묘지의 피장자들 중 그 전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6명 정도인데 이들은 해관이나 무역상사의 직원들로 근대사의 전개과정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서구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남긴 미국인 사업가 쿠퍼(Charles Henry Cooper)를 비롯하여 개항기 인천에서 의료 선교로 널리 알려진 성공회의 약대인(藥大人) 랜디스박사, 인천 해관의 오례당(吳禮堂), 세창양행의 헤르만 행켈, 타운센드 상회의 월터 타운센드 등 개화기 인천과 인연을 맺었던 유명인사의 묘비를 볼 수 있다.



청학동 외국인묘지(현재)

초기 인천 해관과 관련된 인물들로는 중국인 오례당(Woo LI Tang: 1843~1912)과 그의 스페인 출신 부인 아말리아(Amalia Amador C. Woo: 1863~1939)가 있다. 인천 해관의 창설 멤버이자 통역관이었던 오례당은



초기 북성동 외국인묘지

보빙사로 민영익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내리와 울목동 일대에 과수원 등 많은 땅과 재산이 있었다. 그런 탓에 그의 사후에 부인과 친척들간에 오랫동안 재산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외에 영국인 바타버스(Edward Batavus: 1848~ 1902)와 관세징수 담당 사무원인 그의 아들(Edward Batavus Jnr: 1877~1907), 독일인 라다게(Amandus Ladage: 1858~1886), 밀수출입을 감시하는 승감원이었던 독일인 브링크마이어(Robert Hans Carl Brinckmeier: 1840~1930)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츠 브링크마이어 (Hatsu Brinckmeier: 1856~1937), 영국인 홀링워스(Thomas Hollingsworth: ~ 1899), 캐나다인 리치먼드(Frederick Frank William Richmond: 연대미상) 등이 있다. 또 인천 해관의 촉탁의사로 활동했던 성공회 성미카엘 교회 의료 선교사 랜디스(Eli Barr Landis: 1865~1898)가 있다. 1890년 인천에 와서 헌신적인 의료활동으로 약대인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33살의 독신으로 요절했다. 특히, 한국의 풍속에 관한 많은 연구를 남겼던 그는 1898년 묘지에 안장되었다.

무역상과 관련해서는 독일계 세창양행의 사원으로 자신의 신혼집을 인천 향이 내려다보이는 각국공원 부근에 지었던 탓에 헨켈저택으로 더 유명했던 헤르만 헨켈(Hermann Henkel)이 있고, 또 쉬르바움주택으로 더 알려진 쉬르바움의 후손 2인(Annelene Schirbaum, Ruth Schirbaum)이 있다. 아울러 인천 최초의 스텝정미소로 유명했으며 일본인 여성을 부인으로 두었던 미국계 타운센드상회의 월터 타운센드(Walter Davis Townsend: 1856~1918)가 있고,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소재와 무대가 되었던 나

가사키의 무역상 글로버 집안의 딸 글로버 하나(1873~1938)가 매장되어 있다. 그의 남편은 영국인 무역상인 베넷으로 베넷상사를 설립하였으며 1920년대는 명예영사로 인천의 영국영사관에서 살았던 기록이 있다.

외국인묘지를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되는 것이 요코하마의 외국인묘지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다. 알려진 것처럼 요코하마는 인천과 비슷한 역사적 변화를 겪었던 곳으로, 1859년 일본의 첫 개항장으로 서구문물을 수용한 지역이다. 요코하마항이 내다보이는 언덕 경사면에 위치한 요코하마 외국인묘지는 1854년 미국 페리 전함에서 사고사한 해병대원 로버트 윌리엄스가 묻힌 것을 시작으로 40여 개국 외국인 약 4800명이 18,000m²의 부지에 묻혀있다.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그 공식적인 명칭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주교의 절두산 성당과 순교박물관도 근처에 있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유적이 가까이 있는 유례가 드문 곳이다. 절두산 성당은 용산의 새남터, 서소문 밖 염천교 근처의 광장과 함께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형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양화진에 처음 묻힌 사람은 인천보다 5년 늦은 1890년 7월 28일 제중원(濟衆院)의 2대 원장이었던 헤론(W.B.Heron)으로 환자를 돌보다 이질에 걸려 34세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후 양화진에는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됐던 헬버트,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한국 선교의 개척자로 꼽히는 언더우드와 그 가족들, 영국 특파원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베델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이 묻혀 있다.

유일의 외국인 전용 거주 지역 각국조계



각국조계

인천이 개항되며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구미 각국은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상을 확대하려 하였다. 조계는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외국인 전용 거주 지역을 획정하여 그곳의 지방 행정권을 그들 외국인

에게 위임한 것이다.

먼저 일본은 조선과 1883년 9월 30일 「조선국인천구조계약서(朝鮮國仁川口租界約書)」를 체결하여 구역을 획정하였다. 지금의 중구 관동과 중앙동 일대 23,100㎡(약 7,000평)이었다. 조계 획정 이후 인천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조계 확장을 시도하여 12,540㎡(약 3,800평)을 늘렸지만, 계속 유입되는 일본인의 거주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조계 앞의 해수면을 매립하여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의 규정을 들어 미국과 영국 등이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조계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일본인들은 각국조계와 조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침투하게 되었다.

청국은 1883년 말쯤에 이내영(李乃榮)이 영사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청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천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청국이 1884년 4월 2일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체결한 후에는 본격적인 청국인의 이주가 있었다. 청 조계 지역은 중구 선린동 일대 16,500㎡(약 5,000평) 정도였고, 이 일대는 이른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한때 인천의 상권을 주도할 정도로 번창하였다. 일본에 비해

뒤늦게 영사관을 개설하고 조계설정도 늦은 청국이 인천 상권에서 일본인에 우위를 보인 것은 1882년 10월 조선과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큰 역할을 하였다.

각국공동조계는 1884년 11월에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에 의거, 조선과 미국, 영국, 청, 일 5개국이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을 체결함으로써 확정되었다(나중에 독일, 러시아, 프랑스도 동참하였다). 각국공동조계 지역은 일본조계 서쪽을 따라 일본과 청 거류지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으로 면적은 462,000㎡(약 140,000평)이 넘었다.

인천의 각국공동조계에 거주한 서양인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영사관직원이나 세관 직원, 통역, 선교사, 의사, 그리고 일부 상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각국공동조계의 땅은 모두 이들이 임차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조계는 너무 좁아 일본인들이 각국공동조계로 대거 몰려 들자 서양인들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

각국공동조계는 인천(1884. 10), 진남포·목포(1897. 10), 군산·성진·마산(1899. 6) 등 6개 항구에 개설되었으나 인천을 제외한 5개 공동조계에 거주한 외국인은 거의가 일본인들이었고 따라서 각국공동조계라기 보다는 일본인 단독조계와 같았으며 6개 공동조계에 모두 신동공사(神董公司)라는 자체 행정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제대로 기능한 것은 인천의 신동공사 뿐이었다.

당시 각국공동조계 내에 거주한 일본인의 수는 2,000명을 넘었으나 조계행정의 실체에 있어서는 늘 구미인들에게 밀렸다. 그 이유는 공동조



각국조계석

계의 재정상태가 매우 부유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높은 지세를 걷은 데다가 바, 카바레, 요식업, 극장 등에서 높은 영업세를 걷어 매년 세입액이 세출액보다 많았다. 세출액의 내용은 순경과 청소원 등의 봉급, 도로수리비, 신작로개설비, 하수도구축비, 가로등비 등이었다. 재정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각국공동조계는 해마다 막대한 기금을 비축할 수 있었으며,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볼 수 있는 각국공원(현재의 자유공원)과 같은 공공시설도 갖출 수 있었다.

한편 각 조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가로 34cm, 높이 60cm, 두께 14cm 크기로 앞면에는 ‘각국조계(各國租界)’, 뒷면에는 ‘조선지계(朝鮮地界)’라는 문구를 새긴 비석을 세웠다. 각국조계석은 1884년 10월 이후의 어느 시점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화교사회의 시작 청관



1930년대 청관 거리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즉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전통적인 화이질서(華夷秩序)에서 벗어나 세계로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를 맞았다. 따라서 오랫동안 조공무역체제를 유지했던 청국(淸國)과도 1882년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같은 해 12월, 일본이 제물포 개항을 선언하고 개항장 내에 일본전관조계(日本專管租界)를 설치하자, 청국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1883년 12월 청국의 상무위원 천수탕(陳樹棠)은 조선의 통상교섭사무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ollendorff)와 함께 제물포를 답사하고 일본조계의 서쪽을 청국전관조계(淸國專管租界)로 선택하였다. 먼저 개항된 부산이나 원산보다 앞서 인천에 조계 설정을 서두른 것은 머지않아 이곳에서 무역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청국과 조선 정부는 1884년 4월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체결하여 청국전관조계를 확정하였다. 이 장정의 체결과 동시에 조

계부지의 평치작업 및 도로공사를 개시하였고, 1년 후인 1885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청국전관조계는 약 5천 평이었다.

천수당의 예측대로 이후 인천은 상업발달과 함께 대외무역도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계 내 청국인의 인구수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1883년 63명에 불과했던 청국인은 1년 만에 235명이 되었고, 1892년에는 63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국은 조선정부에게 새로운 조계지의 확충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1883년 11월에 체결되어 이후 조선과 제 외국 간의 조약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된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하면, 외국인의 거주를 위한 ‘조계’ 외에도 ‘조계 밖 10리 이내’의 공간, 즉 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잡거지(雜居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국인은 ‘조계 밖 10리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지와 가옥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각국조계에서도 거주지를 확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국은 자신들의 우월적 권리를 주장하며 1887년 7월 「삼리채확충화계장정(三里寨擴充華界章程)」을 체결하여 삼리채를 청국의 또 다른 조계로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삼리채란 당시 ‘축현(紬峴)’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지금의 경동사거리 일대에 해당한다.

약 3,853평의 면적을 지닌 삼리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한성대도(漢城大道)’, 즉 경인로가 가로지르는 곳으로 앞으로의 상업적 발전이 기대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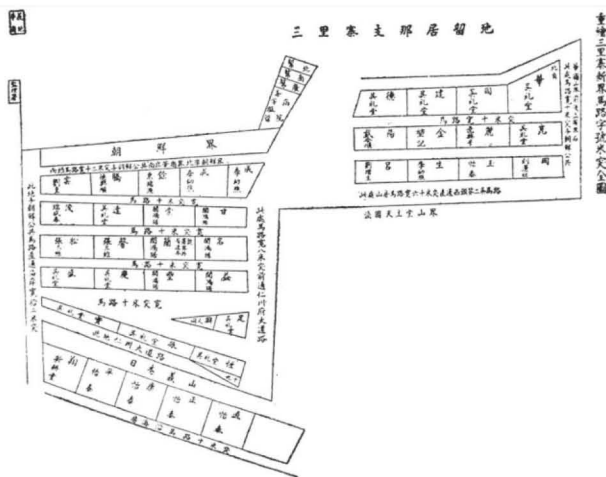


〈제물포각국조계지도〉(1888)에 표시된 청국조계지(지도의 왼쪽)

이었다. 또한 개항 후 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들어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일본·청국 삼국 간의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정부는 그동안 청국과 맺었던 모든 장정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청국조계와 삼리채조계는 그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인천 화교의 유력자인 우리탕(吳禮堂)

등이 주도하여 청국조계와 삼리채조계를 각국조계에 통합시키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아울러 일본과 조선정부도 조선고유의 영토로 환원시키려 하였으나, 이 역



삼리채 청국 확충 조계

시 청국인의 보호자로 나선 영국의 반대로 실패하고 만다. 결국 영국과 일본은 청국조계는 유지한 채, 삼리채조계는 ‘조계’가 아닌 ‘조계 밖 10리 이내’의 잠거지로서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양관의 효시 세창양행 사택



세창양행 사택

인천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주택은 독일계 세창양행의 사택이다. 이 건물은 1883년 상사(商社) 설립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세 명의 사원을 위한 기숙사로 응봉산 현 자유공원 위에 지어졌다. 건물의 외관은 성탑처럼 생긴 4각형 2층 누각이 높이 서 있는 황백색의 벽돌조 지상 1층 건물이었다.

세창양행은 1884년 6월 조선에 진출한 마이어(H.E.Meyer)와 발트(C.Walter)의 합작회사로 독일산 바늘, 염료, 금계랍(키니네),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했고, 조선산 쇠가죽, 쌀, 콩 등을 수출했다. 특히 값싸고 견고한 ‘세창바늘’은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해열 진통제인 금계랍은 학질 치료는 물론,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광고를 통해 회사의 인지도를 높였던 관계로 ‘세창(世昌)’이라는 상표는 조선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었다.

당시 세창양행의 사무실은 중앙동 3가에 따로 두었는데, 영업활동이 다양했다. 독일산 화학제품인 바이엘 약품, 기타 유럽산 양품 등 상품 판매 외

에도 외국은행지점(Chartered Bank of India, Austalia & China), 광산업·해운업 보험회사 대리점(Netherland Insurence Co.), 그리고 대지주로서 집세와 텃세의 수입이 막대하였다. 1910년 경 각국조계 내 거주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독일인이 외국인 전체 토지 소유 비율의 거의 50%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세창양행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과 역할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가 1884년 발발한 갑신정변에 따른 배상금을 세창양행으로부터 차용했는데, 당시 세창양행의 대여조건은 인천-상하이 간의 정기 해운권 특허였다. 이 문제는 중국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889년 독일 함부르크로부터 쾌속선 제강호(35톤)를 구입하여 강화 뱃길을 우회하여 한강으로 올라가는 인천-마포간 항로를 취하여 큰 이득을 거두기도 했다.

세창양행 사택은 1899년 6월 인천을 방문한 독일황제의 동생인 하인리히 왕자가 주제한 파티가 열리기도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패망함으로써 적산이 되어 청광각(淸光閣)으로 불리다 1922년 부립도서관으로 개관되었다. 이후 1941년 도서관이 옮겨가면서 향토관으로 활용되었고, 1946년 4월 1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부립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사용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중 소실되었는데 현재 그 자리에는 맥아더장군 동상과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우체국의 효시



인천우체국

전근대시기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던 공적인 통신망을 제외하고 또 지배층 소수를 제외하면 아마도 국민 대다수는 불소통의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표만을 붙여 지역 간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고 그 출발점은 인천과 서울이었다.

1884년(고종 21) 4월 22일 고종은 신식 우편제도인 우정총국(郵征總局)의 설립을 명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인천에 우정분국을 설치하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우정총국은 전국적으로 우편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었지만 초기 우편업무를 실시할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인천과 서울 두 곳이었다. 신식 행정제도인 우편업무를 인천과 서울 두 곳에서 먼저 실시한 것은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우편물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었다.

초대 우정총국 인천분국장은 월남 이상재(李商在)로, 그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당시 일본의 우편제도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었기에 이를 계기로 관직에 등용되었다. 그러나 이 해 12월 4일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이용해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개화파가 주도한 이 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남에 따라 우정총국은 폐지되고 말았다.

근대우편의 특징은 우표를 우편 이용의 기본 수단으로 삼고 출발했다. 당시 5문, 10문, 25문, 50문, 100문 등 다섯 종의 우표였는데 우표의 액면 금액이 당시에 통용된 화폐 단위인 ‘문(文)’으로 표시되어 있어, 뒷날 우표수집가들이 그들 우표에 ‘문위우표(文位郵票)’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우편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1895년 7월이었다. 한성에는 통신국 내에 한성우체사를 설치하고 인천에는 이운사(利運社) 내에 인천우체사를 설치하여 두 지역에서 우편 업무를 동시에 시작했다. 이후 우편사업은 전국의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1898년 전국 341개 부(府), 군(郡)에 임시우체사가 설치되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우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1900년 1월 1일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하면서 기구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10문의 태극우표도 함께 발매되었는데, 외국인들이 우표 수집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판매고가 우편물에 비해 많았다고 한다.



우전인

당시 집배원은 ‘우전인(郵傳人)’, ‘체전부’, ‘체부’, ‘우체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읽어야 하기에 언문은 물론 한문을 읽을 줄 알아야 했다. 인천과 한성의 우체사 체전부는 매일 오전 9시 같은 시각에 출발하여 중간 지역인 오류동 신장기에서 만나 우편물을 맞교환했다. 체전부의 발걸음은 매 시간 10리 걷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인천에서 오류동까지의 거리가 40리여서 당시의 체전부들은 하루 8시간 80리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들은 경인철도가

부설되기까지 걸어 다니며 우편물을 교환해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의 통신권 침해는 개항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본은 자국민에게 통신 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영사관 내에 설치한 간이우체국에서 우편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그것이 비록 불법이긴 하였지만 근대식 우편 업무를 실시하기 전이어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웠다. 그 뒤 1891년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인천우편국 경성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일본 통신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894년 국내에 있는 일본우편국의 수는 29개로 늘어나 있었다.



일본영사관내의 일본우체국

조선정부는 1895년 우체사를 설립하고 우편사업을 재개하면서 일본우편국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4월 한일통신기관협정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의 통신기관을 탈취했다. ‘우체사’의 명칭도 일본식인 ‘우편국’으로 바꾸고 금융 업무까지 취급했다. 일본의 인천우편국은 1923년 12월 10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새 청사를 준공하였다.

광복 후 1949년 8월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인천우편국’은 우

리의 ‘인천우체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우체국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 최초’의 우체국이 되었다.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최초의 우표와 인천의 세창양행

당시 조선은 우표를 제조할만한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5종의 우표 인쇄를 일본 대장성인쇄국에 의뢰했다. 다섯 종의 우표 가운데 5문과 10문 우표는 우정총국 개시일 이전에 도착했으나, 우정총국이 업무를 개시한 지 20일 만에 문을 닫았으므로 실제로 사용한 우표는 5문과 10문 두 종에 불과했다. 우정총국이 문을 닫고 난 수개월 후 일본공사관은 크고 작은 두 께짜의 우표를 보내며 우편인쇄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우정총국이 폐지되었고 국가 재정이 빈약할 때여서 우표 대금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때 총세무사 미국인 메릴(Merrill)의 중재로 쓸모없게 된 우표를 인천의 독일인 무역회사 세창양행에 팔기로 함으로써 해결했다. 덕분에 세창양행은 25문 · 50문 · 100문의 고액권 우표 130만 매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 우표들은 후일 ‘코리아 최초의 우표’라는 이름으로 포장됐고, 세트로 흘러나온 문위우표 중 5문과 10문 우표의 값이 제일 비쌌다. 이들 두 종은 이미 사용되어 잔량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세창양행의 주인 마이어(Meyer)는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해 1889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산업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했다. 그가 진짜 우표수집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두 번째 우표인 태극우표가 발행되자 그는 태극우표 4종이 붙은 봉피(封皮)를 만들어 친지와 우표수집가에게 뿌리기도 했다. 그들 봉피가 한국 우표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 호텔 130년 역사의 시작 대불호텔



대불호텔

인천의 개항 후 인천항으로 들어 온 외국인들은 서울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하여 인천에서 하루를 묵어야만 했고, 이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 필요했다. 대불호텔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문을 열었다.

일본식 2층 목조 건물에서 문을 연 이 호텔의 모습은 미국의 유명한 잡지 ‘하퍼즈 위클리’에 상세하게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다. 호텔 간판에는 “대불호텔, 신선한 빵과 고기”라고 적혀 있다. 국내 처음으로 커피를 팔았으며, 인천 지역의 조선인, 외국인들이 커피를 일찍이 맛보았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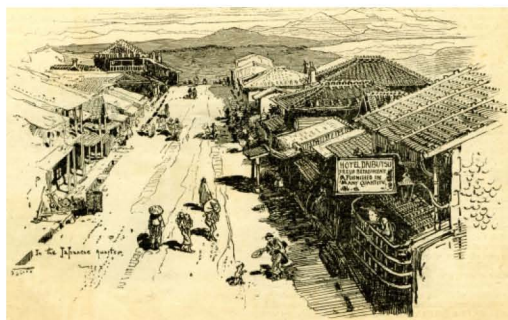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 아펜젤러를 태운 정기 여객선이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월미도 앞 해상에 정박하자, 그 배에 댄 삼판선에 옮겨 타 부두에 내렸다. 후일 아펜젤러 목사는 비망록에서 “끝없이 지껄이고 고함치는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들 한복판에서 짐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대불호텔’로 향했다. 놀랍게도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손님을 모시고 있었다. 서양 음식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입에도 맞았다.”고 전하고 있다.



대불호텔 자리의 중화루

이 호텔은 선박을 상대

로 식료품 등 물자 공급업자로 돈을 번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가 세웠다. 일본 이름은 ‘다이부츠(大佛, Daibutsu)호텔’이었다. 호리의 별명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전하는데 호리는 몸이 뚱뚱하여 ‘大佛’이라 불렸다고 한다. 대불호텔은 영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상 3층의 벽돌 건물로 새로 건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 서양식 호텔로 설계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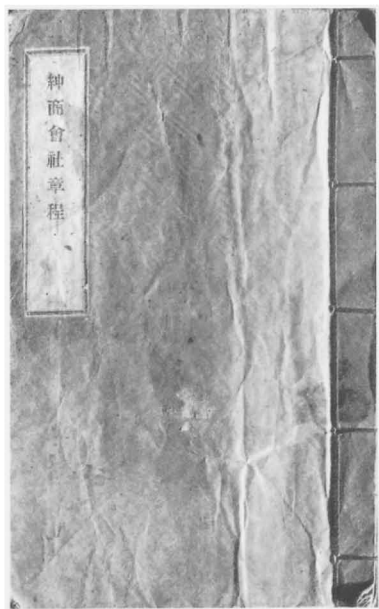
초기 대불호텔

1933년에 출판된 『인천 부사』에는 1887년 착공, 1888년 준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간 1902년 서울에 세워진 정동의 손탁호텔(Sontag Hotel)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로 알려져 있으나 실

제로는 인천에 세워진 대불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던 것이다.

당시 대불호텔의 길 건너편에는 중국인 이태(怡泰)가 외국인 상대의 여관으로 1층에 잡화상점을 하면서 2층에 스투워드호텔(Steward Hotel)을 개업하였다. 대불호텔은 물론 일반 숙박업계는 초기 호황을 누렸으나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자 사양길로 접어들어 대불호텔도 사무실 등의 임대건물로 사용되기도 했다. 경인선이 개통되자 주요 고객인 외국인들이 곧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918년 호리의 아들이 중국인에게 매각하게 되는데, 다음 해 1919년 호텔은 문을 닫고 이후 중화루(中華樓)란 이름의 중국 음식점으로 재탄생 하였다. 중화루는 인근의 공화춘(共和春), 동흥루(同興樓)와 함께 인천 3대 중국 요릿집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1978년 7월 초순 철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의 효시 신상협회



신상회사 장정

인천항신상협회(仁川港紳商協會)는 외국 상권에 대항하기 위해 구성된 인천객주회를 모체로 한 단체이다.

개항 후 인천에 각국 상인들이 모여 들었다. 1885년 일본은 각국 상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암묵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천항상법회의소(仁川港商法會議所)를 조직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외국 상권에 대항하기 위한 상업 단체가 인천객주회(仁川客主會)이다. 객주회는 1883년 원산에서 이미 결성된 바 있는 단체이다.

동업조합 수준의 인천객주회는 1897년 1월 조합의 정신을 인천항신상

협회(仁川港紳商協會)에 승계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객주회가 해산한 것은 아니다. 객주회의 임원 중에서 신상협회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 인원은 여전히 객주회에서 활동을 했다.

신상협회는 서상목·서상빈·박명규 등이 발기하여 인천의 객주업체와 사회유지 50여명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신상협회는 규정에 '신상(紳商)과 민상(民商)이 회의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단순한 상인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관료출신과 사회명사 등 진신(縉紳)도 이에 가담하였다. 이 협회 발기를 주도한 서상집은 인천감리를 역임한 거상이었고, 서상빈은 성균진사로서 제령학교(濟寧學校)를 설립한 객주업자이다.

신상협회는 1899년(광무 3)에 명칭을 '신상회사'로 바뀌었다. 이에 맞서 일본상인들은 1908년(융희 2)에 인천곡물협회를 설립하여 미두취입소와 합세하여 신상협회에 대항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신

상협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나, 집결된 민족상인의 저력을 당할 수 없었고, 일본상인들이 쌀과 콩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객주들의 손을 거치야만 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신상협회는 미두취인소나 곡물협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외국 상인들 특히 일본상인들의 상권침탈에 대항하여 민족상인의 상권을 옹호하고, 민족상인의 사업자세를 혁신코자 촉구하였으며, 학교를 설립하거나 지방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등으로 당시 민족주의 운동의 주요한 측면인 육영사업(育英事業)을 지원하였다.

인천항신상협회의 회원들이 1905년 7월 2일 설립한 근대적 성격의 상업회의소가 바로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仁川朝鮮人商業會議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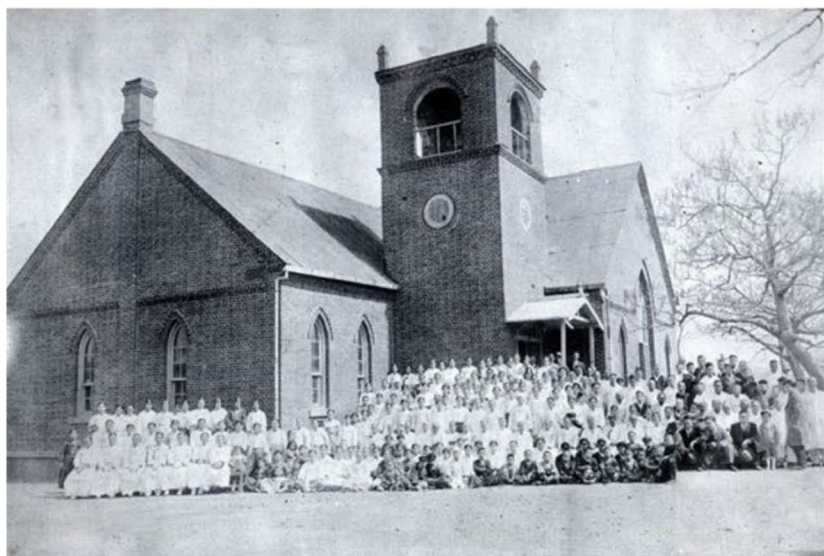
신상협회 설립 주역 서상빈

서상빈(徐相彬: 1859~1928)은 인천 태생으로 성균관 진사(進士)에 올랐으며, 인천 개항 후에는 부내면장(府內面長)을 지내기도 했다. 1889년 개항 초기에 인천감리(監理)를 지낸 서상집(徐相濬)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상인단체이자 상공회의소의 전신인 인천신상협회(仁川紳商協會)를 설립했고, 신상회사의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였다. 그는 개항과 함께 침투해 들어 온 외국 상인들의 발호 속에서 민족상인을 보호 육성하고 애국운동을 고취하려는 일념으로 생활했다.

1899년 우리나라 사람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학문과 영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녕학교(濟寧學校)를 설립하여 후진 육성에 전념했다.

서상빈은 개항시대의 인물 가운데 최초로 육영사업과 민간경제 보호 육성을 실천한 선구적인 인천의 인물로 기억된다.

감리교의 출발 내리교회



1901년 준공된 내리교회

인천에서 한국 최초의 감리교 예배를 드린 것은 인천이 서양 문물의 출입구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제물포를 통하여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아펜젤러는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고, 얼마 후 한국 최초로 풍금을 들여와 찬송하며 예배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내리교회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84년 여름, 조선을 방문한 맥클레이(Maclay, R.S.)가 고종으로부터 선교 윤허를 받았다. 맥클레이는 일본에 체류 당시 친분을 맺었던 김옥균(金玉均), 미국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Foote, L.H.)와 동반하여 고종에게 선교의 뜻을 전하였다. 고종은 병원과 학교를 먼저 개설하고 점차 선교할 것을 권하며 편의를 돌보아주겠다고 하였다.

1884년 12월 4일 발발한 갑신정변(甲申政變) 당시, 왕실의 외척 민영익(閔泳翊)이 개화당의 습격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 때 선교사 알렌(Allen, H.N.)이 그를 치료하였다. 이 일로 서양인과 기독교에 대한 왕실의 신임이

켜졌다. 조선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 파송을 염두에 두고 있던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는 각각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보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를 통하여 조선에 첫 발을 디뎠다. 언더우드가 서울에 입성하여 제중원 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반면, 아펜젤러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인천에 머물다 1885년 4월 13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 6월 20일, 아펜젤러가 다시 한국을 찾아 인천에 머무르다가 6월 28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최초의 감리교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7월 7일 일본에서 주문한 풍금이 증기선을 통하여 도착하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를 봉헌하였다. 아펜젤러의 부인 엘라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를 두고 “한국 상공에 올려 퍼진 최초의 감리교 찬송”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국의 모든 땅이 어서 빨리 이 찬송을 들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 때 예배를 드렸던 초가는 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 근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1889년 서울에 선교의 터를 구축한 감리교 선교사들은 곧 인천 선교에 착수하여 청국 조계 내에 초가집 2채를 구입하여 감리교 서점을 열게 하였다.



내리교회

선교사 올링거(Franklin Ohlinger)와 권서인, 노병일이 서점을 경영하며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하는 등의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청국 조계가 조선인 거류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890년 노병일이 각 국조계와 조선인 거류지의 경계지점인 내동 언덕에 6칸의 회당을 건립하여 선

교의 근거지를 옮기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십사리 선교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1년 6월 아펜젤러는 인천 지역의 선교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배재학당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서울에 머물렀는데, 주말마다 말을 타고 인천에 와서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 말을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동하는 데 7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주말마다 말을 타고 인천에 와서 전도하던 그는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891년 11월 내리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화이트 채플(White Chapel)이라 명명하였다. 아펜젤러는 1891년 11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선교잡지에서 이 교회의 규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35.6㎡(10.8평) 규모의 예배당은 바닥에 마루를 깔고 외벽에 석회를 발랐으며, 지붕은 일본식 기와로 치장하였다.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작은 방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교단만 둔 단순한 구조로 1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규모였다. 비록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으나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새롭게 건축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아펜젤러는 이 예배당을 지은 후에도 여전히 주말마다 말을 타고 인천에 와서 예배를 인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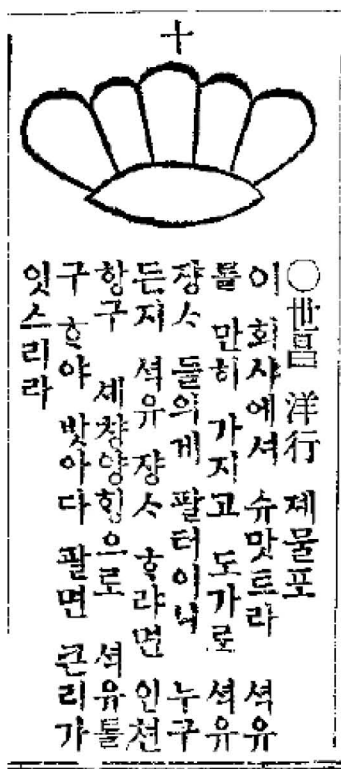
한편 교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예배당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00년 6월 24일 예배당을 헐고, 내동에 웨슬리 예배당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교인들은 임시로 우각리 예즈베리 예배당을 사용하였다가 1901년 웨슬리 예배당 완공과 함께 내동으로 이전하였다. 1955년 웨슬리 예배당이 멸실되어 1958년 다시 예배당을 건립하였으나 1964년 화재로 전소되었다. 또다시 새로운 예배당을 건립하여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198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완공하였다. 지난 2012년에는 옛 웨슬리 예배당을 복원하였다.

자생교회의 시작 백령도 중화동교회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기 전, 해상의 요충지인 백령도에 정착하여 선교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865년 9월 8일, 토마스(Thomas, R.J.) 선교사가 백령도 서북단에 상륙하여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이듬해 8월 11일 토마스가 다시 백령도를 방문하였다. 이후 1898년 10월 9일, 개화파 정치인 허득(許得)과 서경조 장로에 의하여 남한 최초의 자생교회로 중화동의 한문 서당에서 중화동교회가 설립되었다.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초가 6칸 규모의 교회가 세워졌다. 선교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남한 최초의 교회였다는 데 기독교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00년 9월에는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가 중화동교회에 와서 허득을 비롯한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근대 상업광고의 출발 세창양행 광고



○世昌洋行 什貨物
 此處有各色玻璃
 磁器 洋布 洋紙
 各色呢絨 綢緞
 各色洋貨 應有
 盡有 價廉物美
 歡迎各界 垂青
 光顧 此佈

세창양행 최초의 그림광고, 석유광고

세창양행은 1884년 6월 조선에 진출한 마이어(H.E. Meyer)와 발트(C. Walter)의 합작회사로 독일산 바늘, 염료, 금계랍(키니네),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했고, 조선산 쇠가죽, 쌀, 콩 등을 수출했다. 특히 값고 견고한 ‘세창바늘’은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해열 진통제인 금계랍은 학질 치료는 물론,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광고를 통해 회사의 인지도를 높였던 관계로 ‘세창(世昌)’이라는 상표는 조선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근대적 광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강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하던 시기의 산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사회는 아직 광고를 통해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거나 서비스업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를 못했고, 그럴만

한 자본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상업광고는 세창양행이 1886년 2월 22일 《한성주보》 제4호에 실은 ‘덕상 세창양행 고백(德商世昌洋行告白)’에서 출발한다. “쇠가죽, 말가죽, 개가죽 등을 사들이고 자명종 시계, 서양바늘, 유리 등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팔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광고라는 이름 대신 ‘고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이나 노인이 온다 해도 속이지 않고 공정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말 그대로 고백인 셈이다.

세창양행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주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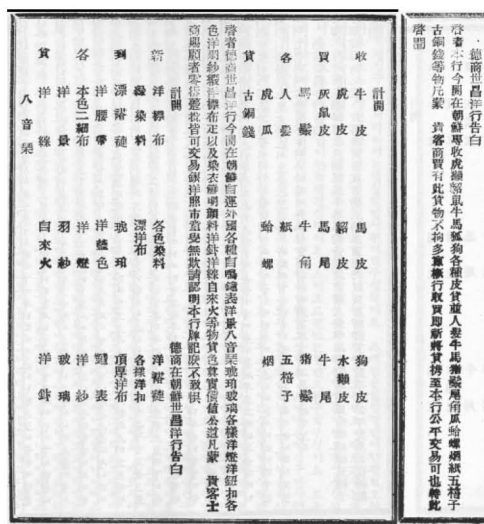


세창 양행 물감

품목은 제물포에서 군산, 목포, 평양 등으로 운행하는 화물선을 비롯하여 바늘, 석유, 자전거, 금계랍 등이었다. 특히 금계랍 광고는 독립신문의 발간이 중단될 때

까지 계속되었는데, 금계랍은 원래 말라리아를 낮게 하는 의약품이었으나 당시에는 만병 통치약으로 사용되었다.

세창양행은 점차 외국 상인들과 경쟁이 치열해지자 1897년 4월경부터 광고에 태극마크를 사용해 한국인 소비자들에게 친밀히 접근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1897년 4월 3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화륜선 현익호의 광고를 보면 태극기와 세창양행기(M자가 새겨짐)가 서로 교차된 일러스 트레이션이 보인다.



최초의 광고(고백)

근현대사의 타임캡슐 각국공원



각국공원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은 중구와 동구를 남북으로 양분하면서 바다로 뻗어내린 구릉인 응봉산(鷹峰山)에 위치하고 있다. 해

발고도 69m의 응봉산은 그 모양이 ‘매[鷹]의 부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졌지만, 산(山)을 뜻하는 순 우리말 ‘뫼’의 발음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을 뜻하는 우리말 ‘매’를 새 ‘매’로 잘못 알아 ‘응(鷹)’으로 옳기고, 여기에 봉 우리의 ‘봉’자가 붙어 이뤄진 것이다.

응봉산 일대를 각국공원, 만국공원이라 부르게 된 것은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을 조성하면서였다.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462,000㎡(14만 평)의 각국공동조계가 설정되었는데(1884), 그 위치는 일본조계와 청국조계를 제외한 응봉산 일대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당시 이곳에 여러 개의 구역을 나눠 정리하면서 러시아 측량기사 사바찐의 설계로 1888년 최초로 근대 공원을 조성했다. 이 ‘Public Garden’이 각국인 공동의 휴식처로 기능하면서 우리에게는 넓은 범주의 응봉산이라는 이름보다 각국공원, 만국공원이라는 축소된 명칭으로 더 익숙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현 인천여상자리에 있었던 일본인 공원인 동공원과 대비하여 서공원이라 불렀으며, 광복이 되면서 다시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6·25전쟁을 겪고 난 1957년 개천절을 맞아 맥아더 동상의 제막식을 가지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유공원이 가진 다양한 근대문화의 잔상은 당시에 건립된 건물과 인물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의 맥아더 장군 동상 부근에 지어졌던 1883년 인천항에 진출한 세창양행 사원들의 사택에서는 한때 독일황제의 동생인 하인리히 왕자가 주재한 파티가 열렸으며(1899.6), 응봉산 중턱에 마련된 각국인들의 사교클럽 제물포구락부에서는 영국영사 허버트 고페의 개회 연설과 미국공사 알렌 부인의 개회선언으로 건물신축 개관식이 거행되었다(1901.6). 그 자리에는 해관 통역관으로 와 있던 중국인 오례당과 플라멩고 춤을 선보였던 스페인 부인 아밀리아, 건물을 설계했던 러시아인 사바찐과 하와이 이민을 총괄했던 데슬러, 독일계 세창양행의 직원 뤼일르스 등 인천항에 거주했던 영국, 독일, 미국, 러시아 등 각국의 외국인들이 참석했다.

1982년 세워진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자리에 있었던 영국인 사업가 존 스톤의 여름별장(1905)은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각종 가구와 시설들을 중국, 독일, 영국으로부터 들여와 설치했는데, 그야말로 이국적인 모습에 인천항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1930년대 인천각이라는 고급여관 겸 요정으로 유명했다.



각국공원

공원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독일상인 파울바우만의 주택은 사이토(齋藤實)총독의 별장으로 더 알려진 곳이다.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 소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등장했는데 자신의 별장 바로 아래에 있던 청관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기도 했다. 두 차레나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내무대신이 되었지만 결국 급진파 군부 청년장교들에게 살해되었다.

응봉산 마루에 있던 인천관측소는 원래 중구청 뒷길에 있던 수진여관에 임시 기상사무실을 두었다가 조선 황실의 땅 3만평의 부지로 신축 이전한

것이다. 초기 소장을 지냈던 와다(和田雄治)는 1909년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을 실측조사하기도 했다. 북동쪽 넓은 분지에 조성된 옷터굴 운동장은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울분을 운동으로 달랬던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특히, 인천의 기차통학생들이 주축이 된 한용단(漢勇團)과 미두취인소 미신(米信)팀과의 야구경기는 한·일대항전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만국공원의 자취는 1919년 3·1운동과 연관되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기독교신자 300여명이 강제해산 당했던 사실(1919.3.9)과, 한성임시정부의 ‘13도 대표자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홍진(洪震), 이규갑(李奎甲) 등이 중심이 된 한성임시정부는 그 수립을 위한 회의를 만국공원에서 개최했는데, 이에 따라 천도교 대표 안상덕(安商德), 기독교 대표 박용熙(朴用熙), 장봉(張鵬), 유교 대표 김규, 불교 대표 이종욱(李鍾郁) 등 20명에 달하는 각계의 대표들이 4월 23일 만국공원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정했다. 한성임시정부의 수립과 관련해 일종의 ‘의회’의 역할을 한 중요한 회의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시 임시정부의 통합에 있어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각국공원은 광복 후 만국공원으로 불렸는데 당시 오세창의 발의로 해방기념탑 건립을 준비하기도 하였고(1945.10), 6·25전쟁 후 충훈탑도 제막하였으며(1953.6), 인천출신 전몰장병의 합동위령제를 개최(1953.11) 하였던 역사적 공간이다. 지금도 남아 있는 학도의용군기념비, 철도 및 세관용지표지석들은 이러한 시대적 편린을 보여주고 있다.

제물포 개항(1883)과 청일(1894)·러일전쟁(1904), 그리고 인천상륙작전(1950)에 이르기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 사건과 그 부침(浮沈)을 함께 한 각국공원은 최초의 근대 공원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근현대사의 타임캡슐이라 할 것이다.

천주교 답동성당



1937년 축성된 답동성당

1886년 한국과 프랑스 간 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조선에서의 선교가 가능해지자 파리의방전교회(外邦傳敎會)에서 조선에 신부를 파견하였다. 블랑(Blanc, J.M.) 주교는 코스트(COSTE, E.J.G.) 신부(1842~1896)를 서울의 관문 제물포에 파견하여 성당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1889년 7월 1일 페낭신학교에 있던 빌렘(Wilhelm, J.) 신부가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답동성당(당시 제물포성당)을 설립하고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비록 임시로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1주일 후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처럼 1889년 답동성당을 설립하였으나 성당을 건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빌렘 신부가 답동 언덕 일대의 땅 3,212평을 기증 받아 1890년 정초식을 거행하였으나 곧 신학교로 떠나게 되었다. 제2대 신부로 부임한 르비엘(Leviel, E) 신부가 성당 건립 비용을 마련하여 경리부 건물 1동을 건립하며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본격적인 성당의 건립은 제3대 신부로 부임한 마라발(Maraval, J) 신부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1894년 코스트 신부와 샤르즈뵈프(Chargebeouf) 신부가 성당의 기초 설계도를 그리고 1895년 8월 공사를 착수하여 1897년 7월

완공하였다. 당시 종탑은 교회의 상징물이었으나 종이 설치된 것은 성당이 완공된 3년 뒤인 1900년의 일이었다.

신도가 급격히 증가하자 제4대 신부인 드뇌(Deneux, E) 신부는 성당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2개월 만인 1937년 6월 완공하였다. 그 후에도 몇 번의 개축공사가 있었으나 비교적 옛 모습이 보존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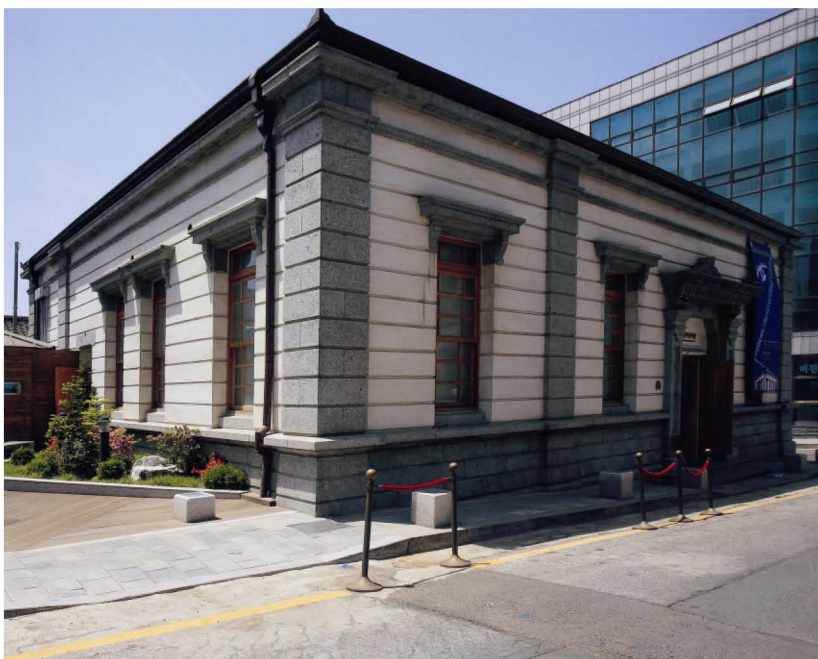


답동성당 전경

쎄뿔수녀원(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1894년 답동성당 안에 쎄뿔수녀원이 설립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유행 하던 장티푸스가 인천에까지 전염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였다. 답동성당 제3대 신부였던 마라발 신부는 지역 사회에 의료기구와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쎄뿔수녀회에 수녀 파견을 요청하여 답동성당에 수녀가 파견되었다. 쎄뿔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6년 만에 인천에 첫 분원을 설립한 것이다. 이들은 무료 진료와 보육사업을 매개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인천에 최초의 해외지점을 둔 일본제18은행



일본제18은행지점(현 근대건축전시관)

우리나라에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이 설치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한 달 후인 1876년 3월 일본 제1은행 은행장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가 부산에 사설 은행을 설립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1878년 3월 이 은행은 일본 제1국립은행에 인계되어 제1국립은행 부산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인천 개항 후 1883년 인천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본은 제1은행과 더불어 인천지역에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을 잇달아 개설하였다. 이들은 주로 인천지역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의 상권을 지원하고 산업자본을 이용하여 토지매입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뒷받침하였다.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제18은행은 인천과의 무역량이 증대하면서 1890년 설치된 것으로 해외에 세운 최초의 지점이었다. 나가사키의 상인들

은 상해에서 영국 면직물을 수입하여 그것을 한국시장에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영위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들의 업무가 번창하여 감에 따라 대한 수출무역의 중심지였던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1936년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에 그 업무를 인계하였으며, 1954년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으로 발족한 한국흥업은행지점으로도 사용되었다. 출입구의 석주는 정교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지붕은 목조 트러스 위에 일식기와로 모임지붕 형태를 하고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인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2006년부터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정(중앙동)은행 거리

랜디스가 건립한 성누가병원



성누가 병원

1890년 9월 29일, 영국 해군 군종사제였던 코프(Corfe, C.J.) 주교가 랜디스(Landis, E.B.) 등 선교사 6명과 함께 제물포에 도착하여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코프 주교는 지금

의 송학동 3가에 성공회성당을 세우고 포교에 힘썼고, 1890년 10월 10일 미국인 의사 랜디스는 성공회성당 밑에 집을 구해 임시 진료소로 사용하며 의료구호활동을 펼쳤다.

1891년 10월 16일, 랜디스는 지금의 내동교회 자리에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성누가 병원(St. Luke's Hospital)을 설립하였다. 10월 16일이 성누가를 기념하는 침례일이었기에 병원 이름을 성누가 병원이라 하였는데 랜디스는 “성누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에는 별 의미가 없다”며 ‘선행을 기뻐하는 병원(The Hospital of Joy in Good Deeds)’이란 의미의 ‘낙선시의원(樂善施醫院)’이라고 직접 작명하였다. 하지만 당시 제물포 주민들은 이 병원을 성누가 병원이나 낙선시의원이 아닌 ‘약대인(藥大人)병원’이라고 불렀다. 약대인은 랜디스를 칭송하여 부르던 말로, 그의 의료활동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얼마나 신봉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했는지 짐작된다. 병원 일대의 야산 또한 그의 이름을 따서 ‘약대인산’, 혹은 ‘약대이산’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랜디스가 직접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그는 1892년에 3,594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1894년에 4,464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자신의 병원을 찾아오는 외래 환자는 물론 병원을 찾아오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방문 치료를 병행하였다.

그는 거둬지는 과로에 장티푸스까지 발병하여 1898년 4월 16일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청학동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고,



랜디스와 성공회 신도



랜디스와 간호사

1990년 대한성공회에서 그의 공적비를 세웠다.

한편 성 누가 병원은 랜디스 사망 후 잠시 폐쇄되었다가 임시로 러시아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 1904년 영국인 웨이어 박사가 의료활동을 하여 명맥을 이었으나 1916년 그가 인천을 떠나며 문을 닫았다. 6·25전쟁 이후 성공회에서는 송학동에 위치한 교회 부지를 매각하고 1956년 6월 23일 성 누가 병원 부지에 새 성당을 건립하고 성 미가엘 성당(내동교회)으로 명명하였다.

약대인 랜디스

랜디스는 1865년 12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캐스터(Lancaster)에서 태어났다. 1885년 9월 필라델피아대학 의학부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미국성공회 성클레멘트교회의 관할 사제인 필드(Field, C.N.)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았다. 그는 1888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랭캐스터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1880년대 이래 북미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교지원운동이 활발하였는데 그도 이에 영향을 받아 성공회 부속기관인 제성요양소(All Saint Convalescent Home)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의료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코프 주교와 합류하여 요코하마, 부산 등을 들렀다가 1890년 9월 29일 제물포로 들어왔다.

신식 화폐를 만든 인천 전환국



전환국

1860년대에 이르러 조선왕조는 국내외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원군 집권기(1863~1873)는 국가 제반 정책의 성향에 있어서는 과단성 있고 혁신적이었으나 여기에는 개혁에 필요한 엄청난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했다. 개항기에 주로 유통되었던 화폐는 상평통보(常平通寶)였는데, 대원군 집권 3년만인 1866년(고종 3) 11월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를 지닌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여 재정에 충당코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화폐제도의 문란을 초래하여 주조사업에 착수한지 5개월만에 중단되고, 1868년 10월에는 유통마저 금지되었다.

보통의 엽전, 곧 상평통보의 1전(錢)보다 5배의 액면 가치를 지니는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여 당면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주장한 사람은 밀렌도 르프였다. 그는 임오군란 이후 청에서 재정·외교고문으로 파견되어온 인물로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당오전 발행을 강행했다. 한정된 원료를 가지고 보다 많은 유통 가치를 조성하여 궁핍한 국가재정에 충당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조 기계나 기술 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근대적인 화폐를 제조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당오전의 폐단 뿐 아니라 상평통보도 중량이 무거워 사용에 불편하였기 때문에 신식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전환국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식 조폐 기계를 설치하고 1888년 2월 선혜청 별칭 자리에 전환국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경성전환국이라 이름하면서부터 신식 화폐를 발행하였다. 이 때 주조된 신식 화폐는 개국 495년의 연호로 발행된 1환 은화와 10문, 5문의 적동화였으나 거의 유통되지 못하였고 한갓 시험적 단계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전환국의 화폐주조사업은 중단되었다.

조선정부는 경성전환국의 근대화폐주조발행사업이 중도에 좌절되자 1891년 당시 전환국 방판 안경수를 상평통보 발행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조선정부는 마쓰다(増田信之)의 권유에 따라서 건의한 근대화폐의 주조유통문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정부 당국은 1891년 11월 전환국으로 하여금 1888년에 주조하여 잠시 사용하다 중지한 바 있는 은화·동화 등 근대화폐를 다시 주조하게 하고, 교환국을 따로 설치하여 새로 주조될 근대화폐와 상평통보·당오전과 구애됨이 없이 통용케하는 절목을 작성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조선정부는 이상과 같은 근대화폐의 주조발행계획에 따라 일본국 정부와 일본인 마쓰다 등의 자본 및 기술적 협조를 얻어 전환국을 서울로부터 인천으로 옮겨서 짓고 조폐기계 시설을 확대 증설하는 한편 이완용을 신설 교환서 총판(總辦)으로 일본인을 동회판(同會辦)에 임명하였다. 뒤이어 1892년 11월에는 행호조판서 박정양(朴定陽)을 전환국관리겸교환서관리(典圖局管理兼交換署管理),



전환국 터

참의내무부사 성기운(成岐運)을 전환국검교환서총판, 안경수를 방판(幫判)에 임명하는 등 근대화폐의 주조발행업무를 관장할 부서의 관리진용을 개편하였다.

당시는 경인선이 개통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교통이 불편하다는 표면적 이유도 있었지만, 인천은 서울보다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관여하에 건립되고 운용될 전환국의 위치를 인천에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인천전환국은 1892년 5월 착공되어 11월에 준공되고 안경수가 전환국 방판으로 인천에 파견하였으며 12월에 시운전을 하였다. 건물은 3동 요철형으로 배치되어 중앙에 사무실 겸 화폐조사실·검인실이 있었고, 동쪽에 기계실과 기관실이, 서쪽에는 조각과 창고 및 감찰실이 있었다. 인천전환국에는 압인기 9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2대는 경성전환국에서 사용하던 것이며, 6대는 1892년 오사카조폐국에서 도입했다. 아무리 신식기계가 비치됐어도 작업 한도가 있어 겨우 은전과 동전을 압인할 뿐 금속을 용해 또는 압연하는 장치가 없었다.

인천전환국에서는 1892년 11월 앞서 정부당국이 지시했던 바에 따라 일본인의 적극 참여로 근대화폐의 주조유통을 내용으로 하는 절목, 즉 신식근대화폐조례를 작성해서 국왕에게 바치고 뒤이어 각종 근대화폐의 주조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제정한 신식화폐조례의 내용은 대체로 신식화폐 주조유통의 배경, 신식전화분량표준, 신식화폐통용제한법 및 벌칙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인천전환국에서는 이상의 신식화폐조례에 따라 1892년 5냥(兩) 은화, 1냥 은화, 2전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를 주조하였다. 그 때 제조한 화폐는 1888년 경성전환국에서 일본 화폐를 본따서 주조했던 것과 비슷하였으나, 앞면 중앙의 태극장(太極章)이 왕실의 휘장인 이화장(梨花章)으로 바뀌었고, 양쪽 모두 오얏나무 가지였던 것을 우측은 오얏나무 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좌측은 무궁화 가지로 도안이 바뀌었다. 뒷면 중앙에는 용을 도안했고 둘레에 연기(年紀)와 국호(國號)를 새겨 넣었는데, 인천전환국에서 최초로 제조된 화폐에는 대조선개국오백일년(大朝鮮開國五百一

年)이라는 국호와 연기가 표기됐다.

그러나 조선에 주재관으로 와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遠世凱)는 “청나라가 대국이요, 조선은 소국이니 대조선이라는 것은 국격상 체모에 불합하다”고 간섭해 ‘대(大)’자의 제거를 요청해 개국 502년, 503년, 504년에 제조된 화폐에는 ‘대’자가 제거되어 발행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한 후인 1894~5년(개국 503·504)에 주조된 5푼 적동화와 2전5푼 백동화에는 ‘대조선’이라는 국호가 다시 사용됐다.

반면 인천전환국은 본위은화(本位銀貨)는 발행하지 않고 백동화만 남발하여 유통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백동화를 주조할 경우 그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이익이 컸기 때문이었다. 조선정부는 격증하는 화폐수량에 대처하기 위해 대일차관으로 인천전환국의 확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1898년(광무 2) 8월 건축 및 기계증설 등 인천전환국의 확장공사가 한창일 무렵 고종의 명에 의해 전환국은 용산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인천과 노량진 간의 경인철도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기는 하나, 당시 러시아 세력이 조정에 침투되는 반면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동(錢洞)은 구한말 다소면 선창리에 속한 야트막한 산지(山地)였다. 1892년 이곳에는 현대식 화폐를 만드는 기관, 전환국이 설치돼 1900년 서울 용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운영됐다. 광복 뒤 전동(典洞)이 전동(錢洞)으로 바뀐 것은 ‘전환국이 돈(錢)을 만드는 기관’이었다는 점을 유추해 만들었거나, 전환국의 ‘전(典)’자를 ‘전(錢)’자로 잘못 알아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스팀 동력 정미기 담손이 방앗간



인천항에 즐비한 쌀과 창고 건물

1892년 타운센드(W.D.Townsend)는 일본인 오쿠다 사다지로(奥田直次郎)와 합작으로 한국 최초로 근대식 스팀 동력기를 도입한 정미소를 인천에 설립하였다. 타운센드는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1885년 인천의 순신창(順信昌) 상회를 인수한 뒤 서상집(徐相集)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미곡 무역에 관여하였다. 기존에 왕실 사치품과 전기 시설, 의약품, 식료품 등 넓은 분야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무기 구입을 중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시세의 변동에 따라 미곡 무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1892년 정미소까지 직접 운영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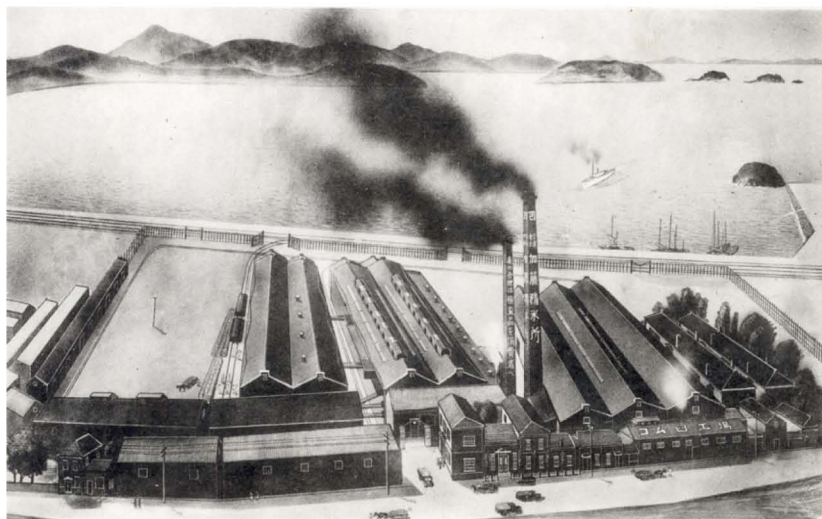
사람들은 타운센드를 우리식으로 ‘담손이’라고 발음하였기에 타운센드 상회에서 운영하는 정미소 역시 ‘담손이 방앗간’이라고 불렸다. 담손이 방앗간 설립 이전에 1889년 신토오 시카노스케(進藤鹿之助)가 중앙동 4가에 인천 최초의 기계식 정미소인 인천정미소를 설립한 바 있으나 설비와 품질에 있어서는 타운센드 상회에서 운영하던 정미소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정미소라 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우리 국토의 미곡을 수탈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다. 인천은

국내 최대의 미국 집산지이면서 수출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인천에 정미소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근대식 정미소가 생겨나기 이전 초기 수출 단계에서는 벼를 가마 채로 배에 실어 보냈으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 경제적이지 못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전통적인 정미(精米) 방법인 타작을 통해서는 모래와 돌이 섞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벼의 겉겨를 벗겨 내기 위하여 매통에 가는, 이른바 매통잇간이 생겨나 현미 상태로 수출하게 되었다. 백미 도정이 가능한 정미소가 생겨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담손이 방앗간에서는 1889년에 미국에서 발명된 최신식 스팀 동력 정미기를 4대 도입하였다. 60마력의 힘을 가진 이 정미기를 12시간 작동하기 위해서는 석탄 1.5톤이 필요하였고, 하루에 정미기 한대당 쌀 16가마를 도정할 수 있어 4대의 정미기로 64가마를 도정하였다고 한다. 당시 담손이 방앗간의 도정량은 획기적이었다. 이 정미기를 통하면 모래와 돌이 섞이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의 표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나는 최상급의 백미로 도정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담손이 방앗간에서 도정된 쌀이 마치 수정처럼 뽀얗다



가토오(加藤) 정미소 인천지점

고 해서 ‘수정미’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정작 도정된 쌀은 일본으로 수출되어 조선 사람들은 맛보기조차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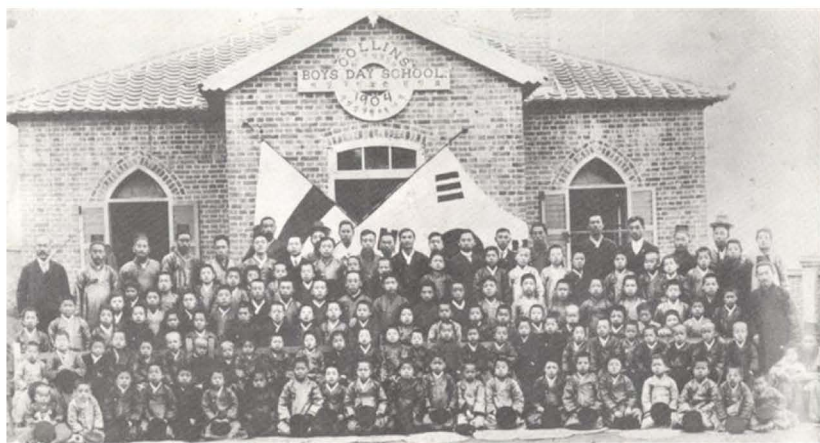
개항 이후 미국의 집산지이자 최대 수출항으로 기능하였던 인천항의 특성상 자연스레 발달한 정미업, 타운센드는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식 스팀 동력 정미기를 한국 최초로 도입하여 정미업의 발달을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인천에 대형 정미소를 비롯하여 소형 정미소가 여러 곳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등 인천 공업에서 정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동양 제1의 인천지역 정미소

추삼무가 1929년 편찬한 「속편 인천항」(『경성과 인천』)에는 1920년대 후반 ‘인천의 정미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에서 최근 1년 간 생산된 공업 총액은 약 5천만 엔에 달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천은 미국 집산지로 1년 집산 총량이 2백만 섬을 돌파했다. 또한 정기 시장이 있는 관계로 정미공업 발달은 눈부시다. 즉, 정미총량은 생산공업 총액의 약 7할을 점하며, 그 규모와 품질, 수량에 있어서도 조선에서 제 1위이며, 그 아래에 대소 공장이 34개, 마력 수 2,213마력, 하루 생산 능력 7천석으로, 1년에 1백여 만섬을 정도(精搗) 이출하고 있다. 대개 인천항의 정미업은 모든 점에서 동양 제1이라는 이름이 욱되지 않는다.

초등교육의 기원 영화학당



영화학당(1904)

1892년 영화학당의 설립은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의 기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영화학당보다 먼저 설립된 서울의 배재학당(培材學堂), 경신학당(敬新學堂), 이화학당(梨花學堂) 등이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영화학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영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內里教會)에 파견된 존스(Jones, G.H.) 목사와 그의 부인 벵겔(Bengel, M.J.)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존스 목사는 배재학당의 교사를 겸하다가 1892년 내리교회에 부임하였고, 벵겔은 이화학당에서 오르간과 성악을 가르치다가 같은 해 내리교회에 파견되었다. 1892년 4월 30일 벵겔이 영화여학당(제물포 여자매일학교, Chemulpo Girls Day School)을 설립한 데 이어, 1893년 3월 12일 존스 목사가 영화남학당(제물포 남자매일학교, Chemulpo Boys Day School)을 각각 설립하여 서구식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영화학당 설립 초기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항 초기 외래 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배타적인 인식과 유언비어로 인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당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를 잘라

서 주정(알코올)병에 넣어 통조림을 해 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시루에 넣고 찌서 먹기도 한다더라”하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때문에 어느 부모도 자녀를 선교사에게 보내어 공부하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영화유치원(1936)

이후 교세가 확장되며 자연스레 학당의 학생 수도 늘어나 내리교회와 우각리 에즈베리 목사관 두 곳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902년 에즈베리 목사관이 화재로 소실되

자 학당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미국 네브라스카주 목재 기업가 콜린스(Collins)가 교사 건축 기금으로 1,000달러를 기부하였다. 1903년 10월 12일 영화여학당이 경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이듬해인 1904년 영화남학당도 교사를 신축하였다.

영화여학당은 1910년 강화와 부평 지역의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립하였으며, 1911년 창영동 우각리로 이전하며 벽돌식 교사를 신축하였다. 이어 1913년에는 강당까지 건립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영화남학당에서는 학생들에게 단발을 하고 염색한 교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기존의 서당 교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기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내리교회 신자 박삼홍이 미국으로부터 나팔과 북 등의 군악기와 소총을 구입하여 영화남학당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영화학당은 1912년 사립영화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17년에는 인천 최초로 유치원을 부설하였으며, 1926년 화도(花島)에 부속 여학교를 설립

한 것에 이어 1930년 유치원을 부설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탄압이 점차 심해졌고 관립학교가 발전함에 따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영화여자중학교가 설립되고 1964년 학교법인 영화학원으로 인가되었다. 1970년 영화국민학교(예전 영화남학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교되고 셋별국민학교(예전 영화여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었다. 1973년 셋별국민학교는 영화국민학교로, 1996년 영화국민학교는 영화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른다. 영화여자중학교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86년 2월 폐교되었다. 1966년 설립된 영화여자실업고등학교는 2000년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로, 2012년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른다.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현재 인천 동구 우각로39(창영동 36)에는 1911년 완공된 영화학당의 교사가 일부 남아있다. 이 건축물은 2001년 4월 2일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영화학원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영화학당 출신 인물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기사에서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최초의 여성 박사 김활란, 유아교육의 개척자 서은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을 역임한 김애마, 미국 줄리어드 출신 음악가 김영의, 초대 인천시의회 의원이었던 하상훈 의원 등이 모두 영화학당 출신이다.

민간 해운업의 효시 이운사



1887년에 도입한 이운사의 기선, 창룡호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인천을 출입하는 외국기선이 증대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권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해외 열강들은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지나 집산지에서 직송하는 직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상품의 유통거점을 연결하는 직통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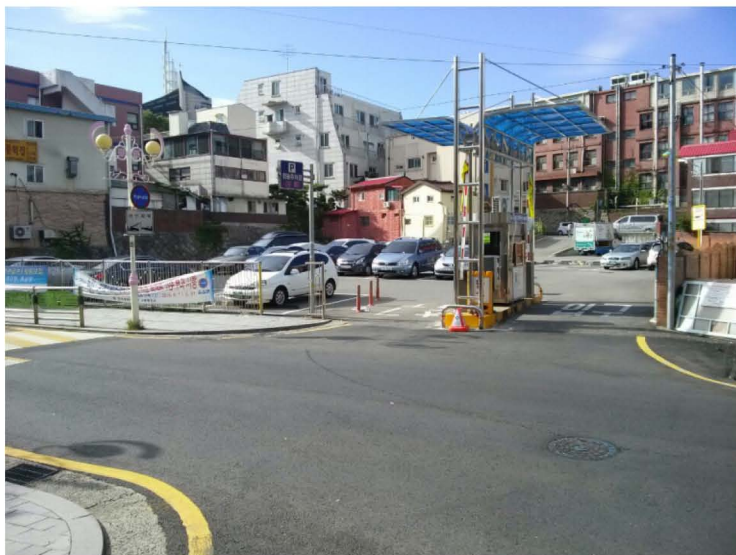
그러나 근대 해운업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상품유통의 확대, 대규모 자본 축적, 국가권력의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자본 발달이 미약한 조선으로서는 초기 해운업을 정부 직영의 형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885년 전운국(轉運局)을 설치하고, 이듬해 해룡호(海龍號)·조양호(朝陽號)·광제호(廣濟號) 등의 기선을 구입하여 주로 세곡(稅穀) 운송을 전담하였다.

전운국에 의한 관영해운업은 정부에서 소유하거나 고용한 기선을 주로 세곡운송에 활용하였으므로 ‘자기 운송’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근대 해운업이라면 ‘자기 운송’의 단계에서 타인화물을 운송하는 ‘타인 운송’의 단계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893년 1월 민영준(閔泳駿), 정병하(鄭秉夏), 우경선(禹慶善) 등의 발의에 의해 전운국

은 청으로부터 받은 20만 냥의 차관으로 이운사(利運社)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운사는 전운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창룡호(蒼龍號) 외에 현익호(顯益號) · 이운호(利運號) · 경제호(慶濟號) · 한양호(漢陽號) 등 총 5척의 기선을 소유하여 세곡운송 뿐 아니라 개인화물과 보통여객의 운송까지 취급하는 명실상부한 해운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부실한 경영방식과 실적 부진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다가, 갑오개혁으로 조세 금납화가 이루어지자 주요 업무인 세곡운송마저 폐지되어 위기를 맞는다.

1894년 전운국이 혁파되고 새로 이운사를 관할하게 된 탁지아문(度支衙門)은 이운사의 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인천항 상인들을 참여시켜 이운사를 민영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탁지아문은 동년 9월 이운사의 사옥과 창고, 현익호 · 창룡호 · 해룡호 등 기선 3척과 판선(板船) 14척의 운영권 일체를 인천항 상인들에게 맡겨 회사 운영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실에 진상하는 물품 및 관리의 수송도 이 회사에서 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운사터

갑오정권의 자유주의적 상업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이운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민간해운업의 효시가 되는 회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이운사 사무실은 외리 226번지에 있었다.

그러나 이운사의 기선이 청일전쟁 중에도 여전히 청국상인의 화물을 옌타이·텐진 등으로 수송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일본은 이운사 기선의 운송권을 차지하려고 조선 정부에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였다. 일본은 재정난에 처한 조선 정부에게 13만원의 차관을 연 8%의 저리로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워 집요하게 교섭해 왔고, 결국 1895년 1월 이운사 소속 기선을 일본 우선회사에 위탁, 운영한다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운사의 업무는 중단되고 만다.

대한제국 군함 양무호



양무공 신순성 함장

1893년 고종은 해군을 양성하기 위해 영국총영사에게 해군 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강화읍 갑곶리에 한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를 설립했다. 15세 이상 20세 이하의 생도 38명과 수병 300여 명을 모집하여 개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총제영학당’이다. 그러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는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다음해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군 장교 육성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10년 후인 1903년 4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함의 효시라 일컫는 양무호(楊武號)가 시커먼 연기를 하늘로 내뿜으며 인천항에 들어오고 있었다. 3,400여 톤급 1,750마력으로 최대 속도 13.5노트를 내고 먼 바다에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 대형 선박은 전장 105m 폭 12.5m에다 8cm 포 4문과 5cm 기관포 2문을 좌우에 각각 장착한, 그야말로 ‘나라의 힘을 키운다’는 이름자에 걸맞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누구도 이 군함이 단명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개항을 전후로 우리의 바닷길은 병인양요, 제너럴셔먼호사건, 신미양요, 운양호사건 등으로 여러차례 수난을 당했다. 집채만한 덩치의 화륜선, 대포까지 장착한 함선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만큼 그러한 화륜선을 보유하고 싶은 욕망도 컸다. 당시 국력은 해군력의 우열로 좌우되었고 그것이 바로 부국강병의 상징이었다. 고종은 개화사상에 불타오르는 젊은 승려 이동인에게 왕실의 비자금으로 일본에서 군함을 구입하라 밀명했지만 수구파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함으로써 첫 시도는 좌절되었다. 일본이 용인할리 없었음은 물론이었고 이후에도 모든 첩보망을 총동원해서 조선의 군함 구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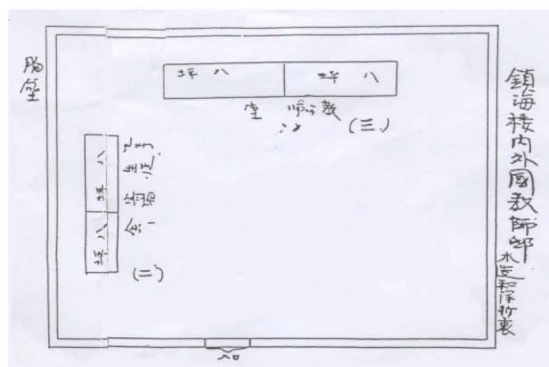
원천봉쇄했다.

군함을 향한 고종의 위대한 꿈은 그로부터 8년 후 양무호 구입으로 드디어 이루어졌다. 양무호는 원래 1888년 영국 덕슨사에서 건조한 펠라스(Pallas)호라는 화물상선으로 1894년 일본 미즈이물산이 25만원에 구입하여 일본-홍콩간 석탄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입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인 1903년 한국 정부가 이 배를 다시 넘겨받을 때 그 값만은 오히려 더 올라 개조수리와 무기장착비 일체를 포함하여 55만원이었다.

군함 개조공사를 거쳤다고 했지만 퇴역한 일본 군함에서 떼어낸 구식 함포를 달아놓은 정도였고, 그나마 구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4개월여 동안 인천항에 억류되는 수모를 당하다가 이 해 8월 시운전을 거쳐 우리 군함으로서 정식 등록했다. 더구나 이를 운용할 마땅한 인력조차 없었고, 하루 석탄 43톤이라는 막대한 운항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양무호 구입금액은 국방예산의 30%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군함구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던 일본이 자국의 운송회사를 내세워 조선에 함선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이었다. 거기에는 ‘국력강화’라는 그럴듯한 국가적인 명분과 당위성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 처음부터 대한제국 군주의 무지와 일본의 속임수, 아첨하는 관료들이 어우러진 ‘사기’ 사건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배는 제대로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무단 징발됐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무기는 일본군이 제멋대로 떼어낸 후였다. 결국 1909년 경매를 통해 다시 일본 하라다 상회에 4만 2천원에 매각되었다.

해군사관학교의 시작 조선수사해방학당



미나미의 정탐보고에 수록된 조선수사해방학당
본관구역 도면

륜선과 대포를 장착한 함포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한편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컸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됐던 군함도입 계획이 번번이 좌절되자, 우선 해군 양성계획을 먼저 착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1892년 12월 고종은 근대 해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국총영사에게 해군 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1893년 3월에는 해군학교 설치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해안의 방어를 위해 명칭을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으로 바꾸고 경기와 인천 연안의 방비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수사해방학당(水師海防學堂)을 별도로 설치하였는데, 총제영에서 설치했다 하여 ‘총제영학당’이라고도 불렀다.

15세 이상과 20세 이하의 생도 38명과 수병 300여 명을 모집하여 정식 개교한 후 먼저 영어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영국정부는 해군 교관의 파견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군사교관인 콜웰 대위와 조교 커티스 하사가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은 강화도에 학당과 군영을 설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정탐한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1894년 3월 2일 일본 해군대위 미나미 요시요야(南義親)가 강화도의 해군 관청을 시찰하고 보고한 첩보문서에 조선수사 해방학당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이 강화도에 근대해군의 양성을 위한

근대가 동틀 무렵, 전함과 병력으로 무장한 서구열강과 일본의 해군력은 나날이 강해져 갔고 결국 병인·신미 양요, 운요호 포격사건 등 세 차례의 외침으로 나타났다. 개항 전후부터 외국의 침채만한 화

학당과 군영을 설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군대위를 파견하여 정탐을 하였던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수사 해방학당의 건물규모, 위치, 생도, 교육법 등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강화도의 해군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당은 생도의 수업을 담당했던 학교 본관 구역과 교관 또는 생도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본관 구역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갑곶리 1061번지 일대에, 기숙사 구역은 여기서 200~300m 떨어진 언덕(지금의 천주교성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본관구역은 장방형의 담장 안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사당(敎師堂)과 을호 생도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서양식 외관을 하고 있는 절충식 건물이었으며, 장축의 길이가 최소한 10m이상되는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언덕 위에 있었던 기숙사 구역은 다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갑호생도의 기숙사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를 가르치던 영경교당(英經敎堂)이었다.



조선수사 해방학당 기숙사 구역



조선수사 해방학당 본관구역

그러나 군사교육이 시작된지 3개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국내외 압박이 심해지면서 수사해방학당은 유명무실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지만, 차후 군함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학당이 있던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61번지 일대는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육기관의 효시 해성보육원



초창기 해성보육원 수녀와 원생

1894년 설립된 해성보육원(海星保育院)은 한국 최초의 보육기관으로, 인천에서 근대적 아동 보육이 시작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답동성당의 전신인 제물포성당에서는 한국의 첫 수녀회인 썬펄수녀회(샬트르 성바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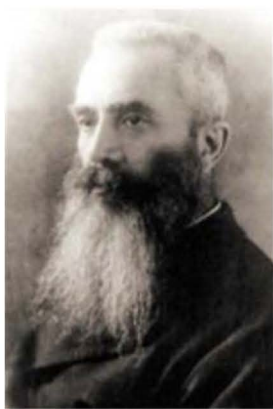
수녀회)에 수녀 파견을 요청하였다. 1893년 답동성당이 완공된 것에 이어 1894년 수녀원이 완공되어 3명의 수녀가 답동성당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보육사업과 더불어 무료 진료를 매개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당시 인천에서는 보릿고개가 극심하고 가난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다. 인천은 선교사들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였으며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어 외래 종교의 교세 확장이 시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종래의 관습과 서양인에 대한 불신으로 교세 확장이 쉽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아들을 모아 보육하고 이들을 교육하는 것,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것 등은 교리를 수행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선교 활동이기도 하였다.

1894년 8월 18일 프랑스에서 한국에 파견되었던 마리클레멘스 수녀, 엠마누엘 수녀, 사베리오 수녀가 집 없이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면서 해성보육원의 전신인 제물포고아원이 설립되었다. 그 해 가을 4살 된 여자아이 한명이 고아로 들어와 수녀방 하나를 비워서 수용하였고, 이어 12살 된 여자아이 한명이 더 들어왔다. 다음해 4월 2살 된 남자아이가 들어오자 1896년 현재의 답동성당에 원사를 신축하고 수녀원에서 직접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1904년 답동성당의 4대 신부로 부임한 드뇌(Eugene Deneux) 신부는 1905년 3월에 고아원 원사를 증축하였다.

설립 초기 고아원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유아 40명을 돌보고 있던 1920년 인천 유지 박창환, 정치국, 강석우, 주명지, 임원인 등이 2,044원을 본당에 전달하여 고아원을 돕기도 하였다. 해성보육원 16대 원장인 방 마리아 수녀의 말에 따르면 “선교사로 파견되기 전에 한 번씩 들렀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수녀들이 직접 일을 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보리밥에 소금이 전부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수녀들이 폐병에 걸리거나 굶어죽기까지 했습니다.”고 하여 고아원 운영에 있어 업무가 고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26년 조선총독부구호령에 의하여 천주교고아원으로 인가되었으나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사이공성영회의 도움을 받는 한편 국내 독지가들에게 기부를 받거나 바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드뇌 신부는 수녀원을 비롯하여 해성보육원 등 본당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을 확충하고, 사재를 털어 용현동과 영종도 등지에 20여만 평의 농토를 마련하여 보육원에 기증하였다.



드뇌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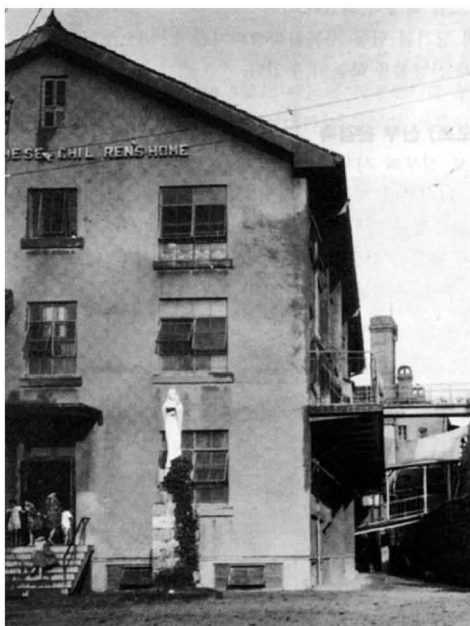
1932년에 고아원 건물을 벽돌식 건물로 개축하였고, 천주교고아원에서 천주교보육원으로 개칭하였다. 1935년에는 보육원 운영을 위하여 부속 병원을 건설하고 1937년 원사를 3층 건물로 신축하는 등 보육 사업에 매진하였다. 1946년 한국 정부로부터 후생시설(보육원)으로 정식 인가되었다. 광복 이후 사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고아의 수가 급격히 늘자 1948년 12월 15일에는 남구 용현동에 분원을 설치하여 본원에서는 영아를, 분원에서는 아동을 보살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육원은 큰 시련에 부딪혔다. 신부와 수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다녔는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마땅한 숙소도 구하기 어려웠다. 휴전 이후 보육원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을 모집하였는데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1958년 용현동 분원을 확장하고, 1975년에는 본원에 있던 영아를 분원으로 옮기고 보육원 자체를 용현동 분원으로 통합하였다. 해성보육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아동이 이곳을 거쳤다고 한다.

참고로 1892년 랜디스 박사가 6세 고아를 데려다가 보살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규모가 미흡하였고 아동 보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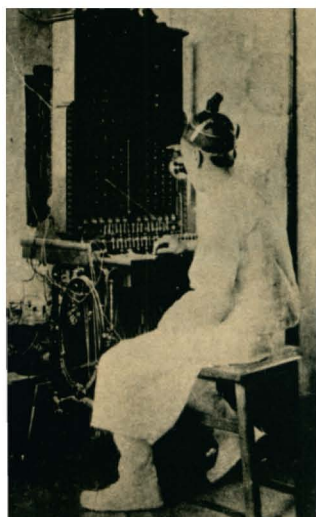


1955년 완공된 해성보육원

해성(海星, Star of the Sea)과 성모마리아

해성보육원의 해성(海星)은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 중 하나인 스텔라 마리(Stella Maris)에서 유래하였다. 스텔라는 별이라는 뜻으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예수를 향하여 항해하는 신자들을 인도하는 바다의 별(Star of the Sea)인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

김구를 살린 전보 그리고 최초의 시외전화



교환원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898년이다. 당시 궁내부(宮內部) 주 관으로 궁중에서 각 아문(衙門)과 연락을 위해 덕수궁에 전화시설을 마련하여 각 아문은 물론 인천에 있는 감리소(監理所)에까지 전화가 연결되었다. 당시에는 전화를 ‘덕률풍(德律風)’, ‘득률풍(得律風)’, ‘전어기(傳語機)’ 등으로 불렀다.

1902년 3월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가 가설되었다. 가입자는 5명이었다. 같은 해 6월 시내교환전화가 가설되며 인천우편국에서 전화교환 사무를 시작했고, 1905년에는 전화통화 사무를 시작하였다. 1904년에는 인천정거장과 우편국 앞에 자동 전화를 설치하기도 했다. 1905년 한국 통신권이 일본에 의해 강탈당함에 따라 한국의 전화사업도 일본의 손에 넘어가, 광복 때까지 40년간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당시의 시설은 각종 단식교환기 40석, 벽괘형교환기 8석, 시외교환기 6석이었다.

전보는 전화보다 조금 앞서는데 1894년 12월 1일 인천우편국에서 일반인들의 전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말로 된 전보는 1946년 1월 1일부터 가능했다고 한다. 전보는 일어, 유럽어, 한글 3종류였는데 전보통수에서 일어가 유럽어나 한글에 비해 약 1천배 가량 많이 사용됐다. 그래서 광복 이후 “우리말의 전보를 인천우편국에서 취급하므로 일반은 일본말 전보를 업세고 우리말 전보로 해주고, 인천국에서는 일반의 국문 전보 취급에 협력 해주기 바란다”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에 일어 전보를 여전히 많이 사용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가입자를 대한

천일은행 본점과 인천 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는 1895년 이미 궁 내부(宮內府)에 자석식 전화가 개통되었지만 인천에는 인천전화소(仁川電話所)가 교환 업무를 개시한 때가 1903년 2월 17일로서, 이 날이 대한천일은행 본점과 지점 사이에 전화가 개통된 날인 동시에 한국 최초의 전화 가입이 이루어진 날이 되는 것이다.

백범 김구와 전보

『백범일지』에는 김구가 사형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나는 얘기가 나온다.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대군주(大君主, 高宗)로부터 사형을 정지하라는 칙령이 전화로 직접 내려왔다는 내용으로, 『백범일지』 「대사령친전정형(大赦令親電停刑)」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어쨌든지 대군주가 친히 전화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때 경성부 내에는 전화가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이외에는 장거리 전화가 인천까지가 처음이요, 인천까지의 전화 가설 공사가 완공된 지 3일째 되는 날(1896년 8월 26일)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전화가 준공되지 못 했어도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에 전화가 개설된 때는 1898년이며 인천 감리서와 서울 궁궐과 전화가 처음 개설된 것은 1월 28일이었다. 그러므로 김구의 회고는 착오이며 인천 감리서가 받은 것은 전화가 아니라 전보(電報)였다. 1896년 음력 8월 26일(양력 10월 2일)에 법무에서는 이화보는 석방하고, 김창수(김구의 본명)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유보하라는 답전(答電)을 인천 감옥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따라서 『백범일지』의 내용은 사실의 여부보다는 사형의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 김구의 입장에서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근대 예술 공간 협률사



정치국

1895년 정치국(丁致國)이 개관한 인천 경동의 협률사(協律舍). 이는 그간 한국 최초의 공연장으로 정의되고 있는 서울 정동에서 문을 연 1902년의 협률사(協律社)보다 7년, 이인직(李人植)이 종로 새문안교회터에 창설했던 1908년의 원각사(圓覺寺)보다 13년이나 먼저 개관했다. 협률사는 개항 이래 격동의 그 긴 시간만큼 인천 문화예술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문화예술인들의 혼이 담겨 있는 산실이자 인천 문화예술의 선구성과 저력을 보여주는 실례였다. 인천의 문화예술 활동은 이러한 토양으로부터 출발한다.

1901년 내리교회의 존스(한국명 조원시) 목사는 『The Korea Review』 1월 호에 기고한 『The New Century』라는 글에서 “1900년에 들어섰을 무렵 이미 인천에는 3개의 영사관, ‘2개의 극장’, 7개의 은행, 다수의 목욕탕, 수 개의 교회단, 수 개의 호텔 등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2개의 극장. 그 하나는 1933년에 간행된 『인천부사』에서 확인된다. “부청 서쪽인 중정 1정목(현 관동)에 100석 규모의 화도를 갖춘 극장을 (일본)거류민의 위안을 위해 개설하였는데, 이후 명치 30년(1897)에 산수정 2정목(현 송학동)으로 옮겨 극장 양식으로 신축하여 ‘인천좌(仁川座)’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일본인 보다 2년 앞서 1895년에 정치국(丁致國)이 세운 협률사(協律舍)이다. 인천 협률사에 대한 언급은 고일(高逸)의 『인천석금』(1957)과 최성연(崔聖淵)의 『개항과 양관 역정』(1959)에 근거한다. 고일에 의하면 “인천의 부호 정치국은…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주해와 성공한 재산가이다…그는 용동(龍洞)에 창고 같은 집을 지었다. 이것이 우리 손으로 된 최초의 극장 협률사(協律舍)이다.”라 하였고, 최성연 역시 “그 당대 인천의 부호 정치국 씨가 운영하던 협률사(協律舍)라는 연극장이 있었다. 협률사는 오늘의 애관(愛館)의 전신으로서, 일청전쟁 중(1894~95) 지었던 단층 창고를 연극장으로 전용하였다.”라 하였다.

지역사 연구에 큰 비중을 갖는 두 사람이 극장 협률사(協律舍)의 설립자로 모두 정치국을 지목하고 있지만, 개관 연대에 대해서는 최성연만이 ‘일청전쟁 중(1894~95)’에 건축한 것으로 그쳤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1895년을 협률사(協律舍) 개관 년도로 잡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신보》 1916년 4월 27일자 〈인천 신사신상(紳士紳商)〉 소개 호에 “...정치국은 부산에서 나서 명치 17년(1884)에 전도 희망의 큰 포부를 가지고 내인(來仁)한 이래 15년간 객주업(客主業)에 종사하더니 명치 32년(1899) 자기의 발기로 공동우선주식회사(共同郵船株式會社)를 창립하고 사장이 되어 금일까지 현직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인천 개항 다음 해인 1884년부터 인천에 거주했고, 자수성가해서 1899년에 부산 경성 등지를 운행하는 기선회사를



초기 애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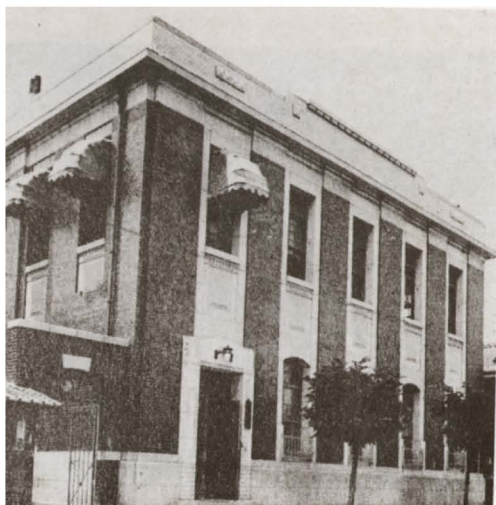
설립하여 사장을 겸하는 한편 인천상업회의소 부회두(부회장)에 오른 입지 전적인 인물이었다.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인천은 영사관, 은행, 호텔 등이 성업하고 있어 이미 극장 경영도 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협률사는 인천 지역에 설립된 조선인 최초의 공연장으로 이후 <혁신단> 임성구의 제안에 따라 1912년 ‘축항사(築港舍)’라 명칭을 바뀌게 되는데 부지 48평을 가진 2층 건물의 정원 500명 규모였다. 여기에서 극작가 진우촌·함세덕, 연기자 정암, 무대장치가 원우전(元雨田) 등 기라성 같은 인천 문화계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새로운 애관(愛館)극장 시대를 준비해갔던 것이다.

서울의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집단 거류지에 연극 전용극장을 최초로 설립한 시기를 1906년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인천 지역에서는 그 시기가 훨씬 앞섰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인천 거주 일본인이 4,148명, 서울은 1,939명이었고 1903년에도 인천 6,433명 서울 3,673명 인 것을 감안할 때 서울보다 먼저 출발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정치국(丁致國, 1865. 7. 7~1924. 10)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간 《황성신문》 1899년 2월 18일자 잡보 난의 “부산항에 ‘사는’ 정치국이…부산 경성 등지를 운항하기 위한 협동기선회사(協同汽船會社)를 설립”하였다는 기사가 ‘유일하게’ 인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 기사로 인해, 최소한 1899년까지도 인천에 살지도 않았던 그가 ‘어떻게 1895년 인천 협률사를 창립했겠는가’로 많은 회의와 의문을 갖게 했던 것이다.

선물시장의 시작 인천미두취인소



1920년대의 인천미두취인소

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는 1896년 5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에 개설되었는데, 일제가 미곡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설립한 기관이다. 취인소(取引所)는 ‘거래소’라는 의미이며 주로 1차 생산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초기에는 쌀, 대두, 석유, 명태, 방적사, 금사, 목면 등 7가지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다가 1904년부터 운영상의 문제로 거래품목을 미곡(米穀)과 대두(大豆)로 한정하였다.

인천항의 일본 상인들은 미두취인소가 설립되기 전에 인천항객주조합이나 신상회사 및 근업소 등의 단체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미두취인소였는데 외국인 상사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의 지원을 받은 일본인 미곡상 14명은 1896년 4월 1일 미두취인소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허가 과정은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인천항에 있었던 일본영사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인 거주지에 설립된 인천미두취인소는 이 해 5월 5일 자본금 3만 원으로 문을 열었다. 일본에서 1893년에 취인소법이 제정된 후 3년 만에 인천에 미두취인소가 개설된 것이다. 1898년 9월에 일본영사에 의해 해산되어 일시 휴업하기도 했지만 1899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인천미두취인소 설립에는 일본상인들이 곡물거래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과 함께 곡물의 가격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투기적 의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오사카(大阪) 기미시장(期米市場)에서 투기거래를 통해 파산한 일본상인들이 인천의 상권을 장악하고 투기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인들을 시장에 유인하여 토착자본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놓여 있었다. 당시 “땅문서는 동척(동양척식회사)으로 들어가고, 현금은 인천에 떨어진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전자는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한 일본의 토지수탈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천미두취인소의 투기거래를 통하여 한국인이 자본을 날리던 상황을 의미했다.



이광수의 재생 (동아일보 1924, 11, 8)

미두취인소에서의 거래는 오늘날 증권 거래와 거의 비슷했다. 증권 거래가 채권, 주식 등 유가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미두취인소는 현미 등 미곡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거래는 3기로 구분하여 1개월 내 거래된 매도, 매수 물량을 거래 당사자 간에 정리하는 방식의 선물 거래였는데 취인소가 인가한 중매점을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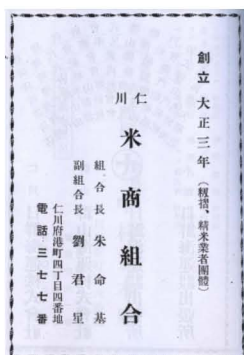
중매점은 거의 일본인 차지였고 조선인으로는 인천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던 유군성, 개성 부자 김익환, 평안도 대지주 장최근뿐이었다. 시장은 하루에 전장, 후장 2번씩 열렸고 매매 단위는 미곡 100석, 대두 50석으로 하여 호가는 모두 1석의 가격으로 했다. 시세는 오사카 취인소 시세에 따라 변동했다. 2석 당 1원인 보증금을 중매점에 예치하면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기한 내에도 시세에 따라 처분할 수 있었다. 현물 없이 보증금만 가지고 거래가 성립됐고 아무 때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두취인소는 기미(期米)를 통한 일종의 도박장으로 투기와 가격 조작이라는 문제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폐해를 낳았다. 반복창, 조준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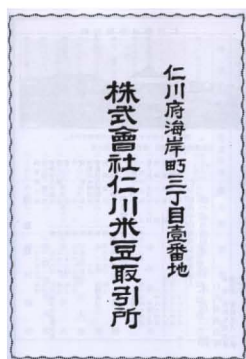
과 같이 성공한 미두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지주와 중소기업인, 일확천금을 꿈꾸고 인천항에 미곡을 싣고 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를 털리거나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예가 허다했다. 또 미두의 영향으로 인천항 일대는 요릿집, 주점, 여관 등의 향락 산업이 번창했다. 기록에 의하면, 미두취인소의 고객은 90%가 한국인이었고 이들이 약 15년 간 미두장에 바친 돈이 수억 원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자 당시의 『개벽』에 실린 표현처럼 “인천아 너는 어떤 도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미두취인소를 ‘피를 빨아 먹는 악마 굴이요, 독소’라 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미두취인소 내부적으로도 파행적인 운영과 오직 (汚職) 사건으로 1898년과 1919년 2차례에 걸쳐 해산되고 임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폐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일합병 후 인천미두취인소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각처에 돈 바람이 불고 미두취인소의 설립 신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 인천미두취인소의 서울 이전 문제가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당시 ‘인취문제’라 불렸던 이 사건은 1922년 10월부터 10년 간 긴 줄다리기 끝에 조선총독부가 1931년 조선거래소령을 공포하고 인천과 경성주식현물거래소를 통합기로 함에 따라 인천의 패배로 끝이 났다.

서울 소재 경성주식현물거래소에 운영권을 빼앗긴 인천미두취인소는 경성거래소 기미부로 전환된 채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통제 경제에 밀려 휴업 상태에 있다가 광복과 더불어 문을 닫았다.



미두상



미두취인소 광고

외국인 관련 사건 재판의 시작 개항장재판소



개항장재판소

1895년(고종 32) 5월 일제가 재판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개혁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개항장재판소다. 이에 따라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폐지하고, 개항장인 인천, 부산, 원산 등의 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재판소와 달리 외국인들이 조차하는 개항장에 위치하고 있어 법무아문에서 관할하는 것을 물론이고 외무아문의 감리서에서도 개항장재판소를 관할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으며,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했다. 관원으로 판사·검사·주사·정리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개항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판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의 참서관 또는 주사가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검사가 없을 때는 해당 부의 주사 또는 총순이 담당하게 했다. 주사가 판사 서리가 되면 검사 서리를 겸할 수 없었다.

대외관계 업무를 일원화하기 판사는 감리서에서 파견된 감리가 겸했다.

감리는 개항장 재판소의 판사를 겸하는 것 외에도 개항장의 세워진 학교의 교장이나 부윤 등을 겸하며 개항장내에서 최고위자로 개항장을 관리했다.

결국 개항장 내의 재판권이 개항장재판소에 귀속되고, 재판권이 감리에게서 분리되어 나간 듯 하지만, 사실은 개항장의 부윤을 겸하고 있는 감리가 재판소의 판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개항장재판소는 1905년 11월 일제가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외부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서 소멸하게 되었다.



경성감옥 인천분감

김구와 인천

김구는 인천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전한다.

“나는 38 이남만이라도 돌아보리라 하고 제일 먼저 인천에 갔다. 인천은 내 일생에 뜻깊은 곳이었다. 스물두 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스물세살에 탈옥 도주하였고, 마흔한 살 적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이수되었다. 저 축항에는 내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옥중에 있는 이 불효를 위해 부모님이 걸으셨을 길에는 그 눈물 흔적이 남아있는 듯하여, 마흔아홉 해 전 기억이 어제런 듯 새롭다. 인천에서도 시민의 큰 환영을 받았다.”

소년 운동의 선구 애플칭년회



내리 집총고적대(1907)

애플칭년회는 1889년 미국에서 창설된 감리교 내 청년 단체로, 애플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J. Wesley)의 고향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감리교회에 애플칭년회가 조직된 데 이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피선교지 교회에서도 조직되었다.

1897년 내리교회 내에 한국 최초의 애플칭년회가 조직되었다. 내리교회 2대 목사인 존스(Jones, G.H)가 재임 중인 1897년 정동교회에서 열린 제 13회 감리교선교 연회에서 청년회를 조직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설립 위원으로 존스 목사, 평양의 노블(Noble, W.A.),



애플칭년회 여자야학부 4회 졸업생(1926)

이화학당의 페인(Paine, J.O.) 등 3명이 위촉되었다. 그 결과 존스 목사가 담임하고 있던 내리교회에서 한국 최초로 엡윗청년회가 조직된 것이다. 엡윗청년회는 우리나라 소년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천 지역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계몽활동과 애국운동을 펼쳤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내리교회 내에 엡윗청년회가 결성된 시기는 1897년이라고 알려졌을 뿐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서울 상동교회(尙洞敎會)에 엡윗청년회가 결성된 것에 비하여 이른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존스 목사가 대한 중앙청년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내리교회 김기범 전도사가 엡윗청년회 위원을 맡고 있었기에 다른 교회보다 먼저 청년회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리 조선소년척후대(1935), 중앙 박남칠 대장, 대장 최측 이보운 부대장

내리교회 엡윗청년회의 이름은 미국 엡윗청년회의 회장인 나인테(Ninde, W.X.)의 이름을 따서 ‘나인테 지파’(Ninde Chapter)라 하였다. 처음 조직 당시 회원은 28명이었는데, 1899년에는 35명, 1901년에는 5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899년에 여성을 위한 엡윗청년회를 별도로 설립하여 15명의 회원을 존스 부인이 담당하였다.

내리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의 엡윗청년회는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초기에는 계몽활동으로 대항하다가 나중에는 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진남포지방 총무였던 김구 선

생 등 전국 임원들이 집결하여 상동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대한 문 앞으로 나아가 상소무효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내리교회 앰뷸 청년회는 일제로 의해 강제 해산 당하였다가 1908년 재조직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에 이르러 남녀 앰뷸청년회를 통합하여 소년회를 조직하였다.

내리교회 조선소년척후대(朝鮮少年斥候隊)

1925년 6월 1일 내리교회에 조선소년척후대가 조직되었다. 1922년 정성채(鄭聖采)가 조선소년척후대를 창립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창설된 것이지만 교회 내에 조선소년척후대가 창설된 것은 한국 최초의 일이었다.

내리 조선소년척후대는 금주, 금연 운동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고적대 행진을 했다. 고적대는 총을 들고 나팔을 불고 서양 북을 두드리며 행진하는 이른바 짐총 고적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다고 한다. 그러나 내리 조선소년척후대는 일제에 의하여 1937년 9월 강제 해산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1946년 2월 10일 인천보이스카우트 재건위원회가 내리교회에 설치되어 한국보이스카우트 재건 운동을 펼쳤다. 이 또한 같은 해 3월 1일 서울에서 한국보이스카우트 재건 운동이 펼쳐진 것에 비하여 앞선 일이었다.

조선인 어시장 인항어상회사



1904년 제물포 전경

생산자로부터 중매인—도매인—소매인—소비자로 연결되는 수산물 유통방식, 특히 경매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근대적 판매방식은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익숙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경매제도가 우리에게 이입되는 과정에는 일제 식민지 자본의 침투가 기반하고 있었음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근대적 유통방식, 합리적인 시장원칙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자본의 억제와 대륙침략을 위한 제국주의적 식민지 수탈이라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에게 처음 우리나라 연해에서 어업을 행하도록 허락된 것은 1882년에 맺어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의해서이다. 이 장정에 의해 청국 어민들은 황해도, 평안도 연안에서의 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듬해인 18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어 일본 어민들에게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의 4도에서 출어가 허락되었다. 특히 일본은 1888년 인천 연안(강화도부터 남양만까지)으로 조업 허가 영역을 넓히고, 이듬해인 1889년에는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하여 자유로운 어업활동은 물론 잡은 어류까지 조선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조일통어장정」의 체결로 일본 어민들은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 자신들의 거류지가 있는 개항장에 어시장을 설립하여 자신들이 잡은 어류를 판매

하였다. 어시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부산수산물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부산어시장이었다. 부산수산물주식회사의 설립은 1903년 5월 1일이지만 그 전신은 1889년에 일본인 유지가 모여 자본금 5만원으로 설립한 부산수산물회사였다. 어류를 판매하는 일은 물론, 각종 서류의 대행, 예금 및 대출 알선 등 일본 어민의 조선 진출을 위한 첨병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인천에서는 1898년 이나다 카쓰히코(稲田勝彦)가 청국거류지 경계에서 개설한 어시장이 그 효시를 이룬다. 그러나 이 어시장은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1900년에는 인천공동어시장이 설립되어 해안정 2정목에서 문을 열었다. 인천공동어시장은 경인철도의 개설과 러일전쟁에 따른 호경기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1906년 본정 2정목에 새로운 어시장(東어시장이라고 불렀고, 기존의 어시장은 西어시장이라고 불렀음)이 개설되어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두 어시장은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합병논의가 일어났고, 결국 1907년 10월 29일 자본금 30만원으로 설립된 인천수산물



인천수산물주식회사 공판장

식회사로 합쳐졌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개항기 인천에는 이들 일본인 어시장뿐 아니라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어시장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1899년

에 자본금 2,680원으로 설립된 인천항어상회사(仁港魚商會社라고도 불림)의 어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조선인이 설립한 유일한 어시장이었다.

인항어상회사는 어류를 취급하는 방법에서 종래의 객주(客主)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경영에 있어서나 사업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객주와 성격을 달리하였다. 즉, 종래의 객주 영업은 창고를 소유하면서 물품을 보관하고, 여객을 숙박시키면서 거래를 알선하여 보통 8~10%의 구전을 챙기는

것이였다. 그러나 인항어상회사는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할인’이란 방식으로 매입한 후에 판매하는 방식을 썼으며, 할인 비율은 어류와 계절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설립 초의 사장은 김덕흥(金德興)이였다.

인항어상회사는 1911년 조합원 총 52명의 어상조합으로 변경하였다. 1913년에 발간된 『인천항상공업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판매액은 800원인데, 이중 절반은 인천수산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선인 어업자로부터 구입한다고 하였다. 송어, 조기, 새우, 게 등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어류들을 주로 판매하였다.

한편, 인천의 어상들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마포 객주 출신의 정흥택(鄭興澤)이였다. 정흥택은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여, 러일전쟁 이후 인천의 어류 유통망을 장악하였다. 정흥택의 생선전(生鮮廛)은 옛 신포슈퍼마켓 자리로, 오늘날 신포시장의 명성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인들이 설립한 인천수산주식회사는 1936년 경기도어업조합 인천지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의 인천수협(仁川水協)의 전신이 되었다.



인천수산주식회사 어시장 전경

기공식을 두 번 한 경인철도



경인철도 제1차 기공식

개항 후 근대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던 것은 인천에도 마찬가지여서, 인천항과 한반도 각지를 연결할 교통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통망은 도로교통

중심의 오늘날과는 달리

항만과 철도가 중심이어서, 주된 관심은 인천항의 확장과 철도교통망의 건설에 모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경인선 철도의 부설은 개항 후 인천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경인철도는 1897년 3월 29일 기공되어 1899년 9월 18일 개통된 한국 최초의 철도이다. 경인철도 개통 이전 서울과 인천 사이의 교통은 우마차 등으로 12시간이 걸리던 육로교통과 인천~용산간의 뱃길에 의존하고 있었다. 때문에 서울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대개 인천항에 내려 유숙하고 이튿날 우마차로 서울로 향하였고, 화물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용산으로 수송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항장에는 각종 숙박시설이 호황을 누렸고, 세곡선이 다니던 항로에는 화물수송을 위해 기선이 운항하기도 하였다.

인천항을 발판으로 한반도 각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강은 경인선 철도부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결과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을 활용한 일본이 1894년 「조일합동조약」에 따라 철도부설 사업권을



경인기차(모갈형)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인철도 부설권은 1895년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반일여론이 비등한 와중에 1896년 3월 미국인 모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모스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후, 인천에 거주하던 타운센드와 함께 한국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콜브란을 기사장으로 하여 경인간 노선을 실측하였다. 그 결과 용산에 정차장을 설치하며, 공사는 인천과 서울 양쪽에서 동시에 착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897년 3월 27일 인천 우각현(쇠뿔고개)에서 기공식을 거행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자본가들의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철도부설 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철도부지 문제를 둘러싼 일본인 지주와의 갈등으로 탁포(拆浦)를 매립하여 인천역을 설치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응봉산(자유공원)뒤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공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기의 인천역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일본 측은 경인철도 인수조합을 조직하고 1897년 5월 8일 모스와 「경인철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모스가 18개월 이내에 철도를 완공한 뒤 인수조합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수조합과 모스 사이에 의

견 충돌이 잦아지자 모스의 제안으로 1899년 1월 31일 온전한 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해 경인철도 부설권 자체를 일본의 경인철도인수조합이 소유하고 공사도 조합이 직영하게 되었다. 당시 경인선 부설공사는 토목공사가 반 정도 완료되었고 한강철교도 축조 중에 있었다. 인수조합은 4월 4일 인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모스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4월 23일 인천역에서 제2차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 결과,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 승객모습

9월 13일에는 인천과 노량진사이를 운행하는 경인철도의 임시영업이 시작되었다.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가 준공되고 7월 8일 노량진-서울(당시 서울역은 서대문으로 현재의 이화여고 자리)사이가 개통되어 12월 12일 서대문에서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개통 당시의 경인선은 증기기관차 4대와 객차 6량, 화차 28량으로 운영되었고 인천역-축현역-우각동역-부평역-소사역-오류역-노량진역 등 7개 역에 119명의 직원이 종사했다. 33.2km 구간을 1시간 30분에 달렸으며 오전, 오후 하루 2차례씩 왕복했다.

한옥으로 지은 성공회 강화성당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초기 모습(1905)

강화군 강화읍에는 1900년 성공회(聖公會, The Anglican Domain)에서 지은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이 있다. 1890년 중구 내동에 한국 최초의 성공회성당인 내동성당이 설립된 바 있으나 한옥 성당은 아니었다. 강화성당은 한옥과 서양 건축 양식을 조화롭게 건축하여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진 한옥 성당이라는 데 가치가 있다. 성당 건물을 한옥으로 조성한 것은 대한성공회가 한국 문화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토착화에 힘썼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중에서도 한옥 성당의 시초는 강화성당이었다. 강화성당 이외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공회 한옥 성당은 강화 온수리성당(1906년 건립), 진천성당(1908년 건립, 1923년 재건), 청주성당(1935년 건립) 등이 있다.

1893년 코프(Corfe, C.J.) 주교가 강화도 갑곶에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같은 해 워너(Warner, L.O.) 신부가 파송되어 성공회의 강화 지역 선교가 본격화되었다. 성공회가 강화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고종이 영국의 해군력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막강하였다. 고종은 지금의 해군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조선수사해방학당을

강화도에 설립하고, 1894년 영국 해군 대위 콜웰과 포병 교관 커티스를 교수로 초빙하였다.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자연스레 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영국성공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내리교회 존스 목사가 몇 차례 강화도에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강화유수가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과 마을(1906)

성공회 선교사들은 성 안에 들어와 1897년 6월 성바오로 회당을 축성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갑곶에 고아원 형태의 학교와 진료소를 운영하였다. 1898년 성바오로 회당으로 학교와 진료소를 옮기게 되어 회당은 복음, 교육, 의료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성바오로 회당의 역할이 커져가자 초가집 형태였던 회당의 신축이 불가피하였다. 트롤로프(Trollope, M.N.) 주교는 지금의 강화성당 자리에 땅을 구입하고 방주 모양으로 터를 닦아 1900년 11월 15일 성당을 완공하였다. 궁궐의 증축과 보수를 담당한 도편수가 백두산에서 벌채한 소나무를 자재로 성당을 지었다. 건물 외부는 한옥 양식으로 하여 마치 사찰과 같은 모습으로, 내부는 한옥 자재를 사용하되 바실리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현재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에는 태극 문양을 본뜬 원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성공회강화성당(聖公會江華聖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내삼문은 외삼문과 마찬가지로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안에는 태극과 십자가가 그려진 범종이 걸려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징발되어 없어진 것을 1989년에 새로 제작한 것이다. 성당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0칸의 2층 한옥 양식으로, 지붕 위 용마루 양 끝에 십자가를 올렸다. 성당의 정면에는 ‘천주성전(天主聖殿)’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성공회의 성구를 담은 주련(柱聯)이 있다. 원래 성당의 뒤쪽에는 1903년 반가(班家)의 형식으로 만든 주교관이 있었다. 화재로 소실되어 1986년 신축하였고 현재 사제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사적 제424호(2001년 1월 4일 지정)로 지정되었으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한국 최초의 성공회성당, 대한성공회 내동성당

한국에서의 성공회 전파는 1890년 8월 원래 영국 해군 중군 신부이던 코프(Corfe, C.J.) 주교가 인천에 상륙하며 시작되었다. 장로교와 감리교보다 5, 6년 정도 늦은 시기였다. 코프 주교는 송학동 3가에 한국 최초의 성공회성당인 내동성당을 설립하여 포교에 힘썼다. 6·25전쟁 이후 성공회에서는 송학동의 내동성당 부지를 매각하고 1956년 6월 23일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성 누가 병원 자리에 새 성당을 건립하고 성 미가엘 성당(내동교회)으로 명명하였다.

최초 외국인들의 사교클럽 인천제물포구락부



초기 제물포구락부

구락부(俱樂部)는 ‘클럽’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개항 후 1884년 인천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각국 거류지가 조성되고, 1891년 청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클럽이 조직되었다. 제물포구락부는 서울 정동에 결성되었던 정동구락부(1894)보다 3년이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교클럽이었다. 각국인들이 모여 교류도 하였지만, ‘제물포정략’이라는 표현이 당시 회자되었듯이 결국은 인천을 포함한 조선에서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모임의 공간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천의 각국조계는 일본 및 청국조계를 둘러싼 형태로 총면적 462,000㎡(14만평)로 구성되었지만, 거주한 서양인은 많지 않았다. 제물포구락부가 신축되었던 1901년을 기준으로 개항장의 인구수를 보면, 전체 17,507명 중 서구인들은 75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영사관 직원이나 세관 직원, 통역, 선교사, 의사, 그리고 일부 상인이었는데 각국공동조계의 땅은 모두 이들이 임차하고 있었다. 나라별 분포를 보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9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중구 관동1가의 목조 단층건물에서 출발했다가 1901년 지금의 자유공원 기슭에 지상 2층의 벽돌조 건물을 지어 옮겨왔다.



인천시립박물관 시절 전시실(1950년대)

설계자는 러시아인 사바찐(Sabatin)으로 건물 안에 사교실, 당구장, 독서실과 외부에 따로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등 사교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사바찐은 제물포구락부 외에도 인천 해관 청사, 세창양행 숙소, 러시아 영사관, 각국공원, 서울의 손탁호텔, 독립문과 덕수궁의 양관(중명전 등)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개항기 외국인들의 영문잡지였던 ‘Korea Review’ 1901년 6월호에 제물포



인천시립박물관시절(1953~ 1990)

구락부 개관식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물포 클럽의 개회식은 6월 22일 토요일 4시 30분에 가졌고, 사바찐 등 내빈들이 모이자 알렌여사가 은열쇠로 문을 열고 선두에 서서 건물로 들어섰다. 내부 시설들을 돌아보고 나서는 영국영사 허버

트 고페의 간단한 연설과 알렌여사의 개회 선언, 그리고 건배 제의가 이루어졌다. 은제열쇠는 알렌여사에게 기념품으로 선사되었다고 한다.

1914년 이후 일본재향군인회가 사용하면서 정방각(精芳閣)으로 불렸고, 광복 후 미군의 장교 클럽, 시립박물관, 문화원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제물포구락부의 옛 모습을 재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제물포구락부

선박의 입출항 알렸던 예포(禮砲)



월미도 원경

예포는 국가·부대·함정을 공식 방문하는 내외국의 국가원수, 고위관리 및 장성 등이 도착하거나, 군함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등 각종 의례시 그 수레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군대나 군함이 일정수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예식절차이다.

예포는 싸움에서 이긴 쪽에 대한 경의와 무장해제의 표시로 행한 중세시대의 전통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싸움에서 패한 적군으로 하여금 탄환을 모두 소진하게 한 후 탄약을 재장전할 때까지 무력하게 방치되도록 요구한 17세기의 영국 해상관습에서 유래되었다.

영국은 처음에 대부분의 함정에 7문의 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7발의 포를 해군 예포로 쏘게 하였다. 당시 화약은 질산나트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상에서보다는 육상에서 보관하기가 용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해상에서 1발을 발사할 때마다, 육상에서는 세발씩을 발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상에서 7발을 쏘 때 육상에서는 21발을 쏘 수 있어 이것이 21발 ‘Royal Salute’의 유래가 되었다.

인천에서도 예포를 발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02년 9월 17일 거행할 예정이었던 ‘칭경예식’에 초대된 각국대사를 맞이하는 포대를 월미도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군이 1901년 8월 14일에 월미도 정상에 포대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길이 90자, 높이 6자 정도의 성곽을 쌓고 거기에 3, 4개의 반달형 포문을 설치하고 포차에 실린 야전포 2문을 배치하는 공사를 9월 6일에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콜레라의 유행과 영친왕의 두진으로 ‘칭경예식’은 연기되었다.

의정부 찬정외부대신 서리 외부협판 최영하가 인천 감리 하상준에게 보낸 1902년 9월 15일자 훈령에 보면 “귀항 월미도 포대를 건설하고 각국 군함과 예포하여 응답포로 한성 각 영사에 알려 훈령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인천항에 드나드는 각국 군함과 예포를 발사하여 입출항에 응한다는 취지였다. 1905년에도 월미도 예포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국 귀빈들의 방문에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일제가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의 외교업무를 일본이 직접 담당함에 따라 1906년 8월 8일 통감부의 명령에 따라 폐쇄되었다.

인천에서 담배 제조의 시작



담배 광고

조선에서 수입담배는 이미 1900년 경 내륙지방의 소읍에서도 주요한 상품으로 거래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당시에 수입된 담배는 일본제가 다수를 차지하여, 기무라합명회사(木村合名會社)·무라이형제상회(村井兄弟商會) 등의 인천지점이 생겨났다. 특히 무라이형제상회 인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히로(HERO)는 담배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한국에 수입된 담배는 황성신문·독립신문·제국신문 등의 광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담배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때와 거의 동시에 외국의 자본은 자국의 담배를 수입·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에 연초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제조·판매하고자 하였다. 1896년 일본인이 경성에서 담배제조업에 전념한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주로 인천·부산 등의 거류지를 중심으로 대자본을 투자하여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시장을 확보해 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양연초회사와 제물포연초회사이다. 동양연초회사는 인천에 설립된 최초의 담배 회사로 그리스인 밴들러스 필립이 영국인과 합자하여 1902년 5월 자본금 3만원을 투자하여 빈정(濱町:사동)에 설립한 담배 제조·판매 회사였다. 이 회사는 얼마 후 지금의 파라다이스호텔 입구 부근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수입 담배에 밀려 고전하다 화재까지 발생해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지만, 지배인으로 있던 미국인 해밀턴이 인수해 인천연초회사(제물포지권련연초회사)로 영업을 이어갔다. 청국거류지에

있었던 이 회사에서는 원시경(遠視鏡)표, 거미표, 열쇠표 등의 이름이 붙은 담배를 하루 30만갑씩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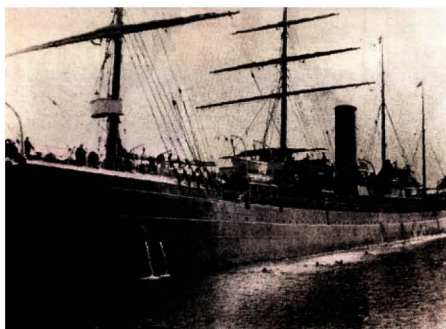
제물포연초회사는 1921년 연초전매법이 실시돼 전매국의 권련이 나오기까지 존속했다고 하나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 파라다이스 호텔 뒤편 언덕 아래 공장 같은 벽돌 창고 건물에 영문 글씨가 쓰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뒤에 일본인과 합자하여 인천연초·권련초회사(仁川煙草及卷煙草會社)로 바뀌어 영업하였다.

일본인은 담배제조의 절대적 우세하에 한국인의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었는데,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두었던 영미연초회사(The British American Tabaco Company)의 담배가 한국에서 판매되고 1906~7년에는 한국의 주요도시에 판매점을 설치하면서 일본 담배와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급기야 1908년 영미연초회사 인천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판매 하였다. 『인천상의 110년사』에 의하면 인천영미연초 공장은 30대의 기계를 갖추고 조선인 근로자 100여명이 일요일과 설날을 제외하고 쉬는 날이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갔는데 재고품이 없을 정도로 잘 팔렸다고 전한다. 이에 맞서 일본정부는 1909년 동아연초회사에게 특허권을 주어 경성에 대규모 연초공장을 설립하여 영미연초회사에 대항하였다.

1910년대 담배 생산액은 정미업 다음을 차지했고 직공 수도 제조업 가운데 가장 많을 정도로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하지만 1921년 조선총독부가 연초전매법을 시행하면서 인천산 담배는 자취를 감췄다.

한편 연초공장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사회적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의 노동쟁의는 특히 일본인 제조공장에서 두드러졌으며 다른 분야의 노동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항거의 표시가 3·1운동에 참여하는 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출발 하와이 이민



최초 이민선 갤릭호

1860년부터 시작된 한인의 해외 이주는 만주·러시아·미주 등지로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만주·러시아 등 한국과 인접한 지역 이주는 유이민(流移民)의 성격으로 공식 이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한국 최초의 정식이민은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하와이를 향해 인천 제물포를 출발한 데서 비롯된다. 이후 1905년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총 64회 7,400여 명의 이민이 계속되었다.

하와이에서는 19세기 초 사탕수수농업이 크게 발달하여 하와이 경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자체 노동력의 부족으로 거의 외국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와이 노동이민은 19세기 중반 중국인(1852)과 일본인(1868)에 이어 20세기 초 한인의 이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와이 이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 이민의 주선은 주한민국공사 알렌(H.N.Allen)이, 실제적인 업무총괄은 데של러(D.W.Deshler)가, 설득과 권유로 이민자들을 모집한 것은 존스(G.H.Jones)목사였다. 특히, 알



내리교회 교인과 존스 목사

렌의 추천으로 고종황제로부터 하와이 이민사업 책임자로 임명된 데של러는 알렌과 같은 미국 오하이오(Ohio)주 출신으로 은행가 집안의 후손이었는데, 일본 고베(神戸)에서 활동하다가 1896년 제물포로 건너와 사업을 모색하고 있던 25살의 젊은이였다. 그는 이민모집을 위해 내리교회 부근에 동서개발회사(East-West Development Company)와 이민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데실러은행(Deshler Bank)을 설립했다.

하와이 첫 이민단은 유민원 총재 민영환(閔泳煥) 명의의 집조(執照:여권)를 발급받고 겐카이마루[玄海丸]에 승선하여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를 출발하였다. 일본 나가사키에 들러 신체검사를 하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첫 이민선 깰릭호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였다. 여기서도 보건 당국의 검사를 거쳤는데 86명만이 상륙허가를 받고 오아후 섬 와이아루아(Waialua) 농장의 모쿨레이아(Mokuleia)캠ป์에서 본격적인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휴식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했다. 월급은 한 달에 17달러 정도였고 여자나 소년들은 하루에 50센트 정도였다. 그럼에도 한인 이민자들은 낯선 환경과 고된 노동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을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무엇보다 자녀교육에 진력하여 한인학교를 곳곳에 설립하고 한글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국권회복과 조국의 일을 심어주려 했다. 그 정신의 구현이 인천에 인하대학을 설립하는 것에도 반영되었다.

인천(仁川)과 하와이(荷哇伊)의 첫 자를 따서 ‘인하(仁荷)대학교’의 교명이 탄생했듯이 인하대학교의 설립자금에는 하와이 교포들이 보낸 하와이 한인 기독교학원(1918) 부지 매각대금(15만 달러)과 정부의 지원금(100만 달러) 및 시민들의 성금이 포함된 것이었다.

인하대학교의 설립이 초기 이민자들의 정신적 귀환을 담은 것이라면,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 2008년 6월 13일 인천 월미도에 개관한 ‘한국 이민사박물관’은 오늘을 사는 이민의 후손과 국내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한 민족공동체의 실제적인 귀환을 구현하고 있다.

밤 바다의 길잡이 팔미도 등대



팔미도 옛등대

이 땅에 근대의 빛을 비로소 비추기 시작한 곳은 인천이다. 쇄국의 어둡어둡한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 있던 섬 팔미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것은 1903년 6월1일.

조선 정부가 인천에 ‘해관 등대국(海關 燈臺局)’을 설치한 지 1년여 만에 이룬 일로 우리 해양사(海洋史)의 쾌거이자 신기원이었다. 당시 그 같은 기기(機器)를 제작할 만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 축적이 없었던 등대국은 서울 덕수궁 석조전을 설계한 영국인 하딩(J. R. Harding)에게 부설과 관리를 자문하였고, 등명기(燈明機)는 프랑스 조명 기계를 수입해 설치했다.

팔미도(八尾島)는 인천항 남쪽 바다로부터 8.5해리(15.7km) 떨어진 섬으로, 면적 0.076km²에 해안선 길이가 1.4k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서남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해상교통 흐름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항이래의 인천 역사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섬의 남쪽과 북쪽이 모래와 자갈로 연결되어 마치 “여덟 팔(八)자 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다고 해서 팔미도라 불려졌는데, ‘팔산(八山)’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하여 해질 무렵 이 곳을 돌아드는 돛단배의 자취가 아름다워 예전부터 ‘인천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해상 경승지였다.

1883년 인천의 개항과 함께 일본과 서구 열강은 우리나라 연안에 등대 설비가 없어 자국 함선의 운항이 어렵게 되고 상선의 해난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주요 항로와 항만의 수로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등대의 건설을 강요했다. 서양식 등대의 설치에 조선에 진출한 외국 선박의 보호를 위한 사실상

의 강압적 조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천항 관세수입의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1902년 5월부터 등대 건설에 착수했다. 한국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는 이렇게 탄생했고 1903년 6월 1일 드디어 점등하기에 이르렀다.

해발고도 71m의 팔미도 꼭대기에 세워진 등대는 높이 7.9m 지름 약 2m로, 등명기는 당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회사의 기술을 도입한 전기 회전식 6등급이었다. 불빛은 10km 밖에서도 식별할 수 있어, 인천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건축재료는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는 콘크리트와 대리석으로, 해양건축의 효시라는 등의 측면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2002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었다.

1904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일본함대사령관의 최후통첩을 받은 러시아 군함의 두 함장은 협의 끝에 교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월미도 부근에 정박 중이던 두 군함은 닻을 거두고 일본함대가 대기 중인 팔미도를 향하여 항진하였으며 팔미도 부근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다. 양측의 군함들은 약 40분간 포격전을 벌였는데 러시아 군함들은 큰 손상을 입고 패주하여 다시 소월미도 부근으로 들어와 정박하였다. 일본군함들에게 포위된 러시아 군함들은 일본군에게 함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항복하지 않고 오후 4시경 코레츠호가 먼저 자폭하고 이어서 5시경 와리야크호가 자폭하였다. 앞서 8일에 상해로부터 입항하였던 동청철도공사 소속 기선 송가리(Sungari)호도 자폭하여 모두 3척의 러시아 선박들이 인천항 부근에서 자침하였던 것이다.

1950년 6·25전쟁은 초반부터 국군의 열세로 전개되었다. 이 해 8월 말, 북한 인민군은 거의 모든 전투역량을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고 있었다. 국제연합군은 인민군의 허리를 절단하여 섬멸한다는 계획 아래 그 첫 작전으로



케로부대 기념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그러기위해서는 당시 인민군 수중에 있던 팔미도등대를 탈환·점령해야만 했다. 팔미도는 상륙작전에 나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엔군 함정이 통과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충이었고, 인천지역은 조수(潮水), 수로(水路), 암초 등 해안조건이 상륙작전에 많은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등대의 안내 없이 야간 상륙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다.

팔미도 등대 탈환작전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 교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미 정보처 산하 대북공작 첩보부대 켈로부대 부대원과 미군으로 구성된 한미 연합 특공대가 5시간의 사투 끝에 이루어졌고, 마침내 9월 15일 오전 1시 50분 팔미도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었다. 7만 5천 명의 병력을 실은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 7개국 261척의 연합함대가 철흑 속에 점등하기 시작한 팔미도 등대불을 안내삼아 영흥도와 무의도 사이의 해로를 타고 인천 해안으로 밀려들었고, 대대적인 함포 사격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은 16일 오전 1시 30분 종료되었다.

또 반세기가 흘러 2003년 12월 팔미도등대는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팔미도100주년기념등대

100주년 기념 상징 조형물인 ‘천년의 빛’으로 교체되면서 그간 100년의 풍파를 견뎌내며 해상 안전에 한 몫을 했던 그 임무를 새 등대에게 맡기고 영구보존하게 되었다. 새 등대는 전망대와 등탑을 갖춘 높이 31m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의 시설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기상관측과 연안 해양관측의 업무까지 맡아보고 있다. 그리고 2009년 팔미도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그 오랜 세월 인천의 수문장으로의 역할을 마치고 평화기원의 첫 발을 내 던지게 된 것이다.

민간이 세운 제녕학교



제녕학교 설립을 주도한 인천신상협회의 장정(章程)

1903년 6월 설립된 제녕학교(濟寧學校)는 인천 최초로 민간인이 경영하는 학교였다. 1892년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인 영화학당이 인천에 설립된 바 있으나 내리교회 내에 설립된 종교계 학교였고,

1895년 6월 인천에 설립된 관립외국어학교(官立外國語學校)는 한성외국어학교(漢城外國語學校)의 지교(支校)로 설립된 공립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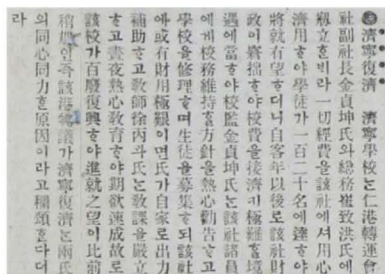
제녕학교 설립은 인천의 유지 서상빈(徐相彬)이 주도하였고, 김정근(金貞坤)이 도움을 주었다. 인천 태생의 서상빈은 성균관 진사(進士)에 오른 인물로, 인천 개항 후에는 부내면장(府內面長)을 지냈다. 1889년 개항 초기에 인천감리를 지낸 서상집(徐相集)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상인단체이자 상공회의소의 전신인 인천신상협회(仁川紳商會社)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했다. 그는 인천이 국제 무역항이자 서울의 관문인 산업 도시라는 것을 알고, 인천의 일꾼에게 신학문과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였으나 학교가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였다. 때마침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군함 바리야크 호를 인양하여 거액을 번 김정근이 제녕학교 설립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 이와 같이 제녕학교 설립에는 인천신상협회와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았다. 특히 민족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상협회가 애국계몽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1903년 6월, 내동 강응원 양조장 자리 근처에 초가 30여 평의 학교 건물을 건립하였다. 신식 건물이 아닌 초가의 형태였고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으나 개교 당시 다른 학교들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개교식에는 학부대신 이재곤(李載崑) 등 정부 요인

이 다수 참석하였다.

교사는 관립외국어학교 교관들과 인천해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맡았다. 제녕학교는 주간 수업인 주학(晝學)과 야간 수업인 야학(夜學)이 있었다. 주학에는 관립외국어학교 교관들이, 야학에는 인천해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신학문과 영어를 가르쳤다. 당시 인천해관에는 영국인 세무사 밑에 조선인 관리가 30여 명이 있었다. 수석교사는 서병희, 교무는 관립외국어학교 교감을 겸임하고 있던 서병협, 강사로 강준, 장기빈, 이학인, 이용인 등이 활동하였다.

제녕학교는 학생이 120명에 달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개교한 지 얼마 못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1904년 관립외국어학교가 관립일어학교로 바뀌면서 영어 수업이 금지되었고,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던 제녕학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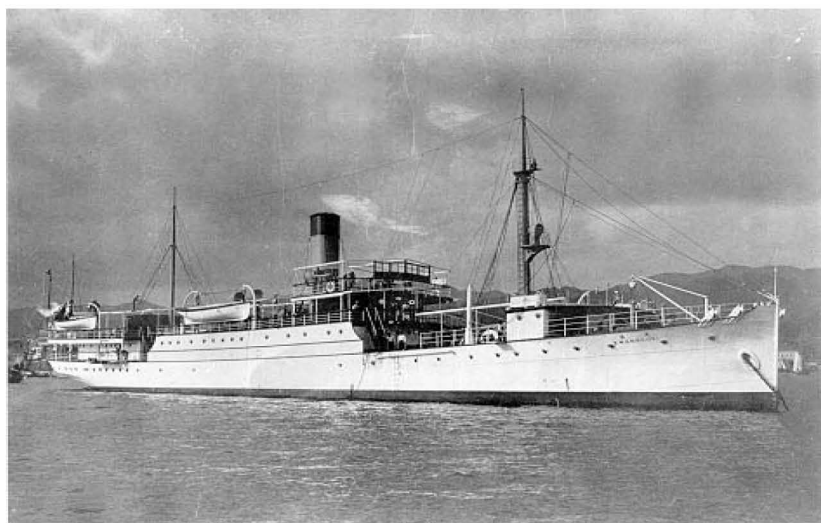


폐교 직전 제녕학교 기사
(황성신문, 1907. 3. 5)

야학 역시 일본어만 가르치게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일본이 독세함으로써 인천해관에 근무하던 영국인 세무사는 추방되었다. 또한 학교 운영 경비를 일절 제공하고 있었던 인항전운회사(仁港轉運會社)가 1906년 이후로 회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교비를 마련하기 어

려운 지경에 봉착하였다. 인항전운회사의 부사장 김정곤이 당시 제녕학교의 교감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전 사원에게 학교를 유지할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사재를 내어 학교를 운영하였다. 덕분에 학교가 활성화되는 듯 하였으나 결국 1907년 6월 1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에 통합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무선 시설을 갖춘 광제호



광제호

양무호 문제가 비등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새로운 군함 발주 계획에 의거하여 일본 코베조선소에 전장 220척(66.7m), 너비 30척, 선심 21척, 화물적재량 540톤, 총톤수 1,056톤급 광제호를 주문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조(新造) 발주선인 광제호는 해관(海關)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의 발의에 따른 것으로, 인천해관의 관세수입자금으로 건조코자 하였고 건조계약 당시의 선주도 대한제국 해관이었다. 당시 최신의 조선기술로 제작되고 또 무선전신시설이 설치되어 월미도 무선통신소간의 전파통신이 가능했다.

양무호와 함께 이듬해 서해안 경비를 위해 만들어진 ‘광제호’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군함으로 무선전신시설이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이었다. 광제호는 전장 약 73m(220척), 너비 약 10m(30척), 선심 약 7m(21척), 화물적재량 540톤, 총톤수 1,056톤으로 해안경비, 등대 순시 및 세관 감시에 이용되었다.

광제호는 자체 시운전을 거쳐 1904년 12월 20일 대한제국 정부에 인도되

었다. 정부는 광제호가 인천항에 도착하자 3인치 포 3문을 장착하여 해안 경비함, 등대 순시선 및 세관 감시선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광제호의 도입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육군편제로만 구성되어 있던 15군부를 개편하고 군함 확보에 따른 근대식 해군편제를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를 강화하였으나, 해관 소속의 기선이었던 만큼 총세무사 브라운이 이 배를 들여와 마치 자기의 개인요트처럼 사용했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 한국정부의 고관들이 인천에 내려와 이 배에서 연회를 베풀기도 했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조약을 통해 한국통감부가 설치된 뒤 해관의 관리권도 일본인으로 독점됨에 따라 광제호는 해군 군함으로서의 사명은 끝이 났고 사실상 그네들의 ‘관용선’으로 줄곧 차출되어 연안세관 감시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09년 봄에 소네 아라스케 부통감이 북간도(北間島)와 울릉도 일대를 시찰하기 위해 부산항을 출발하여 동해안을 거슬러 올라간 것도, 그리고 이 해 가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에 장춘으로 급파된 일본인 검사장을 태우고 대련(大連)으로 내달린 것도 모두가 ‘광제호’였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공식적으로 인천항로표지관리소 즉 예전의 등대국(燈臺局) 소속이었던 광제호는 조선총독부 통신국으로 이관되어 총독부의 관용선이 되었으며, 그 이름마저 광제호가 아니라 ‘광제환(光濟丸, 코사이마루)’으로 바뀌었고, 1912년 조선우식주식회사로 넘어가 상선으로 이용되었으며 인천 해원양성소 실습선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석탄운송선으로 전락했다가 광복을 계기로 일본으로 철수하여 우리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민족계 은행지점 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과 미두취인소

우리 나라에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이 설치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한달 후인 1876년 3월 일본 제1은행 은행장이었던 시부자와 에이치(澁澤榮一)가 부산에 사설 은행을

설립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1878년 3월 이 은행은 일본 제1국립은행에 인계되어 제1국립은행 부산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개항 이후 수출입 무역의 급격한 성장은 전통 금융업과는 상이한 형태의 근대적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요구하였는데, 일본 제1은행은 풍부한 자금력과 선발주자로서의 이점이 있어 개항기 조선의 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1883년 조선 해관세의 취급권을 장악하고, 일본상인의 증가와 거래량의 증가에 따라 1888년 9월 인천출장소를 인천지점으로 승격하였다. 동년 10월에는 서울에 인천지점 서울출장소를 개설하였다.

1890년 10월 일본 18은행은 인천에 최초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제18은행이 그 지점을 인천에 설치하게 되었던 이유는 일본의 대한경제침략의 거점이 부산에서 인천으로 옮겨짐에 따른 무역량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 규슈·나가사키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일본상인들은 상해에 수입되었던 영국 면직물을 다시 수입하여 그것을 한국시장에 다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영위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나가사키 상인들의 업무가 변창함에 따라 나가사키에 지점을 두고 있었던 제18은행의 지점을 대한 수출무역(對韓輸出貿易)의 중심지였던 인천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1892년 7월에는 일본 58은행이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58은행은 1878년 일본 오사카에 설립한 은행으로, 은행장이 조선 정부의 화폐제도 개혁을 위한 고문으로 초빙되어 온 인연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인천 전환국(典圀局)에서 주도되는 신화폐와 구화폐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18·58은행은 양국에서 송부한 상품대금의 결제를 위한 하환(荷換)어음을 인수하여 조선-일본 간의 무역금융에도 주력하였다.

일본계 은행 이외에도 구미의 은행이 들어와 영업을 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홍콩상하이은행(香港上海銀行)과 한러은행이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영국선박회사 홈링거회사가 홍콩상하이은행의 대리점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대리점이 인천에 다시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러은행은 1898년 3월 1일 서울의 러시아 공사관 안에 제일동아(第一東亞) 지점으로 개설됐는데, 본점은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에 있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중국, 영국 및 미국 상인들을 대상으로 송금업무를 담당하여 그 활동범위는 매우 좁았다.



상업은행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은행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갑오개혁 이후 민족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조선의 민족은행이 설립된 것은 1896년 조선은행이 효시이다. 조선은행은 이

후 독립협회를 주도한 고위 관료와 그들과 협력관계에 있던 서울의 상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정부재정기관으로서 전국 조세금의 취급권을 갖고자 하였고, 탁지부의 국고금을 예치하기도 하였으나 1899년 한흥은행으로 개칭되어 유지하다가 1901년 폐점하였다. 뒤이어 1897년 2월 인가된 한성은행(漢城銀行: 후일 1943년 동일은행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으로 개칭)은

정부발행 환표 등의 매입과 화폐 교환, 금·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 등을 하였으나 영업부진에 빠지고 말았다.

1899년 1월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1911년 조선상업은행, 광복 후 상업은행으로 개칭)이 설립되었다. 당시 대한천일은행이 탁지부대신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보면 ‘화폐융통(貨幣融通)은 상무흥왕(商務興旺)의 본(本)’을 창립이념으로 삼았고, 민족자본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조선사람 이외에는 대한천일은행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외세로부터 은행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은행명 또한 당시 일본 제1은행을 의식해 ‘하늘 아래 첫 번째 은행’이라는 대한천일은행이라 명명하였다.

당시 대한천일은행은 일본 자본의 증가와 함께 일본은행 설립으로 외국 금융침투가 심각해지자 서울의 유력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하고 고종의 윤허를 얻어 황실의 내탕금까지 지원받아 설립한 순수 민족은행이었다. 따라서 대한천일은행에 대한 황실의 지원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였으며, 일반은행의 역할과 함께 황실은행 내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어 1899년 5월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을 개설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지점 개설은행이 되었고, 각 군의 조세금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1890년대에 설립된 대부분의 민족은행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대한천일은행만은 민족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자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경인철도 사이다 광고

사이다는 원래 유럽에서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성 음료를 말한다. 미국 등지에서는 사이다를 레몬라임 음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통용 되는 ‘사이다’라는 명칭은 1853년 영국 해군에 의해 처음 전래 되었을 때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6도의 사과술이었다고 한다. 그 후에 점점 도수가 낮아져 무알콜 음료로 바뀌었지만 오늘날의 톡톡 쏘는 시원한 탄산사이다와는 거리가 있었다. 1868년에 영국인 노즈 안드레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여러 향료를 사용한 ‘삼페인 사이다’라는 이름의 제품을 개발 하였는데 이때 붙여진 탄산음료 이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사이다’라는 이름이 탄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다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 된다. 전국을 통틀어 그 제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따라올 곳이 없



사이다 광고

었다고 한다. 1905년 2월 일본인 히라야마 마츠타로(平山松太郎)가 인천탄산수제조소를 신흥동 해광사 인근에서 창업하며 출발했는데, 미국식 제조기와 5마력짜리 발동기를 사용해 사이다를 생산했다고 한다. 그 뒤 1910년 5월 나카야마 우노키치(中山宇之吉)가 같은 동네에 ‘라무네제조소’를 창업했다. 인천탄산수제조소는 ‘별표(星印) 사이다’와 ‘라무네’ 라무네제조소는 ‘라이온’과 ‘헬스표’라는 상표로 사이다를 판매했다.

당시의 사정을 신태범(愼兌範)은 『개항 후의 인천 풍경』에서 “일본인이 라무네라는 싸구려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 빙수밖에 없던 여름철에 시원한 마실거리를 선보였다. 병은 그대로 내놓고 3전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사이다는 이산화탄소를 포함 하고 있어서 톡 쏘는 맛이 상쾌하고 산뜻하여 인기 절정이었다. 당시 경인철도 차량에도 ‘대형사이다 광고판’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광복 후에는 ‘인천탄산’의 후신인 ‘경인합동음료(주)’를 불하 맡은 손옥래



경인음료의 광고

(孫旭來)가 ‘스타 사이다’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무렵 전국 12개 업체 중 인천의 ‘스타 사이다’와 평양의 ‘금강 사이다’는 단연 독보적 존재였다. 그러나 1950년 5월 9일 서울서 ‘칠성사이다’가 출시되는 바람에 판도가 바뀌긴 했지만, 인천에서 만들어진 ‘스타사이다’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가 없으면 못마십니다~”라는 만담 노래가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라뱃길을 만든 경인운하 계획



경인아라뱃길 조감도

2012년 5월 25일, 인천 오류동과 서울 개화동을 잇는 총 길이 18km, 폭 80m의 대수로가 여러 사람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개통되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경인운하’ 사업이 제시된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였다. 이토록 운하 건설에 긴 시일이 걸린 것은 환경단체의 반발과 경제적 실효성 의문으로 몇 차례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 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고려 고종대 처음 시도한 김포굴포(金浦堀浦) 개착 이후 800년 만에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인아라뱃길’은 그 물길은 물론, 사업의 목적에서도 김포굴포와는 다르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이래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경인운하’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경인간에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1905년 대한제국정부의 재정고문인 메가다(目賀田)를 통해 처음 나왔다. 그는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으로부터 총 150만 엔의 차관을 도입하여 경인운하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경인철도가 완공된 이후이지만 곡물과 어염(魚鹽) 등의 화물은 여전히 값싼 운임을 지닌 선박을 이용하는 것



경인운하계획도
(매일신보, 1939. 4. 22)

이 유리했기 때문에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이때의 운하건설은 과거 전통시대처럼 단순히 항로의 개설에만 목표를 둔 것이 아니었다. 한강의 수해방지를 위한 방수로 건설과 이에 따른 수리시설 개선, 교통망의 확충, 매립지 확보를 위한 토사 채취 등 산업적 목표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1921년 마츠무라 공무소(松村公務所)는 한강수해의 근본대책으로 경인운하의 건설을 제안하고, 이

에 따라 자본금 6만 엔으로 ‘사단법인 경인운하개착기성회(京仁運河開鑿期成會)’가 설립되어 사업의 범위와 형식, 방법 및 예산 등을 조사하였다.

당시 경인운하의 필요성 중에서 가장 중시된 사항은 방수로 건설이었다. 일제강점기 한강유역의 홍수피해는 1920년, 1925년, 1930년, 1936년, 1940년에 극심하였는데, 특히 ‘을축년 대홍수’로 기록되는 1925년에는 7월 16~18일 간에 서울·경기 300~500mm, 파주엔 무려 6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사망자가 647명, 그리고 1억 300만 엔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처럼 홍수피해가 컸던 까닭은 한강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김포와 파주를 거쳐 개풍, 강화로 갈라지는 복잡한 ‘S’자의 곡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수로 건설에도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좀 더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킬 만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방수로를 겸한 운하의 건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경인운하의 건설 계획은 대공황의 여파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잠잠하던 경인운하의 건설 계획은 1930년대 후반, 인천항 북부의 제

2차 축항과 경인공업지대 건설로 다시 촉발되었다. 즉, 경인운하가 대륙과 인천, 그리고 서울을 연결하는 일체의 병참기지화정책, 소위 ‘경인일체시가 지계획(京仁一體市街地計劃)’의 일환으로 다시 추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30년대 후반 경인운하는 공업운하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김포 공암리(孔巖里)부터 인천 영종도 앞 매립예정지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하로 건설하는데, 운하의 좌우편 연안에는 용수를 공급하여 공업지대를 건설하고, 그 전력은 함께 계획된 강화도조력발전소에서 얻는다는 것이다. 갑문(閘門)은 경성, 인천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하고, 최대 1천t 급의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록 폭 80m, 수심 5~6m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그 계획을 추진하는 주체들 간에 이해대립을 표출하면서 끝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운하계획의 설립과 추진에도 총독부, 경성부, 인천부 등이 관여하며 서로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노출하였다.

인천부는 처음 총독부의 경인운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제2축항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운하 건설 기성회를 조직하고 총독부안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하(김포운하)의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인천부의 안은 경인시가지계획에 영등포를 중심으로 하는 광대한 공업지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종래 계획을 변경하여 김포군 장기리(場基里)부터 검단면 안동포(安東浦) 간 10km 구간을 운하로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안동포항을 인천항의 보조항구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광대한 계획은 수차 논의되기만 했을 뿐 총독부와 경성부, 인천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그 자금출처를 두고 서로 미루는 상황만 지속되다가 결국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등 전국이 전시하 통제경제체제로 변화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원통이 고개에서 막힌 굴포(堀浦) 개착(開鑿)의 꿈



기전도(畿甸圖) 19세기 전반에 나타난 조운로와 굴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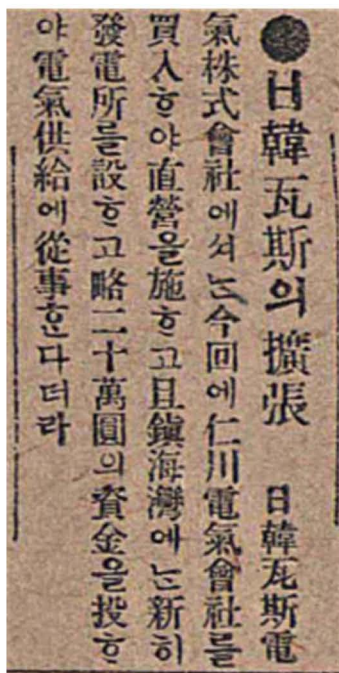
굴포천을 개착하여 운하로 만들려는 계획은 이미 800여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집산된 세곡(稅穀) 등의 화물이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해협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곳의 ‘손돌목[孫豆頂]’은 빠른 조류와 암초 등으로 인해 항행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최고의 협초치 중의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곳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손돌목을 경유하지 않는 다른 항로를 찾아야 했고, 이 속에서 인공적인 운하를 개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포굴포는 무신정권시대의 권력자 최이(崔怡)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그는 운하 굴착을 위해 사람을 보내어 부평 땅의 지세를 보게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으나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지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후 조선 중종대(1506~1545)에 김안로(金安老)도 굴포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최이나 김안로의 굴포작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척상황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1797년(정조 21) 8월 정조가 김포 장릉을 참배한 후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인견하면서 “예전에 듣건대 김안로가 40리에 조수를 통하려

고 원통현(圓通峴)까지 이르러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만년 공호(拱護)해야 할 땅인데 어찌 인력을 들여서 착파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김안로의 굴포작업이 원통현(간석동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경인 국도 고개)까지 이르러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포(直浦)’, ‘대교천(大橋川)’, ‘북포(北浦)’ 등으로도 불리었던 굴포천(掘浦川)은 부평구 만월산에서 발원하여 부평평야를 통과한 후,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한강과 합류하는 총 길이 17.8km의 하천이다. 이름이 ‘흙을 파낸 하천’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굴포천은 한강까지 통수가 잘 되도록 인공으로 깊이 뚫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벌말을 통과하는 굴포천의 다른 이름인 ‘직포(直浦)’도 인위적으로 물길을 잡았음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또한 “40리에 조수를 통하려고”라는 정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안로의 굴포 작업은 원통현 서쪽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변직이 나루(인천교)에서 주안을 거쳐 약사사(藥師寺) 앞 원통현까지 이르던 과거의 주안 염전수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가 아니라 김안로의 굴포지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상에서 볼 때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서해의 인천교(당시는 부평 땅)쪽과 김포의 한강 쪽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원통현까지 이르렀으나 그 개착에 실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대낮처럼 밤을 밝힌 인천전기(주)



《매일신보》 1912, 5, 4

인천에서 전기 사업은 1905년 6월 각국 외국인이 모여 공동 출자한 인천전기주식회사가 시초이다. 주주 총인원 79명 중에서 일본인 18명, 서구인 13명, 청국인 8명이었다. 자본금 12만 5천 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1906년 인천이사청의 특허를 얻고 지금의 중구 송월동 2가 한국전력 인천지점 창고 자리에 발전소를 차렸다. 직류발전기 2대, 100kW 규모의 화력발전이었다.

인천전기가 영업을 개시한 것은 1906년 4월이었는데, 당시는 러일전쟁 이후의 호황기였기에 전등 수요도 폭증하였다. 1906년말 2,934개였던 등(燈)이 1907년에는 4,083개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1907년

몇 차례의 화재,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전기료의 체납 등이 계속돼 1912년 7월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日韓瓦斯電氣株式會社)에 22만 5천 원에 매각되었다. 일한와사(日韓瓦斯)가 인천전기를 매수한 이유는, 경인간의 석탄 운임이 탄가(炭價)의 약 2할을 차지한다는 원가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전기를 매수하여 동시에 1,000kW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일부는 인천에 공급하고 그 태반을 경성에 송전한다면 원가가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었다. 이후 일한와사전기주식회사는 1915년 경성전기주식회사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1922년 7월에는 인천 발전을 폐기하고 거꾸로 서울 용산에서 인천으로 송전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1931년 기준으로, 전등 수요 호수는 8,943호(戶), 전등설치 수는 30,883등(燈)인데 이를 10축으로 환산하면 61,122등에 해당한다. 또한 동

력 수요 호수는 158호, 전동기 설치 대수는 199대로 모두 2,719마력을 공급했다. 주요 사용자는 정미업, 철공업, 인쇄업, 제분업, 제면업, 음료수 제조업 등이었다.

1930년대 전기료는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그에 따라 도전(盜電)이 빈번했다는 신문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仁川電氣의 盜電이頻頻
 【인천】 지난 4월 밤 인천부송현리(仁川府松峴里) 일대에 약 2시간 동안이나 정전 소동이 잇었는 데 그 원인은 예비하류었는 기름(油)의 기름이 예상 이전에 예상 이전에 발근것은 도전이 심한데잇다하여 경성전기 주식회사 인천지점(京城電氣株式會社仁川支店)에서는 추동원으로 도전자를 조사하고중이라 한다.
 송현리 일대는 비미물인만치 다수의 도전자와 발각될예상이라한다.

《동아일보》 1933.12.8



인천전기

해안가에 즐비했던 붉은 벽돌 쌀 창고



제물포항 곡물 계량 모습

현대적인 창고 업무의 시작은 1905년 9월 6일에 ‘공동창고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자본금 15만 원으로 창립한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가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1904년 10월 카타(賀田種太郎)가 한국정부 재정고문으로 파견될 시점에서 화폐제도의 개혁이 가장 시급했다. 1905년 7월 화폐의 교환이 시장되면서 종래의 종로 상인들과 민간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편의 금융을 위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게 되며 공동창고주식회사가 건립되었다.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는 상인에게서 상품을 기탁 받고 보관하는 증서를 발행했으며 상품담보의 대출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06년 인천과 강경 등지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해 창고 업무를 확대했다. 인천 창고 영업은 이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인천출장소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대적 공동창고조례에 따른 창고 업무는 어디까지나 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과도기적인 기관

으로 설치돼 이용됐다.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인천출장소는 1912년 천일은행을 합병하고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해 인천출장소가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이 됐다. 이 지점에서는 일반 은행 업무는 종전대로 하면서 창고업도 겸했다.

1918년 10월 갑문과 독이 완성돼 내외출입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창고 영업이 활황을 이뤘다. 실례로 1919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한 인천창고주식회사는 개업한 지 2개월 만에 창업비용을 모두 상환했을 정도였다.



창고하역

1915년 4월23일자 『매일신보』에도 ‘근래의 신기록을 파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릴 정도로 활황이었다.

아트플랫폼으로 변신한 쌀 창고

인천아트플랫폼이 있는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지어진 건축물과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이 건축물들은 당시의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이 일대는 건축조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여 탄생한 공간이다.

정오를 알리는 소포



오포

오포(午砲)는 포(砲)를 사용하여 정오(正午)를 알리는 것을 가리킨다. 일종에 정오의 시보(時報: time signal)이다. 특정 시각을 알리는 일은 개인용 시계가 없던 시기에는 오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사회·경제

동에 표준시간의 유무에 따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인천부사』(1933년)에는 오포와 관련하여 두 건의 내용이 있다. 하나는 1887년 일본영사가 일본 외무차관에게 오포의 필요성에 대해 공신(公信)한 것이다. 인천 거주 일본인들은 매주 토요일 정오에 포를 발사해 줄 것을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자국의 청취함(淸輝艦) 함장에게 건의하며 일본 해군성에 조회해 줄 것과 앞으로 인천항에 정박할 함정들도 오포를 발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종래에 오포가 존재했지만 시보를 알리는 데 부정확해서 일본거류민회에서 육군성에 오포설치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산포(山砲)와 부속품은 1906년 2월 7일에 도착하여 2~3발을 시험 발사한 후 응봉산에 설치되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時報)는 1906년 2월 9일 시작되었는데 이날은 일본이 제물포해전에서 승리한 후 제정한 ‘인천시민의 날’이기도 하였다. 관측소 남쪽 언덕에 구식 대포를 설치하고 공포(空砲)를 쏘아 인천 사람들에게 정오를 알렸는데, 매일 낮 12시 정각이면 한 번씩 공포를 쏘았던 탓에 관측소가 있던 응봉산은 ‘오포산(午砲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오포는 1931년 7월 1일 홍예문 위 인천상비소방소 감시탑에서 사이렌으로 대체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인천석금』에는 “1908년경에 일본인의 인천거류민단은 관측소에 인천 시보를 위촉했으니 관측소에서는 지금처럼 사이렌이 없고 자기들 부락이 부근에 집결하였기 때문에 포성으로 때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였던지 응봉현 산허리에 대포를 걸어 실탄 없는 방포로 정오를 알리게 한 것이 인천 시보인 오포의 효시”라 하고 있다.



응봉산의 사이렌 탑

이때 사용했던 대포가 폐물에 가까웠기에 고장이 나는 일이 흔했다. 게다가 오포수(午砲手)는 단순 고용인들이었기에 큰 사고가 나기도 했다. 오포수였던 가등(加藤)이란 자가 오포를 쏘으나 터지지 않자 대포 구멍을 수리하던 중에 대포가 터졌다. 그에 따라 그의 왼편 손가락 다섯이 모두 없어지고, 오른편 손가락은 단지 두 개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흔히 화평동 조막손이라는 전당포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인을 위한 인천공립보통학교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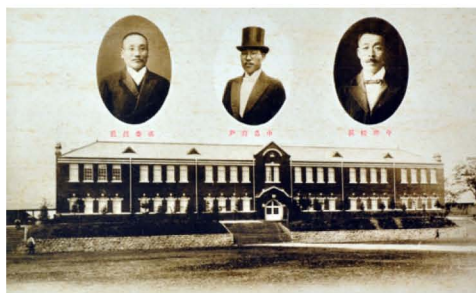
인천공립보통학교는 창영초등학교의 옛날 이름이다. 이 학교는 일본인 교사 1명과 한국인 부교사 1명을 교원으로 임명하고, 1907년 5월 6일 인천일어학교 교실 1칸을 빌려 3명의 학생을 모집해 개교하였다. 교장은 인천부윤이 겸했다.

원래는 운영난을 겪고 있었던 인천객주조합에서 설립한 용동의 제령학교의 건물과 교원, 학생 전원으로 학교를 개교하려고 했으나, 학교의 위치와 건물이 새 학교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교사(校舍)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인천일어학교의 한 교실을 빌려 사용였으나, 그 해 6월에는 제령학교 학생 74명을 받아들이고, 계속 학생이 늘어나 12월 20일에 우각현(현 창영동)에 목조 건물 1동을 세워 이전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만 5세로부터 25살까지로 나이차가 많았으며, 학력 차도 심했기 때문에 1, 2학년 2개 학급으로 나누어 오전 오후 2부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1910년 3월 26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18명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는 4년제 과정이었으나, 나이 많고 학력이 높은 학생이 2학년으로 입학하여 특별히 3개년 수업과정을 마친 것이다. 1912년에는 학생수가 348명(남 325명, 여 23명), 총 6학급이었고, 여자학급을 따로 편성하였다. 1913년 12월 1일에 인명학교까지 인수하며 건물을 뜯어다가 기존 건물에 이어 붙여 교사를 확장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부설 통폐합, 학교 이름 변경 등의 변화를 거듭하다가 1936년 10월 1일에 인천창영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며 지금의 창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창영초등학교축성식(1907)

1946년 7월 1일 남자 143명, 여자 123명 총 266명의 졸업생을 해방 후 첫(통산 36회) 배출하며 초등교육을 담당했으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27일 임시 휴교했다가 수복이 되면서 경기도경찰국이 사용하던 교사를 다시 찾아

학교를 열게 되었다. 1953년에는 학생 수가 총 3천 52명에 달했다.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인천공립보통학교 주변에는 최초의 서구식 초등학교기관인 영화학교와 고서점 거리가 자리하여 이 일대는 인천지역 교육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천 3·1 독립만세운동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창영초등학교 내에는 1995년 3월 6일에 총동창회에서 세운 ‘인천지역 발상지’기념비가 있다. 구 교사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창영초등학교 출신 인물

창영 출신 인물로는 인천 언론계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고일(6회 · 1903~1975), 인천 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현 고유섭(9회 · 1905~1944),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틀을 세운 전 대법원장 조진만(10회 · 1903~1979), 전 서울대 총장 신태환(18회 · 1912~1993), 제11대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은하(28회 · 1923~2003),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부하들을 살리고 장렬히 산화한 소령 강재구(40회 · 1937~1965) 등이 있다.

천일염의 원조 주안염전



주안염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은 해수(海水)를 끓여서 만든 자염(煮鹽)으로 화염(火鹽), 전오염(煎熬鹽), 육염(陸鹽)이라고도 하였다. 소금을 생산하던 염장(鹽場)은 바다와 인접한 갯벌에서 농도가 짙은 소금물을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했고 조성된 잔물을 솔에 넣고 달여서 제염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떨어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반면 자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일 동안 쉬지 않고 끓여야 하는 속성으로 인해 연료비나 인건비 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소금의 수요가 증가해 갔고, 그에 따라 제염지도 확대되어 갔다. 특히 소금에 절인 어물(魚物)의 소비가 증가하여 외국산 소금도 유입되고 있었다. 일본상인이 일본 소금을 처음으로 수입한 시기는 1885년으로 이후 1890년대 말까지 일본 소금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지만, 조선인은 조선 소금의 소비에 익숙해 있었고 외국 제품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어 수입된 일본염의 판매는 순조롭지 못했다.

청국산 소금은 1898년을 기점으로 수입되고 1903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

대 보급되었는데 이로부터 국내 제염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청국의 소금은 천일염이고 일본염과 조선염은 자염이었기 때문에 조선 소금의 반액 정도의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국의 천일염은 비록 가격은 저렴하였다 하더라도 제염 기술수준이 낮았고 소금밭이 굽어 식용으로 쓰기가 어려웠으며 검은 빛깔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염과 비슷하게 가공하지 않고는 조선인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인천에서는 이를 다시 제조하는 재제염(再製鹽)이 크게 부흥하였는데, 재제염은 입자가 큰 청국 소금을 다시 녹여 깨끗하고 입자가 모래처럼 고운 백색 소금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일상적인 식생활에 뿌리를 내리면서 1908년부터 인천에 재제염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대규모의 군사비용과 재정지출이 커지자 식민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매제도를 강화시켜 재원확보에 주력하였지만, 당시 청에서 밀려오는 값싼 천일염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 내에 천일염전을 구축하여 관염(官鹽)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 판단하였다.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압도적인 생산량을 보여주는 천일염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전매체제로 통제하여 엄청난 수입을 올리려 했던 것이다. 게다가 갯벌의 땅은 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천일염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금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식품으로 고대국가의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제물로 이용되었고, 로마시대에는 군인의 급료이기도 했다. 봉급받는 직장인을 일컫는 ‘salary man’의 어원이 소금인 salt에서 유래된 것을 보면 소금의 사회경제사적인 의미가 컸음을 알 수가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독점적인 전매제도를 채택한 이유가 되었다.



주안염전 채염

1907년 일본 대장성의 조사와 자문에 기초하여 인천의 주안면 심정리에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최초로 시험용 염전 1정보를 축조하였는데, 중국이나 대만보다 양호한 천일염이 생산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190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천일염이 생산된 것으로 인천은 지형·기후·토질 면에서 천해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거대한 배후 시장이 있어 경인철도를 통해 신속한 물류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이었다. 또한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의 반출을 손쉽게 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주안염전은 지금의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심정동 일대의 지역으로, 이 염전의 성공적 사례를 계기로 이후 인천 일대의 염전은 제1기(1907~1914) 99정보(주안), 제2기(1919~1920) 139정보(주안), 제3기(1921~1924) 875정보(남동, 군자), 제4기(1934~1945) 549정보(소래) 등으로 급속히 증대하고 있었다(1정보(町步)는 3,00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의 소금 소비량이나 인천 등 어항에서의 소금 소비량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1921년 7월 담배와 소금은 국가의 전매품이 되었고, 1933년경 인천의 염전은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인 15만 톤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주안역(驛)은 주안염전이 조성된 이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대규모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중부내륙 지방으로도 공급되었다. 그 결과 경인철도를 경계로 그 북쪽지역은 소금밭으로 완전히 전용되었고, 주안역에 잇닿아 소금생산 노동자와 관리인들의 기거를 위한 일본식 목조 주택들이 줄지어 입지하였다. 대략 주안역과 경인철도를 사이에 두고 그 북쪽의 염전지대와 남쪽의 농업지대로 지역기능이 특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37년 개통한 수원~인천간의 수인선 열차는 소금을 많이 실어 날라 흔히 ‘소금 열차’로 불렸다. 본래 소금을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수인선은 1931년 개통한 수여선(수원~여주 간 74.3km)과 맞닿아 있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여주 이천 쌀의 수송도 맡았는데, 남동염전의 남쪽 해안을 매립하고 소래에 철교를 놓아 만든 것으로, 처음부터 열차가 남동, 소래, 군자염전을 거쳐 가게 설계되었고, 실제로 이들 지역의 소금을 실어 날랐던 것이다. 인천의 소금은 경인선과 수인선, 그리고 경부선·경의선 등으로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과 만주까지 소금이 실려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소금의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아 소금 값이 폭락하자 염전업자들은 적자운영에 시달려야 했고, 1961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폐염을 권장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이었던 주안염전이 폐염되어 산업단지로 조성되더니 남동염전마저도 1980년대 인천시의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에 밀려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거기에 1995년 수인선이 폐선되면서 소래염전마저 폐염전이 되었다.

무지개를 닮은 홍예문



홍예문

홍예문(虹霓門)은 해안의 조계지와 내륙을 연결하는 응봉산 마루턱을 깎아서 길을 내고 그 정점에 세운 무지개 모양의 돌문이다. 도로의 폭은 4.5m, 높이는 13m, 통과 길이는 13m이다. 일본인 거류지에서 축현역(동인천역)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에 문을 내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했던 일본인들은 산의 혈(穴)을 뚫었다고 하여 ‘혈문(穴門)’으로 불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의 윗머리가 무지개 형상을 했다고 해서 ‘무지개 문’이란 뜻의 ‘홍예문’이란 이름을 더 선호하였다. 사실 우리에게는 숭례문, 흥인지문, 광화문 등이 모두 ‘홍예문’이고, 불국사의 백운교나 창덕궁의 금천교도 다름 아닌 ‘홍예교’여서 그 말과 건축양식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에 홍예문을 건설하는 데에는 당시 최첨단의 근대적 토목기술을 보유한 일본으로서도 기술적이나 자금상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철도감독원이었던 마키노(牧野) 공병 대령이 주선하고 관계자 여러 명이 공사비 1,500여 원을 각출하여 1905년에 기공하였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이후 조선 정부로부터 16,800원의 보조금을 얻어 1908년 완공하였다. 일본 공병대가 설계·감독하고, 많은 수의

중국인 기술자와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되었지만, 암벽을 폭파하는 등 난공사로 완공되기까지는 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지금도 문 앞 벽에는 쏘아내다 내버려둔 거대한 암석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홍예문 거리

홍예문은 화강암과 연와(벽돌)를 혼용하여 만들었다. 돌과 돌 사이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상판에서 가해지는 힘을 좌우로 분산시킨 우리의 전통적 홍예건

축과 같은 고풍스럽고 깔끔한 맛은 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의 토목공법과 재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있다.

홍예문은 인천시민에게 있어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시키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인천 출신의 소설가 한남철(본명 한남규, 1937~1993)은 그의 자전적 소설 「강 건너 저쪽에서」에서 홍예문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이따금씩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만국공원으로 놀러 가기도 하였다. 배다리를 지나 짜리재 마루턱을 넘어 한참을 걷다보면 홍예문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소리치면 목소리가 되올려 퍼져 의미 없이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한 재미였다. 아치형 벽은 물벽은 고목처럼 늘 거무튀튀하였고 고개 너무 부두에서 불어 닥치는 바람이 풍성하게 쏟아져들어 그 안은 항상 서늘했다. 신포동과 송림동 쪽을 넘나들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서면 오래 땀을 흘리다 떠나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홍예문 주변에는 참외, 자두, 수박 같은 여름과일과 아이스케이크, 빙수, 냉차 등을 파는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우물을 대신한 상수도 시설 송현배수지 제수변설



일제강점기의 송현배수지

인천은 우물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하 수질 또한 양호하지 않아 개항 이후 증가한 내·외국인과 선박용 식수 공급 및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조계의 거류민단에서는 1905년 2월, 도

미타(富田耕司) 민단장이 수도 부설 간담회를 열고, 자신들 거류지로부터 6km 떨어진 문학산 계곡에 빗물을 저장하는 수원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루 한 사람 사용량을 10갤런으로 하여 약 1만 4천 명을 충당할 수 있는 급수 능력의 수원지를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같은 해 8월에는 공학박사 나카지마(中島)가 경인 수도 시설을 위한 실지 답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강 연안의 노량진이나 독섬을 수원지로 해서 서울, 용산, 인천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수도 계획이 완성되어졌다. 일제 통감부의 강압에 의해 조선 정부는 수도 부설을 결정했으나, 국고가 부족하여 관세 수입을 담보로 일본 흥업은행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탁지부(度支部)에 수도국(水道局)을 신설하고, 1906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였다. 1910년 10월, 노량진에 수원지 정수시설이 준공되



현재의 송현배수지 제수변설

자, ‘노량진~인천’ 사이에 32.62km의 수도관을 부설하고,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인천으로 급수를 시작하였다. 서울 영등포 지역의 급수가 1914년 12월 24일에 개시된 것을 감안하면 인천이 4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정수된 수돗물이 인천에 급수된 곳은 송현배수지였다.

동구 송현동 23-5번지에 위치한 송현배수지는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표고 56.8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36,780㎡이고 5,000㎥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 계단, 철제 정문 등이 남아 있다.

제수변실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통수(通水)나 단수(斷水), 또는 유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이다. 일체식 무근콘크리트의 원통형 구조를 하고, 상부를 페디먼트로 장식한 출입구와 창문이 있다. 출입 철문은 화강석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심고 4각 모양과 둥근 화강석의 받침이 만들어져 있다. 출입구 위에는 1912년(융희 6) 유맹(劉猛)의 ‘만윤백량(萬潤百凉)’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이는 ‘백 번이 흐르면 만 번이 빛난다’라는 뜻이다.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은 2003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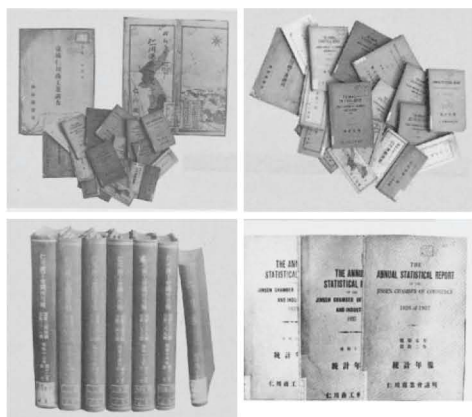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제수변실은 원통형으로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데, 이는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는 송수관이 배수지 바닥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29년 「인천시지도」에 보이는 배수지와 수도선로

송현 배수지의 깊이는 4.38m, 유효수심은 3.6m이었다. 1931년 당시 1만톤 정도가 급수되었는데, 요금은 월 최저 12톤에 2월(당시 쌀 1되에 20전)으로 물값이 상당히 비쌌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경제 월간지 상계월보



상공회의소 발간물

인천에서 상권을 확장하려던 일본 상인들이 1885년 10월 인천항일본인상법회의소를 결성한다. 1892년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로 개편된 이 단체는 인천항 상공업의 현황, 회의소록사(錄事), 물가, 금융, 생산, 수출 등에 대한 통계와 해설이 게재되어 있는 『상업회의소월보』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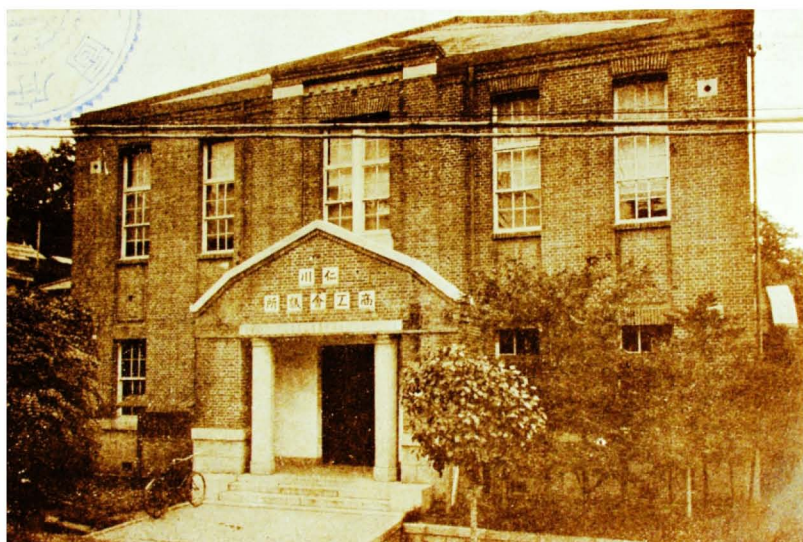
이처럼 일본 상인들이 월보를 통해 교류 정보를 확대해 나가자 조선인 상인들도 1905년 7월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를 결성하였다.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는 1915년 조선총독부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해 일본인상업회의소에 흡수되지만, 주목할 것은 그 직전 무렵인 1912년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 회두였던 최응삼에 의해 최초의 월간지인 『상계월보(商界月報)』가 창간된다는 점이다. 이 월보는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가 상권 독점을 위해 인천항의 각종 상공업 정보를 담아 자국 상공인들에게 배포하던 『상업회의소월보』에 대응해 발간한 것이었다.

창간호 발간 날짜가 그해 5월 11일인데, 이 책자가 오늘날 인천 최초의 출판물로 일컬어진다. 창간호를 보면 월보 간행을 의결한 임원회의 의사록과 경과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출석원은 최응삼 씨, 강해원 씨, 손성칠 씨, 김성옥 씨 이상 4인인데 정각보다 30분이 지(瀝)하여 개회하다. …(중략)… 회두 최응삼 씨가 상계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되, ‘대저 상업회의소의 사정은 일본인상업회의소의 짐무하는 규모를 관(觀)하여도 기관 월보를 발간하여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니 본소에서도 월보를 발간하여 상계에 지식을 개도함이 여하(仟

紐)오?’ 한데, 강해원씨는 ‘월보의 영향이 심대하니 발간하기로 작정하되 우선 20엽(冊) 가량으로 인쇄비를 탐지하자’ 하니 차에 대하여 일치 가결하다.”

그 후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가 인천일본인상업회의소에 병합되어 문을 닫았던 1915년 7월 15일까지 『상계월보』는 매일 발행이 계속되어 1915년 4월 15일 제36호까지 이어졌다.



인천상공회의소

20세기 초 짜장면과 짬뽕



짜장면박물관

2006년 7월 문화관광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하나로 짜장면을 선정하였다. 김치, 떡, 삼계탕, 불고기, 냉면 등과 함께 음식류 10개 항목에 포함되어, 이제는 명실 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반해 여전히 짜장면을 온전한 ‘한국음식’으로 부르기를 거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짜장면의 원류가 중국의 ‘자지양미엔(炸醬麵)’에 있으며, 한국식 짜장면 또한 화교(華僑)들에 의해 개발된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짜장면 속에는 20세기 동아시아가 겪은 질곡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식민과 피식민의 경험 속에서 한·중·일 세 국가의 음식 문화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계를 넘어 진화를 거듭한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다쿠양(沢庵)’을 반찬으로 놓고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의 ‘자지양미엔’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지는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처음 먹기 시작한 장소가 인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화교들이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첫발을 디딘 곳도 인천이요,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됨으로써 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곳도 인천이기 때문이다.

1925년까지 10% 정도, 1935년까지도 단지 20%에 불과한 화교들만이 여성을 대동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인천 화교의 대다수는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집단생활을 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였다. 공화춘(共和春), 중화루(中華樓), 동흥루(東興樓)와

같은 대형 음식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가정집 한 모퉁이나 상점 한쪽을 빌려 겨우 식탁 서너 개만을 갖춘 소규모 음식점이었다. 이곳에서 파는 음식 역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불과하였다. 흔히 우리에게 ‘만두’, ‘호떡’으로 알려진 ‘자오쯔(餃子)’와 ‘젠빙(煎餅)’ 등이었고, ‘자지앙미엔’도 여러 가지 면류 음식과 함께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지앙미엔’은 ‘튀김장(炸醬)을 얹은 국수’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기름을 듬뿍 붓고 튀긴 춘장을 삶아 건져낸 국수 위에 얹어 가늘게 썬 여러 생야채와 함께 비벼먹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가 먹는 한국식 짜장면은 1950년대 이후에나 탄생되었을 것으로 본다. 화교들이 대규모로 음식업에 뛰어들고,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외국인에 대한 무역규제가 엄격해지자 화교들은 대거 음식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는데, 이에 따라 1948년 332개소였던 중국 음식점이 1972년에는 2,454개소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전체 화교사회 속에서 7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렇게 중국 음식점이 늘어나자 화교들은 주요 고객을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맞아야 했고, 상행위에 능한 이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중국요리를 변형시켰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향료들은 한국인을 위한 중국 음식에서 거의 사라졌다. 파리아오(大料), 후이샹(茴香), 상차이(香菜)와 같은 향료는 한국인을 위해 피하는 대신, 매운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을 위하여 고추가 좀 더 사용되었다.

‘자지앙미엔’ 역시 춘장(春醬)을 기름에 튀겨서 기름과 함께 면을 얹기 때문에 느끼한 맛이 있어서 한국인의 입맛에는 좀처럼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볶고 난 기름을 따라 버리고 볶아진 춘장만 사용해서 느끼한 맛을 줄이고, 볶아진 춘장에 갖은 야채와 물 녹말을 넣어서 짜장 소스가 짜지 않으며 구수하고 달짝지근하고 걸쭉하도록 바꾸었다.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식용 첨가물인 캐러멜을 넣어 단 맛을 극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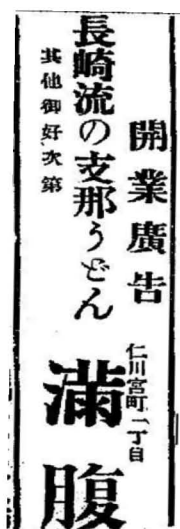
한편 짜장면과 더불어 중국음식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짬뽕 역시 화교들이 만들어낸 음식이다. 돼지고기, 표고버섯 등을 넣고 끓인 일종의 만둣국

‘훈툰(餛飩)’이 일본에서 국수를 국물에 만 음식인 ‘우동(うどん)’이 되었고, 19세기 말 나가사키의 화교들이 이 우동에 오징어, 새우, 굴 등 해산물을 듬뿍 넣어 ‘잔폰(チャンポン)’을 만든 것이다. 처음 ‘잔폰’은 중국식 우동이라는 뜻의 ‘시나우동(支那餛飩)’으로 불리었는데, 1910년대에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잔폰’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잔폰’이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는 일본어의 속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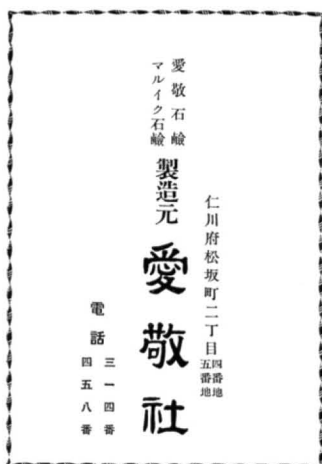
1908년 10월 10일자 『조선신보(朝鮮新報)』에 의하면 인천 궁정(宮町) 1정목에 위치한 어느 일본 음식점에서 나가사키 식의 ‘시나우동’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인천은 개항 직후 곧바로 나가사키, 부산, 상해를 연결하는 정기항로가 개설된 점을 고려할 때, ‘시나우동’, 즉 ‘잔폰’이 다른 곳보다 일찍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한국식 짬뽕에는 일본식 ‘잔폰’에 들어가지 않는 마른 고추와 고춧가루가 들어간다. 아울러 육수는 멸치 국물을 쓰는 것이 다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추의 가격이 싸진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1908년 인천의 나가사키식 우동 광고
(조선신보, 1908. 10. 10)



묵은 때도 깔끔하게 비누



비누광고(애경사)

인천 최초로, 1912년 10월 비누 생산 설비를 갖춘 애경사(愛敬社)가 송월동에 들어섰다. 화장비누에 미용애경, 미쓰미(ミツ美) 등이 있고 세탁비누에 나비표(蝶印), 매표(鷹印) 등이 있었다. 주요 원료는 야자유, 우지, 경화대두유, 경화유[어유], 면실유, 소나무수지, 가성소다, 들깨기름이었다. 일반인들도 목욕과 세탁에 비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애경 비누의 판매처는 전국이었는데, 경인지방이 60%, 대전·대구지방이 20%, 목

포·군산지방이 15%, 기타 5%의 비율로 팔려 나갔다.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장비누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생활 광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광고는 일본기업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약품광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미료, 화장품, 비누, 서적, 식료품 등의 순서였다. 이후 애경사에서 비누를 생산하자 비누 광고는 인천 애경사 생산품으로 대체되었다.

1958년 ‘미향 비누’를 한달에 100만 개를 팔아 경인 간의 화물차량 대부분 ‘애경유지’ 차량이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애경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비누회사였다. 1962년 이후, 애경사는 영등포로 이전했다.



애경비누

도로의 기점 인천도로원표



도로원표

도로원표(道路元標)는 도로의 기점(起點), 종점(終點) 또는 경과지를 표시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고시 제135호>(1914년 4월 11일)에 따라 경성, 인천, 군산,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원산, 청진 등 10개 도시에 시가지 원표를 위치를 결정 및 고시했다. 당시 도로원표에는 10개 도시의 주요 도로들을 골라 1등 또는 2등의 도로 등급도 표시했는데, 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해 왔던 대로(大路), 중로(中路), 소로(小路)와

같은 개념과 다른 것이었다. 현재의 도로원표는 1997년에 설치된 것들이다.

인천의 도로원표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위치이다.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면, 북위 37° 28′ 24.5″ 동경 126° 36′ 58.99″이다. 이곳이 다른 지역과의 거리를 표시할 때 기점이 되는데, 서울과 인천의 거리 42km는 광화문에 있는 서울 도로원표와 인천 도로원표 간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과 인천 간의 경인고속도로가 24km이지만 일반적으로 서울과 인천 간의 거리를 42km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도로원표는 지역마다 그곳 도로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흔히 ‘임금이 거처하는 광화문에서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리면 다다른 육지 끝의 나루’가 정동진이듯이, 서울 광화문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육지 끝 나루터는 경인아라뱃길이 서해와 만나는 인천터미널 부근의 정서진이다.

해발의 기원 수준원점



수준원점 외관

산의 높이를 말할 때 흔히 ‘해발(海拔) 몇m’라고 한다. 해발이란 기준면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표고(標高), 고도(高度)라고도 한다. 그런데 지표의 높이, 즉 표고의 기준면

으로 사용하는 평균 해수면은 가상의 면이므로 이것을 부동의 위치에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그러나 바닷물의 높이는 동해, 서해, 남해 등 지역에 따라 다르고 밀물, 썰물로 인해 일정하지 않다. 즉, 바다의 표면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변하기 때문에 0.00m가 유지될 수는 없고 평균 해면의 높이(0.00m)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 측정소에서 얻은 값을 육지에 옮겨 놓아야 했다. 이렇게 옮겨진 육지의 고정점을 ‘수준원점’이라 하는 것이며 이를 국토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13년 12월부터 1916년 6월까지의 2년 7개월간 관측한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0.00m로 하여 이를 육지에서 높이의 기준면으로 하였는데, 최초의 수준원점은 중구 향동 1가 2번지에 있었다. 광복 후 내무부 토목국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사용하던 성과표를 이용하여 파괴된 수준점을 복구·이용해 왔으나, 6·25전쟁 등으로 기설 기본 수준점이 모두 유실되었기에 새로운 기준면의 설정과 수준망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1963년 내항이 재개발됨에 따라 결국 인하공업전문대학 캠퍼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수준 원점의 해발 고도는 26.6871m이고 수정판(水晶板)에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옛 토지조

사국이 설치한 인천의 수준 기점은 5.477m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발은 육지에서는 인천만의 평균 해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본토와는 달리 제주 서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검조장의 성과를 높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종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에 이용한다. 여기에 북한은 원산 앞바다를 수준원점으로 삼아 높이를 재기 때문에 우리 것과 약 6m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북한이 백두산 높이를 2,750m로 기록(우리의 측정치 2,744m)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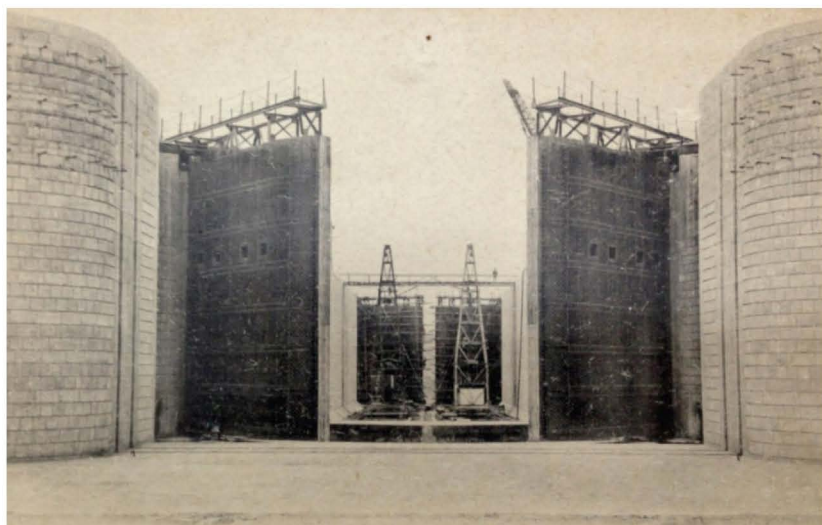
수준원점 수정판 눈금

수준원점의 주변에는 가, 나, 다, 라 4개의 수준 보조점이 있다. 이는 원점을 직접 사용하여 측량을 수행할 때 다소 불편하고,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수준원점의 훼손 시에 원점의 복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수준원점도 인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산간 지방이나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국의 국도와 지방도로를 따라 2~4km 간격으로 5,224점의 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복구 및 재설을 하고 있다.

수준원점의 표지석은 붉은 벽돌로 쌓은 첨성대 모양의 원형기둥 모양의 지름 3.3m, 높이 3.36m의 보호각 안에, 육면체의 화강석 설치대위에 자수 정으로 + 표식으로 음각되어져 있다. 그리고 43년이 지난 2006년 4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47호로 지정되었다. 국토 높이 측정의 기준점이 되는 국가적 시설물로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큰 근대 문화유산이다.

최초의 인공항만 갑문



갑문

개항 이후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 선박이 날로 늘어나 정기 운항선이 개설되었다.

인천항이 개발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은 개항(1883) 직후인 1884년 9월 인천상인단체의 출자에 의해서였다. 다음해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인천해관의 러시아 토목기사가 공사를 맡아 15~6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현 파라다이스 호텔 언덕 아래 해관 자리 앞 해안에 석축을 쌓고 잔교(棧橋: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놓은 다리) 1기와 돌제(突堤: 육지에서 강이나 바다로 길게 내밀어 만든 둑) 1개를 만들었는데, 항만로서는 초보적인 시설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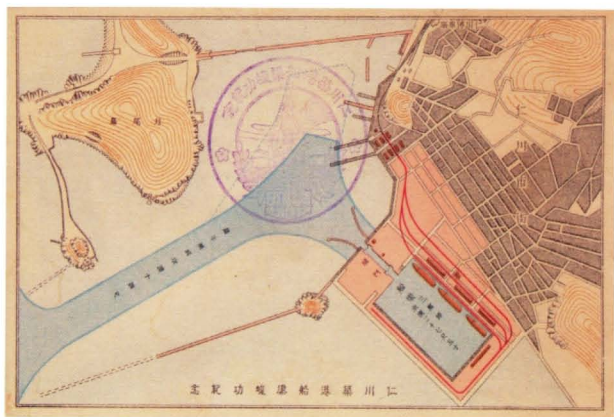
그러나 빈약한 시설로 날로 증가하는 수출입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1893년 두 번째 개발 사업으로 영국인 기사 챔버스의 설계에 따라 해관 앞의 바다(현재 파라다이스 호텔 남쪽 도로)를 메워서 그곳에 돌제를 축조하는 한편, 소월미도 동쪽 끝과 팔미도 서쪽 끝에 등대를 설치하는 등 항로 표시시설을 갖추었다. 이 역시 항만개발이라 이름 붙이기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해관 앞 부두를 출발하여 마포까지 가는 기선이 매일 운항해 인천~경성간 수로교통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인천항은 청일전쟁(1894) 이후 미곡 반출의 창구로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투자가 집중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수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경인철도의 개통(1900)으로 무역액에서 수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러일전쟁(1904~05)이 끝난 후 인천항 뿐만 아니라 모든 항구에서의 무역량이 급증하게 되자 전국의 항만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부선 철도의 개통(1905) 이후 인천항은 점차 물동량에서나 항만시설에서 부산항에 추월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항구적인 항만시설을 갈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여 만조 간조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대조선박이 입항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언제나 짐을 부릴 수 있는 도크[船渠]를 요구하는 소리가 간절하였다. 이에 누차에 걸쳐 수천명의 인천시민 연서의 축항청원서를 탁지부(재무부), 내무부 및 통감부 요로 당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0m를 넘는 조수간만의 차는 인천항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였고, 이에 따라 1911년부터 항만의 설비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제1기 해륙



인천축항 선거 준공기념엽서

연락설비확장공사'로 명명된 축항계획은 '2중갑문식 선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선거(船渠:선박의 건조나 수리 또는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설비) 구축을 위하여 사도와 세관매축지 남쪽에서 오늘날 인천여상이 자리잡고 있는 동산에 이르는 해면을 매립하고, 선거는 이 매립지 중앙을 굴착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 4,5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크기의 인공(人工) 항만 제1선거 축조를 시작했다. 이 항만은 최초의 근대적 갑문식 도크 공사로 착공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었으며 공사 시작 7년여 만인 1918년 10월 완공되었다.

이어 내항(內港)으로 토사가 밀려 들어 쌓이는 것을 막고,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1917년 시작한 월미도 제방축조 공사가 1923년에 끝남에 따라 인천항은 전천후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인천항은 조선 초기 제물량에 수군 만호영이 설치되어 서해의 방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어 군항이나 상업항으로서의 임무를 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 7년(1656) 강화도로 이설됨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환경하에 놓여 있었고 항구로서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 당시 제물포항은 이미 개항된 부산이나 원산보다 항구로서의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았다. 서해안이 원래부터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데다가 인천은 그 차이가 10m나 되었기 때문에 배가 접안하기 위해서 만조시 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의 성냥공장 인촌성냥



성냥공장 여성 근로자

1900년 러시아 대장성이 발행한 「조선에 관한 기록」이란 보고서는 “1886년 제물포에 외국인들의 지휘 하에 성냥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게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일본제 성냥이 범람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록으로는 이 성냥 공장의 정확한 위치, 또 상호라든가 회사 규모 등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최초의 성냥 공장이 인천에 있었던 것만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성냥의 국내 전래는 1880년 개화승(開化僧) 이동인(李東仁)이 일본에 갔다가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과 동행 귀국할 때 처음으로 성냥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 일반에게 생활용품으로 대중화하기는 국권피탈 후인 1910년대 일본인들이 인천에 조선성냥[朝鮮燐寸]을 설립한 것을 비롯, 군산·수원·영등포·마산·부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판매함으로써 가정용으로 확대·보급된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인천 최초의 성냥 공장은 1917년 10월 금곡리에 설립된

조선인촌주식회사였다. 이 공장이 인천에 들어선 것은 경인 지역의 넓은 시장과 무엇보다도 압록강 일대 삼림지에서 생산되는 목재 원료를 배편으로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이점 때문이었다. 이 회사는 신의주에 부속 제재소가 지 두었고 직원도 남자 200명, 여자 300명 등 총 500여명으로 패동, 우록표(羽鹿票), 쌍원표(雙猿票) 등의 성냥을 연간 7만 상자를 생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냥갑 제조를 위해 하청을 주는 곳이 500여 호에 달할 정도로 규모나 생산량이 대단했다. 그 무렵엔 기계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성냥개비에 인을 묻히거나 성냥개비를 성냥갑에 넣는 일을 전부 수작업으로 했다.



조선인촌주식회사 정문

당시 지역 여건을 서울과 비교해 보아도 서울에는 성냥공장을 세울 만한 부지가 없었고 전력도 인천보다 부족했으며 인천은 성냥공장이 들어서기에 적지였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동구 금곡동 고지대엔 인천 최초의 변전소 시설까지 들어서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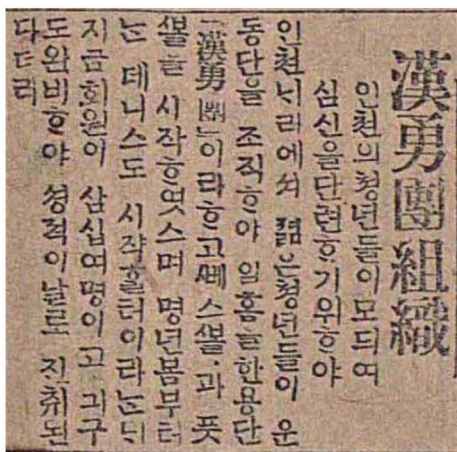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사정도 서울보다 훨씬 나았던 것이다. 이 무렵 서울이나 대구 등지에 세워졌던 성냥공장들이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얼마 못가 문을 닫은 것도 이러한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냥공장에선 주로 10대 소녀들이 일했으며, 성냥공장 외에 금곡동과 송림동 지역의 5백여 가구가 성냥갑을 만들어 공장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인천지역 최고의 가내수공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곡동 일대 공터나 도로변엔 햇볕에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성냥개비와 성냥갑으로 온통 뒤덮이는 등 동네 전체가 성냥공장을 방불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21년 3월 조선인촌주식회사의 직공 150명이 지배인 배척을 선언하고 동맹파업에 들어간 이래, 인천지역 각 성냥공장에서는 파업이 잇따랐고, 임금인상과 8시간 노동제 요구 등 동맹 파업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인천의 성냥공장은 성냥제조업의 시발점이자 본거지라는 연대기적 의의 말고도 일제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현장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인천은 등대의 ‘빛’으로 쇄국의 바닷길을 처음 밝힌 항구 도시이자, 근대의 ‘부싷돌’인 ‘성냥’을 국내 최초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배고픔과 추위로 부터 삶을 지키게 했던 따뜻한 공업 도시였다. ‘부시(쇠조각)’로 ‘돌(석영)’을 쳐 어렵사리 불을 일으키고, 입김을 불어가며 조심스레 불씨를 살리던 ‘전근대’를 졸업하게 했던 것이다. 예로부터 불은 임금이 백성에게 나눠주는 귀물이었고, 정월에 ‘새 불’을 받아 밥을 짓고, 구들을 덥혔던 것이니, 저잣거리의 백성들이 저마다 제 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반 만년 생활사에 금시초문인 혁명이었다.

젊은 지성의 요람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에서 조직한 한용단
관련 기사(매일신보, 1919, 11, 13)

1910년대 인천에는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 졸업자들이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내동에 위치한 인천상업학교 하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통학교 졸업자들이 인천상업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웠으며, 인천에 인문계 중학교나 전문학교가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서울에는 관립으로는 경성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

통학교 등이 있었고, 사립으로는 배재고등보통학교, 휘문보통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이 있었고, 여러 전문학교가 있었다.

경인기차통학생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경인선의 개통과 인천 내 진학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시대에 인천에서 생겨난 새로운 풍조였다. 개항 도시 인천에서는 원래 유지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객주와 상인 등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민족 계몽을 위한 신식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 내에 학생들을 교육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아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철도를 이용하면 그리 멀지 않는 서울의 신식 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었다. 더욱이 ‘파스(pass)’라고 불리던 학생 정기권 가격이 1개월에 1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성인 요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다.

경인기차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은 ‘경인기차통학생 친목회’를 조성했다. 친목회 문예부에서 활동하던 고일은 『인천석금』에서 기차 통학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기차는 한 시간마다 출발과 도착이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정확했다. 그리고 학생 정기

권이 월 1원이었고 객차의 좌석이 크고 넓어서 서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경인 기차 통학생은 꿈과 희망과 야망을 갖고 있었고, 기차는 이동 교실이나 도서관, 연구실도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인천 민족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던 경인가차통학생 친목회는 인천 젊은 지성의 요람이었다. 훗날 국회의장을 지낸 곽상훈(郭尙勳),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 사건의 주인공 이길용(李吉用), 인천 지역의 대표적 언론인 고일(高逸), 대법원장을 역임한 조진만(趙鎭滿), 절충파의 진보적 논객 정노풍(鄭盧風), 인천 최초 치과의사 임영균(林榮均), 한국 고미술사학계의 태두 고유섭(高裕燮), 외무부 차관을 역임한 갈홍기(葛弘基), 소년소설의 개척자 현덕(玄德), 문학평론가 김동석(金東錫), 월북 극작가 함세덕(咸世德), 흑인



한용단 야구팀(1921)

시의 태두 배인철(裵仁哲) 등이 회원이었다. 여성으로서서는 서상집 감리의 딸 서은주(徐銀珠), 이도라(李道羅) 등이 처음으로 기차 통학을 해서 화제에 올랐다고 전한다.

종합체육단체 한용단의 조직

1919년 11월 13일, 경인가차통학생 친목회에서 한용단(漢勇團)이란 이름의 운동단을 결성하였다. 한용단은 야구, 축구, 테니스 등의 여러 종목을 치루는 종합체육단체를 지향하였으나 활동의 중심은 야구였다. 한용단이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 역시 바로 야구 덕분이었다. 한용단은 한인 최초의 야구팀으로 인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지역의 야구 붐을 주도하였다.

청주 제조와 병술 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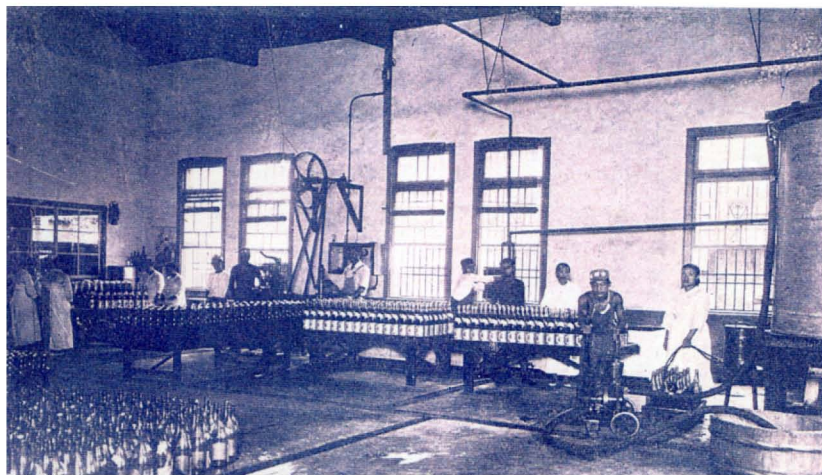
조일양조장

개항 이후 인천이 미국 집산지가 되면서 정미업이 발전하며, 그 뒤를 양조업이 이었다. 양조업이 발전한 요인은 술의 원료가 되는 미국의 집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한인, 일인 할 것 없이 급격하게 늘어난 인천의 인구증가와 1차 세계대전 경기도 인천 양조업의 활황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다.

1920년대 초반 인천의 전체 한국인 인구는 대략 2만 4천 명, 일본인 인구는 1만 3천 명 정도였는데, 이미 한국인 양조장이 14개소, 일본인 양조장은 7개소나 되었다. 신태범은 “20년 전후에 많은 양조장이 시내 각처에 생겨났다. 대동양조조합, 영화양조조합, 인천양조조합 등 법인체에서부터 대일양조장, 김희관양조장, 영춘양조장, 신창양조장, 소성양조장, 대화양조장, 계림양조장 등 소규모 개인 업체에 이르기까지 14개소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조업계의 선두 주자의 한 사람으로 떠오른 인물이 최승우(崔承宇)였다. 최승우는 원래 객주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다. 어찌된 연유인지 당시 최승우는 당국의 권유에 따라 외리(지금의 경동)에 대동양조조합을 설립하고 약주와 탁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재빠르게 재래식 양조법 시설을 개수하고, 일본식 압착 여과 장치를 도입해서 정종처럼 맑은 병 약주를 신제품으로 개발하는 경영 수완을 발휘



조일양조장 내부

하였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큰 히트 상품이 되며, 대동양조조합은 1급 양조 업체로 발돋움했던 것이다. 이 맑은 병술 약주 개발에 대해서는 신태범과 고일이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고일은 『인천석금』에 최승우가 방부제를 써서 병술 약주를 제조했다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방부제를 써서 최초로 조선 약주를 일본 정종같이 맑은 청주로 만들던 대동양조주식회사가 광통사 뒷집에서 송림동 최응삼 씨 댁(최응삼은 최승우의 개명이다) 부근으로 옮겨 가서도 제조에 힘썼으나, 때가 불리해 자연 폐업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약주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결정적 신기원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최승우가 과연 인체에 해로웠을 ‘방부제’를 약주 제조에 사용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조선 약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신기원’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당시 세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최승우는 소주 제조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일양조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기계식으로 ‘금강’이라는 소주를 만들어 크게 재미를 보자 여기에 자극되어, 1928년 송림동, 오늘날 동부경찰서 자리 인근에 근대식 공장을 신축하고 ‘대동’이라는 소주를 출

시한 것이다. 이 대동소주는 1930년대 말 전시 체제에 접어들어 술이 배급제로 바뀔 때까지, 그에게 상당한 호황과 부를 안겨 주었던 듯 싶은데, 결국 전쟁 말기에 이르러 자진해서 문을 닫고는 영영 폐허가 되고 말았다. 최승우의 양조장은 일본인 양조회사 3곳과 한국인 회사 김휘관양조장 등과 함께 인천 5대 소주 공장으로 『인천부사』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19년 10월 한국 최초로 소주양조회사가 설립됐는데 조일양조주식회사가 그것이다. 금강표라는 소주는 청주 금강학과 함께 양조계의 대표적인 생산품이었다. 국내는 물론 만주, 사할린에서도 각광을 받았다. ‘금강표’ 소주의 원료는 대만 당밀 및 약간의 밀과 수수를 혼합한 것이기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다.

용기로 항아리를 사용했는데 1두와 1두 5되의 두 종류가 있다. 대량거래는 6두 들이 맥주통을 이용했는데 시세는 1두 5되가 9원 정도이다. 한편 고려표라는 소주도 뛰어난 향으로 유명했다.

1927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인천부청 안에 양조시험실을 두어 술의 원료와 수질을 분석하게 했다는 보도를 하는데 이 또한 한국 최초로 인천이 양조(釀造)와 밀접한 공간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해수탕의 원조 월미도 조탕



조탕 전경

인천은 잔물을 목욕물로 하는 해수탕이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수탕에서 쓰는 물은 일반적인 바닷물이 아니라, 지하 암반층에서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를 끓여 목욕물로 사용한다.

이 암반수에는 각종 미네랄과 염화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수탕의 원조가 인천이다. 1920년대 바닷물을 데워 목욕물로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조탕(潮湯)이 월미도에 만들어졌다.

당시 월미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로 ‘인천은 몰라도 월미도는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관광지였다.

월미도가 관광지가 된 것은 인천항 갑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1918년 인천 내항에 독크를 건설하고 한강에서 흘러드는 급한 물살을 막기 위해 북성지구에서 약 1km에 달하는 제방을 쌓았다. 이 제방이 놓인 후 철도국



조탕 내부

은 월미도에 소형해수풀과 조탕을 만들고 이곳을 임해유원지로 개발했다. 같은 해에는 월미도 전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다.

철도국이 해수풀과 조탕을 설치한 것은 경인선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찌됐든 당시만 해도 붉은 지붕과 서구식 외관을 자랑하던 조탕 건물은 현대적 감각으로 세워져 세인들의 관

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위용도 불만했으나 밤이면 매혹적인 불빛을 선사하는 야경 또한 놓칠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월미도 조탕에는 숙박과 휴게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며 휴게소와 함께 서구식 무대장치가 마련된 연무장이 설치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연극과 춤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으며 전통무용 공연도 많이 열렸다. 당시로서는 첨단의 시설을 자랑하는 휴양시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알려진 휴양지로서 원산의 송도원, 부산의 해운대를 제치고 월미도는 단연 전국 최고의 명소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월미도 용궁각

그 후 월미도는 민간업체로 넘겨져 해변가에 대형 풀이 증설되고 밀물 때에는 마치 바다에 뜬 것과 같이 세운 용궁각이라는 일본식 요정도 들어섰다. 1935년 무렵에는 3층 목조 건물인 빈(濱)호텔이 건립되어 많

은 행락객들이 찾아들기도 했다. 월미도는 일본 패망 때까지 근 2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해방 후 이 유원지 시설을 종업원들이 인수 운영하다가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월미도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옛 명성을 다시 찾기자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도 보지 못한 채 6·25전쟁으로 공터가 되고 말았다. 조탕 터에는 모래부두와 공장 등이 세워져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1980년대 말에 월미도문화의 거리로 조성되고, 해군 기지로 사용되던 곳은 공원으로 새 단장하여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최초의 공설운동장 윗터골



1920년대 윗터골

1883년 인천의 개항은 조선에서 세번째였지만, 앞 시기 부산(1876년)과 원산(1880년)의 개항과는 그 역할과 비중을 달리했다. 서울로 진입하는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입지로 인해 신문물은

인천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천은 최고 최초가 많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근대 스포츠의 전래에 있어서도 인천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야구, 축구 등 구기 종목은 선교사나 무역 상사원들에 의해 이곳에서부터 전국 각지로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이다.

윗터골운동장은 시내 어디에서나 쉽게 올라다볼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분지였다. 이곳은 러일전쟁 당시 철도감부(지금의 철도청)의 합숙소가 되었다가 인천부의 소유가 된 땅으로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였는데 골짜기 전체가 작은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자연스레 인천 사람들이 즐겨 찾던 공간이었다.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무단정치는 문화정치로 바뀌게 되는데, 언론 출판의 허가과 한글의 사용, 집회·결사를 허용하였으나, 그 내면을 보면 한국인의 민족운동을 겉으로 드러내게 한 연후 거기에 맞춰 통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인천은 개항 이래 일본인의 진출이 많았고 일제강점기에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천의 조선인들은 유독 민족적 차별에 신음해야 했고 일제의 경계는 더욱 교묘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산근정(山根町)공설운동장’이라 하기도 했지만 인천에 최초의 공설운동장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분지 형태의 ‘웃터골’이 보다 구체적인 운동장의 모습을 갖추며 확장된 시기는 1920년으로, 사회전반의 유희분위기로 인해 인천의 웃터골운동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인천부는 조선체육협회와 용산철도 야구부의 협조로 웃터골을 고르게 닦고 넓혀 이해 11월 인천의 공설운동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의 경성 공설운동장보다 6년이나 빠르게 건립된 것으로 실로 한국 최초의 공설운동장이었다. 시설의 규모면에서는 비할 바가 아니었으나, 한국 최초로 등장한 실험적 체육공간이었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은 이때를 계기로 하여 독립을 위한 정신적 단결과 체력 배양을 위해 운동회를 개최하고 체육단체를 조직하였다. 해마다 여는 춘(春)·추(秋)의 각 학교 대운동회와 연합체육제전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망국의 한을 스포츠를 통해 강인한 체질로 바꿔 보자는 식의 캠페인도 등장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인의 건장한 체형에 대해 “중국인들 과도 일본인들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더 잘생겼고,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비해 훨씬 체력이 좋다”고 했다. 조선인은 스포츠 분야에서 일찌감치 강세를 드러냈다. 특히 일본인들과의 경기는 질래야 질수가 없고 저서도 안되는 것이 식민지 조선의 한국인이었다.



웃터골 운동장 학생체육대회

인천의 웃터골운동장 그저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었다. 고단한 식민지 민중의 쉼터면서 울분을 삭이던 곳이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일제는 이런 저런 핑계로 연합운동회 중지를 강요하였다. 이 시대를 풍미하던 한용

단(漢勇團)은 서울의 양정이나 배재, 중앙, 휘문 등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경인철도를 타고 한강을 오가며 국권회복에 대한 염원을 모아 만든 조직으로, ‘한강을 오가는 용맹한 인재’들의 모임이었다. 그들은 인천의 희망이었

고 미래의 등불이었다. 이들의 경기가 있을 때면 온 인천이 들먹였던 이유였고, 윗터골운동장은 일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천 조선인들의 환호와 감동, 한풀이와 단합의 자리였다.

윗터골운동장은 한국체육의 성지이고 인천체육의 메카였다. 이후 1936년 인천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기까지 각종의 야구, 축구, 육상 경기는 물론 각 학교의 대운동회가 연중 끊임없이 열렸다. 그곳은 인천의 애국 투사들을 육성한 곳으로 광복이 올 날을 기다리는 인천 시민들의 안식처였다.

스포츠의 전래와 관련해 지역내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인천이 개항하기 한해 전인 1882년 영국군함 플라잉피쉬(The Flying Fish)호가 한·영수교 이후 수로 측량을 위해 인천항에 들렀을 때 수병들이 상륙해 축구경기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윗터골운동장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그들은 잉글랜드 출신답게 무기와 식료품에 더해 축구공까지 싣고 동아시아로 온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시합을 한 곳이 이곳이라는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야구가 들어온 것은 1905년인데 이보다 6년 앞선 1899년, 일본인들이 인천에서 야구를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곳 전동이었던 것을 감안해볼 때 경기장은 인근의 분지였던 윗터골운동장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출발 인천부립도서관



인천부립도서관

1921년 11월 1일 인천 중구 송학동 청광각(淸光閣)에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띤 인천부립도서관이 설립되어, 1922년 1월 6일 개관하였다. 청광각은 지금의 자유공원에 있었던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세창양행(世昌洋行) 사택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 상사들이 귀국하자 세창양행 사택이 경매에 붙여졌고, 인천부가 이를 매입하여 도

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사람들은 이곳을 청광각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인천부립도서관은 부산·대구·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네번째로 개관한 공공도서관이다. 부산에서는 1901년 개관한 독서구락부 도서관이 1911년 사립부산교육회에서 승계하여 운영되다가, 1919년 부산부에 이관되어 부산부립도서관으로 새로이 발족되었다. 대구에서는 1919년 옛 경상북도 도청 구내에 대구부립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서울에서는 1920년 윤익선이 경성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인천부립도서관이 개관했을 당시 장서 수는 900권에 불과했고, 이용자 수도 연간 일본인 1,242명, 조선인 55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인천』(인천항만협회협찬회, 1925)에서는 인천부립도서관에 대하여 “아직 완비 되지 않았다”라고 평하며, “해마다 일정한 예산을 계상하여 도서의 충실을 꾀하고 있

으므로 머지 않아 완비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속편 인천항」(추삼무, 『경성과 인천』, 1929)에서 “정상에 청각(淸閣)이 있는데 이곳을 인천도서관이 차지하고 있어, 열람자가 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천부립도서관은 개관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장서가 늘어나고 열람자가 급증하였다. 1930년 장서가 5,351권으로 늘어났고 도서관 등록자는 25,349명에 달하였다. 《조선매일신문》(1931년 12월 23일)에서는 1931년 11월 한달간 부립도서관의 열람자 현황에 대하여 “11월중의 열람자는 일본인 636명, 조선인 1,220명, 계 1,856명으로 1일 평균 74명이지만,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169명이 감소하였다. 입관자는 역시 학생이 제일 많은 223명, 회사원 12명, 관공사 6명, 사업가 55명, 무직 기타 485명이었다. 읽혀지는 서적은 부담 없는 전집류나 잡지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문학, 국어류도 다소 읽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1931년 11월 중 열람자가 개관 당시 연간 열람자 수를 상회할 정도로 열람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더욱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인천부립도서관은 1941년 (구)인천지방법원청사 자리로 이전하였다가 광복 후 중구 을목동으로 이전하며 인천시립도서관으로 재출범하였다. 지난 2009년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며 미추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역



도서관교육 및 아동교육강좌 후(1957년)

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천 관내에는 미추홀도서관을 비롯하여 39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한편 2013년 7월 19일 유네스코에서는 인천을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하였다. 세계에

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었다. 인천시는 2015년 4월 23일부터 1년 동안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저작권, 출판문화산업,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독서 문화 행사의 중심도시로서 도서 및 독서와 관련된 일체의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인천이 책의



신관 성인열람실에서 독서하는 시민들(1960년대 초)

수도로 성장하기까지 도서관의 역할이 컸다. 그 중에서도 인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인천부립도서관의 개관은 인천 시민들이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인천부립도서관에서 미추홀도서관까지

- 1921.11.01 인천부립도서관으로 설립
- 1922.01.06 중구 송학동 청광각에서 개관. (현)자유공원 내
- 1941.04.10 (구)인천지방법원청사로 이전
- 1946.12.02 중구 을목동으로 이전
- 1949.08.15. 인천시립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 2008.12.12 미추홀도서관 준공
- 2009.06.23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재출범

한글 점자 훈맹정음

1443년(세종 25)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음 17자, 모음 11자를 창제하여 1446년(세종 28) 세상에 반포하였다. 이 글자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고, 훈민정음을 해석한 책 『훈민정음』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한때 언문(諺文)이라 여겨 낮추어 불리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한글이라 불린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한 지 약 500여 년이 흐른 1926년 11월 4일, 강화 출신의 송암(松庵) 박두성(朴斗星)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반포하였다. 이 점자를 ‘맹인(盲人)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하였다.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에게 ‘제 2의 세종대왕’이라 칭송받고 있다. 그가 창안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의 한 면을 열어준 매개체였다.



송암 박두성

박두성은 1888년 4월 26일 강화에서 박기만의 6남 3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는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어의동보통학교 교사가 되었다. 1913년 제생원(濟生院)에 맹아부(현 국립 서울맹학교)가 설치되었고, 같은해 그가 맹아부 교사로 부임하여 시각 장애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 맹아부에서 부임하여 사용하였던 점자는 세로 3줄, 가로 2줄로 된 6점식 점자로 한글 점자가 아니라 일본어 점자였다. 점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1784년 아우이(Hauity)가 파리에 맹학교를 설립하고 돌출문자 인쇄를 시작했으며, 1808년에 이르러 마침내 프랑스의 육군 장교 바르비에(Barbier)가 야간전투에서 군사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점자를 고안하게 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점자 형태는 1829년 파리맹학교에 재학 중이던 브라이유(Braille)에 이르러 윤곽을 드러냈다. 일본 역시 점자를 고안하여 시각장

애인 교육에 활성화하고 있었으며 제생원에 맹아부를 설립하여 일본어 점자를 도입한 것이다.

그는 당시 조선에 미국식 변형 점자와 일본어로 된 점자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1920년부터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하였고, 1923년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한글 점자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였다.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에서는 한글 점자를 제작하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하여 자음 3점, 모음 2점의 3·2점식 점자를 고안하였다. 이 후 3·2점식 점자에 대하여 제기된 단점을 보완하여 1926년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1936년 제생원 교사를 퇴임하고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와 영화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한글 점자 보급에 힘썼다. 1940년 조선맹아사업협회를 조직하고, 점자 통신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는 육필 원고로 「한글 점자 쓰는 법」, 「훈맹정음의 유래」, 「한글 점자의 유래」 등을 남겼고, 『3·1 운동』을 저술하여 민족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보급한 책은 총 76점이다.

1994년 한글점자위원회가 한글점자통일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박두성이 내놓은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박두성은 사후 고향인 인천에 안장되었다. 그가 한글 점자를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9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송암박두성기념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을 설립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훈맹정음 완성 기사
(조선일보, 1929. 7. 29)

천문 관측도 했던 인천기상대



인천기상대

조선시대 측우기와 수표(水標) 등 전통과학기술이 있었지만 근대과학으로 발달하지 못한 것은 이런 과학기술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활용되고,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이론적으로 널리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관천망기법(觀天望氣法)이 행해지고 있는데, 경험으로 축적한 일기변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일기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저녁노을은 맑을 징조이고 해무리·달무리가 지거나 산에 갓모양의 구름이 걸치면 비가 올 징후이며 또 연기가 위로 솟아 올라가면 맑을 징후라는 등이 그런 유형이다.

1904년 2월 9일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투가 소월미도 앞에서 발발함에 따라 러일전쟁이 전개되었고,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한 후 일본은 한국 내에서 군사상 필요한 곳을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해군은 러시아 군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4월 3일 백령도에 감시 망루를 세웠고, 전쟁에 필요한 기상관측을 위해 4월 6일 제물포에 일본중앙기상대 제3임시관측소를 설치했다(목포 3월 25일, 부산 3월 26일). 일본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날씨 예보와 폭풍우 경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물포 제3임시관측소는 초기 일본거류지 제41호, 현 중구청 뒤쪽 송학동의 스이즈(水津)여관을 차용하여 관측업무를 시작하였다. 1905년 1월1일 응봉산 정상에 신축 청사가 완료되자 이전하였으며 1907년 4월1일을 기해 기존의 임시관측소들은 인천의 통감부 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었다. 1908년 4월1일부터는 대한제국 농상공부관측소로, 1910년 10월1일에는 조선총독부 통신국 소속의 조선총독부 관측소가 되었다. 인천은 조선에서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던 것이다.

1929년 1월 1일 청사가 새롭게 준공되고, 그해 9월 적도의(赤道儀)를 설치하여 천문관측을 시작하였는데, 적도의라고 부르는 천체망원경은 동경에 있는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 제품으로 구경 15cm 초점거리 225cm의 배율로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939년 동경천문대로부터 인천에 있는 조선총독부 기상대에 타전된 내용에는 ‘해성’에 대한 관측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 해성의 위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것이 이 굴절망원경이었다. 당시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천문대와 동경천문대 그리고 조선총독부 기상대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광복 후 인천기상대는 몇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1945년 10월 군정청 학무국 산하의 중앙관상대, 1949년 8월 국립중앙관상대가 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시 중요건물과 문헌들이 소실되었고, 1953년 11월 국립중앙관상대가 서울로 이전됨에 따라 인천측후소가 되었으며 1992년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로 개칭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록 기상관측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긴 했지만 바다와 공항을 아우르는 인천 지역의 지리적 공간적 역할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만큼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추억의 꼬마열차 수인선



수인선 꼬마열차

수인선(水仁線)은 1937년 7월 19일 개통되어 1995년 12월 31일까지 58년간 인천과 시흥, 안산, 수원에 이르는 전장 52km 구간의 여객과 화물운송을 담당한 철도이다. 전체적으로는 1930년 11월 30일에 개통된 수여선(水驪線)과 함께 중부지방을 동서로 횡단하는 경동철도(京東鐵道)의 노선에 포함된다.

경동철도는 1928년에 설립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가 부설한 사설철도였다. 1920년에 수원-여주 간 협궤 증기철도선의 부설을 허가 받았지만 경제 불황 등 여러 상황으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일제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1930년 2월 기공식을 갖고 8개월 만에 개통을 하였다. 수여선의 개통은 여주·이천을 비롯한 내륙의 농산물 유통에 즉시 영향을 미쳐, 개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수원 등지에서 곡물창고 설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수원-인천 간 철도의 필요성도 일찍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1926년 1월 인천상업회의소(仁川商會會議所)가 조선총독부에 「철도 부설

요망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인천과 수원지역의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경동철도 기성회」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경동철도사는 당시의 경제 여건으로는 수인선과 수여선을 동시에 부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여선을 먼저 개통하고 그 영업추이에 따라 수인선 부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수인선 옛 송도역

인천과 수원지역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경동철도는 1935년 9월 23일에 당국으로부터 수원-인천 간 철도부설을 인가 받게 되었다. 경동철도는 총 공사비는 130만 엔을 책정하고 곧바로 공사에 돌입하려했지만, 철도부지 매수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1936년 6월 1일에서야 기공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토지수용 가격을 두고 지주와 경동철도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소래철교 공사와 관련해서는 인근 포구의 어민들이 철교가 가설되면 중선(中船)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수인선 부설공사는 그 시 작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30만 엔으로 책정했던 공사비가 개통 당시에는 총 250여 만 엔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처럼 공사비의 증가, 소래철교 등 해안 간석지 노선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주들의 동요 등 공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수용문제가 점차 진전을 이루면서 수인선 부설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어 착공한지 1년 2개월 만에 개통을 완료하고,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총 연장 52km의 협궤선(狹軌線)인 수인선은 수원-인천 간을 1시간 40분에 연결하였는데, 개통당시의 정차장은 수원(水原), 고색(古索), 어천(漁川), 일리(一里), 원곡(元谷), 군자(君子), 소래(蘇萊), 남동(南洞), 송도(松島), 인천항(仁川港) 등 10개 역이고, 임시정류장은 오목(梧木), 목야(野牧), 빈정(濱汀), 성두(城頭), 신길(新吉), 논현(論峴), 문학(文鶴) 등 7개 역이었다.

수인선은 개통 후 중부내륙지방과 인천항간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화물의 수송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수인선 개통 전 하루 1~2편의 버스에 의존하던 것에 비하면 개통 후의 수원과 인천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수인선의 성공적인 개통에 힘입어 경동철도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고시설과 인입선(引入線)을 확충하고 역사(驛舍)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갔다. 특히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곡류와 소금 등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의 경기는 호황을 구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개통 후 채 1년도 못되어 협궤를 광궤로 개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총독부 당국자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수인선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940년경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노선의 광궤화 및 개량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수인선개량운동’은 이듬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일본인 자본인 경동철도에서 운영하던 수인선은 1945년 광복이후 적산(敵産)으로 군정에 접수되고, 1946년 5월 1일부터 여타 사철(私鐵)과 함께 국철(國鐵)로 흡수되었다. 국철화 이후 수인선은 철도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폐쇄했던 역을 부활시키는 등 본연의 기능을 지속

하였으나, 도로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위축되어갔다. 역의 존폐가 거둬지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간이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이후 수인선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다.

수인선의 쇠퇴는 1977년 국도 42호선의 포장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도로여건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수인선의 뚫이었던 화물운송기능이 대거 도로교통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후 수인선은 주변 경작 농민이나 어민, 통학생 등의 제한적인 여객수송기능을 담당하며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다가, 1980년대 들어 수도권 개발의 가속화로 인천-안산-수원간의 연계보다 인천-서울, 안산-서울, 수원-서울 등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여객마저 급감하여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폐선논의가 일어났다. 결국 철도청에서는 송도-한양대 앞 간 26.9km를 1994년 9월 1일자로 폐선하고, 이듬해인 1995년 12월 31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한양대앞-수원 간 20km를 폐선 함으로써 수인선 전체 노선이 개통 58년 만에 완전 폐선 되고 말았다.

2012년 6월 30일 폐선 된지 17년 만에 수인선은 1,435mm의 표준궤간을 갖는 최신식 복선전철로 다시 운행되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에 착공된 수인선 복선전철은 현재 오이도-송도 간 13.1km 구간이 개통되었고, 나머지 송도-인천 간 7.4km와 수원-한대앞 19.9km는 2015년 말에 개통 예정이다.

병참기지로 시작된 경인공업지역



한국기계공업(주) 공장(조선기계제작소의 후신, 현재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전경(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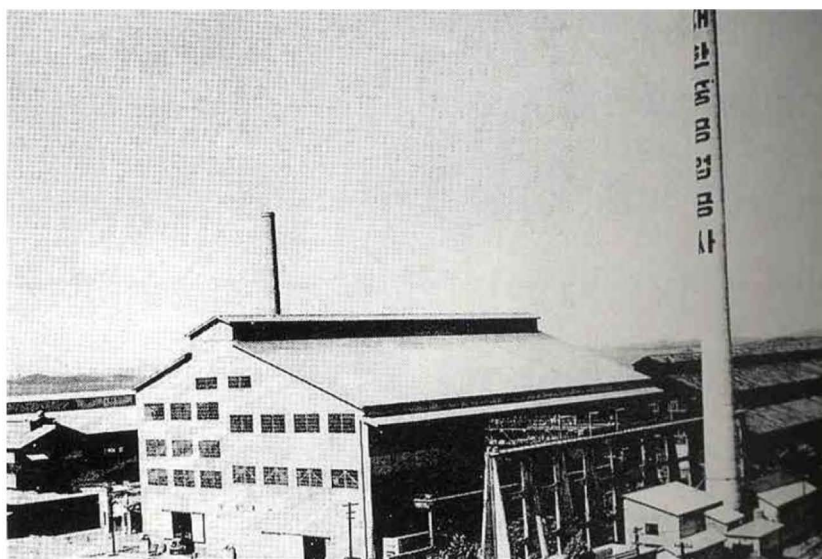
1930년대 초까지 인천 공업은 정미업, 제염업, 주조업, 장유양조업, 비누·염료·고무제품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쌀의 항도’라는 명성답게 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 정미업 등 식품공업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인천의 공업구조는 중공업 위주로 급속히 변화한다. 일본의 독점자본과 제국주의 관료들은 조선의 공업입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수요지이자 수출지인 인천을 기계금속공업 등의 주요 공업지로 선택한 것이다.

물론 중일전쟁 이전에 일본 대자본의 인천 진출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1934년에는 만석정에 동양방직 인천공장이, 학익정에는 제국제마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가 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대규모 공업지대 구성을 구상, 착수함에 따라 인천에 본격적인 대공장 설립이 이루어졌다. 1937년 6월 만석정에 조선기계제작소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요코야마(横山), 미쓰이(三井), 이와이(岩井), 리켄(理研), 닛산(日産) 등 일

본 독점재벌의 공장들이 설립되었다. 주로 광산용 기계, 자동차와 선박, 금속, 철도차량 제작 등 기계공업이 대부분이었으며, 1939년에는 소총탄약·화포탄약·총검·수류탄 등의 무기류를 생산하는 육군조병창(陸軍造兵廠)이 부평에 설립됨으로써 공작기계공업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천지역에 일본 대자본이 진출하기 시작하자 인천부도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 9월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인천부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해안매립과 도로 건설,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도 건설 사업 등을 벌였다. 1934~1938년 동안 부청사업으로 26만 평, 민간사업으로 16만 평, 총 42만 평이 매립되어 착공 혹은 준공과 함께 공장부지로 매각되었다. 아울러 1936년 1차 부역 확장에 이어 1940년 4월에는 부천군의 문학면, 남동면, 부내면, 서곶면을 포함하는 2차 부역 확장이 이루어져 면적(165.82km²)에서는 경성을 능가하고, 인구(147,456명)에서는 조선 5위를 차지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당시 일본인 관료, 학자, 기업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공업화의 성과를



1950년대 대한중공업공사(조선이연금속의 후신, 현재의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조선산업혁명’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산업혁명론은 조선의 근대화가 일본 자본의 진출에서 출발한 공업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일제를 문명의 시혜자, 근대적 공업화를 가능하게 한 구원자로 만들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식민지근대화론’에서도 한국이 1960년대 이후에 이룬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1930년대 공업화의 성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의 이면에는 토착자본의 붕괴 및 일본에의 예속, 원료의 약탈, 불균등 성장 등 식민지적 파행성으로 조선 경제를 기형적이고 불구적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제에 의한 개발은 철저히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경인공업지역에 기계공업이라는 단일한 업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들어섰으며, 이는 일제의 군수산업 확충이라는 일관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미군기지 애스컴



1948년 ASCOM CITY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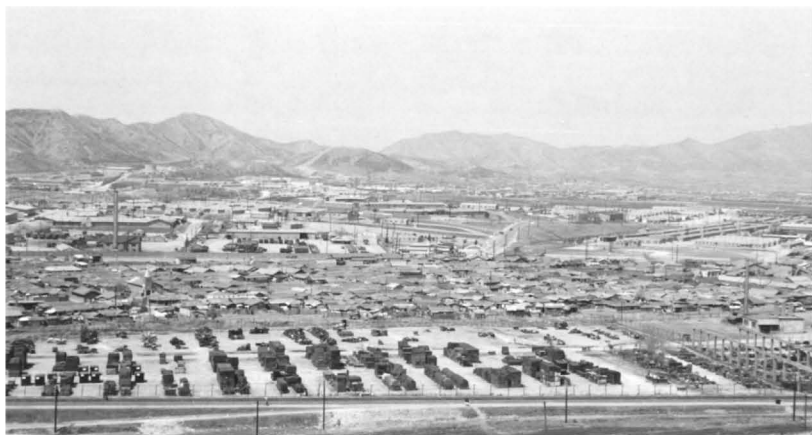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약 28,500여 명 규모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경, 32만 5천명(육군 7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까지 달했던 병력이 계속 감축되어지다가 1995년 한·미 합의에 의해 지금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미8육군, 미7공군 등 5개 구성군)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58개 기지와 91개 시설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45년 광복 후 약 한 달이 지난 9월 8일이었다. 인천항에 처음 도착한 미 제24군단은 남한점령계획인 ‘베이커-포티(Baker Forty)’ 작전에 따라 각 지역에 진주하였고, 곧바로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이때 인천지역의 점령 책임을 맡은 미 제24군수지원단은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仁川陸軍造兵廠)과 군수공장 일대를 접수하고, 이곳을 ‘애스컴 시티(ASCOM CITY: Army Service Command City)’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부평의 애스컴은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 설치된 하야리아 부대(Camp Hialeah)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미

군기지가 된다.

에스컴은 주한미군 부대에 전쟁 물자와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6·25전쟁 과정 중과 직후에는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이 잇따라 설치되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미 해병대 군수지원사령부(U.S. Marine Support Command)와 인천보충대(Inchon Replacement Center)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중 ‘121후송병원(121th Evacuation Hospital)’은 당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최첨단 병원으로 그 명성을 떨치었다. 또한 부대 내에 설치되었던 포로수용소에는 1,500여 명의 북한군·중공군 포로가 수용되어있었는데, 1953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과정에서 47명이 탈출 중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에스컴이 미군기지로 자리 잡힘에 따라 신촌을 비롯한 부대 인근 마을은 미군을 상대하는 영업장인 소위 ‘기지촌’으로 변모하였다. 에스컴에는 한때 8천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였고, ‘양공주’라 불리는 수천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해 미군 PX에서 나온 담배, 술, 통조림,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서울 남대문상가와 동인천 양키시장, 부평시장 등에서 유통되었으며, 미군이 출입하는 클럽과 바(Bar), 양복점, 사진



1964년 ASCOM CITY 전경

관, 세탁소 등은 60년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었다. 그러나 에스컴이 있던 동안 부평의 기지촌은 살인, 강간, 폭력, 마약, 절도, 밀수 등 범죄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에스컴은 1971년 미 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1973년 6월 30일 공식 해체되고 말았다. 종합 보급창으로서의 기능이 한국 국방부로 이전된 것이다. 아울러 121후송병원은 1971년 용산 미8군 기지에 최신 병원이 신축됨으로써 이전하였고, 기타 부대도 경상북도 왜관의 캠프 캐롤(CAMP CARROLL) 등으로 이전하고 만다. 기지는 55헌병대와 베이커리(빵공장) 시설 등만 남아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캠프마켓에는 군인 1명, 군무원 10명, 민간인 종사자 308명이 근무 중이다.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의해 2016년까지 기지 반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초의 공립 인천부립박물관



제1회 인천초등학교 미술실기대회 입상자 기념사진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 앞)

1946년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부립박물관(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만국공원 내 향토관(옛 세창양행 사택) 자리에서 개관하였다. 1908년 창경궁 안에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인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이 건립되었고, 이듬해인 1909년 11월 1일 순종황제의 명으로

창경궁의 기존 전각을 전시실로 활용한 국립박물관이 탄생한 지 37년만의 일이었다. 기존 국립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과 달리 해당 지역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자 시에서 직접 박물관을 운영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었다.

일제강점기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 수집가들이 많은 수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자 인천의 문화계 인사들은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문화재를 밀반출할 것을 염려하였다. 이를 제지하고 문화재를 수장·전시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천부립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박물관 개관 준비는 1945년 10월 석남 이경성(李慶成)이 초대관장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현 고유섭(高裕燮)과 교유하던 그는 귀국 후 김재원 초대국립박물관장을 만나 경복궁 내 자경전(慈慶殿)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그 무렵 인천에서 미군정의 홈펠(Hompel) 중위가 통역관을 대동하고 그에게 찾아와 인천에 있는 향토관을 인계하여 박물관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며칠 후 그는 임홍재(任鴻宰) 초대인천시장과 면담 후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시 유물의 확보였다. 옛 향토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인수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개관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의 도움으로 국립박물관에서 19점을, 송석하 초대국립민속박물관장의 도움으로 민속박물관에서 60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세관창고에 압류되어 있는 문화재를 반출 금지시키고 인수하는 한편, 미군 트럭을 빌려 부평 조병창에 있는 각종 불상과 범종들을 찾아 수장하였다. 또한 광복 후 서울에서 고미술 수집가로 활동하던 장석구가 도자기 19점과 현금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364점의 전시 유물을 확보하여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고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개관을 맞이하였다.

박물관 개관과 함께 문화 강좌와 고적 조사가 본격화되었다. 이견영(李健英), 최성진(崔星鎭), 이영식(李英植) 등의 지역 인사들을 초빙하여 박물관,



옛 제물포구락부 건물에 자리한
인천시립박물관(1953-1990)

동양화이야기, 음악론, 정치와 시인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1947년에는 경주고적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마치고 경주고적조사보고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하여 1950년 6월

27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그 때 박물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박물관 아래

옛 시장 관사와 방공호에 유물을 숨겨 전쟁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때 함포 사격으로 인하여 박물관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다.

1953년 4월 1일 제물포 구락부(중구 송학동 1가 11번지) 건물로 이전하여 다시 개관하였다. 6·25전쟁으로 정서적 공황상태에 있던 인천 시민들에게 문화영화 상영, 시화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의 중심지이자 휴식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학술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여 용현동 고

분, 주안 고인돌, 영종도 운남동 고인돌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1965년 12월 17일부터 1966년 5월 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합동으로 인천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를 발굴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제물포구락부는 사교장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었기에 박물관으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낡아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이하여 박물관의 신축 이전이 추진되었다. 1989년 12월 20일 지금 박물관이 자리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 525번지)에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어 1990년 5월 4일으로 청사를 이전 개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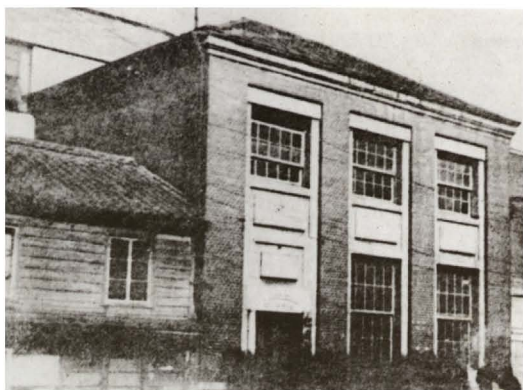
인천시립박물관(1990-2015)

다. 2006년에 박물관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지금에 이른다. 현재 본관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외에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등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부립박물관에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까지

1946. 04. 01	인천시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에서 개관. 초대관장 이경성 부임.
1950. 06. 25	6·25전쟁 발발, 소장유물 소산.
1950. 09. 15	인천상륙작전감행, 박물관건물 포격으로 소실.
1953. 04. 01	인천시 중구 송학동 1가 11번지에서 복관.
1990. 05. 04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525번지 신축건물로 이전 개관.
1995. 01. 01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명칭변경.
2006. 07. 10	리모델링 완료 재개관.

광복 후 우리 말 신문 대중일보



대중일보사

일제강점기 말 조선총독부는 기존 신문마저 강제 폐간시키는 등 조선인에게 신문 발행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 후 국내에서는 다투어 신문들이 등장했다. 광복 전후 인천은 시민들의 문화의식이나 실업가

들의 경제력이 서울이나 다른 도시를 능가할 만큼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 또한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인천의 신문발행은 이들의 주도하에 서울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아직 복간되기 전인 1945년 10월 7일 《대중일보》를 탄생시켰다.

‘대중’이란 제호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초창기 이 신문의 편집 방향을 암시해 주고 있다. 카프문학의 열렬한 주자였던 임화(林和)의 창간 축사를 1면에 비중 있게 실고 있었다. 그러나 1946년에 접어들면서 진보를 추구하는 일련의 기자들과 중도 유지를 원하는 경영인과의 갈등은 편집국장 이하 각 부장들의 사표로 이어졌다. 그리고 퇴사한 멤버들에 의해 《인천신문(仁川新聞)》이 창간되면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광복과 함께 인천지역을 밝혔던 《대중일보》는 6·25전쟁과 함께 사라지는 비운을 맞았지만 1950년 9월 19일 《인천신보(仁川新報)》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대중일보》는 인천 언론인들의 자부심이며 인천 언론의 뿌리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6·25 전쟁의 대반전 인천상륙작전

있었다

(襄陽二日發UP大韓通信)「메니호루」特派員記：宿命の三八線을突破하고 祖國解放의 큰 뜻을 안고 北으로 北으로 進擊하는 韓國軍의 表情은 極히 明朗하였다. 그들은 活潑하게 노래를 부르며 가슴에는 꽃가운을 걸고 遠足이라 도가 는 듯한 氣分들이었다. 記者가 들어온 어느 거리에 도(스타린)과 金日成의 肖像畫가 散散히 적혀 있어 잊는 것을 볼 수

國軍遂三八線突破 北으로北으로進擊을開始

38선 돌파 기사 (동아일보, 1950. 10. 4)

12일부터 미국과 영국의 기습부대가 군산을 공격한 것과 동시에 인천 월미도에 집중 포격을 했다. 9월 14일과 15일에는 삼척 일대를 포격하여 북한군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다.

9월 15일 새벽 2시, 인천상륙작전을 알리는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오전 6시 한미 해병대는 월미도에 상륙해서 2시간 만에 군사시설 등을 완전히 점령했다. 2차 목표는 인천항 일원의 확보였는데 이때의 상륙 지점을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UN군과 북한군은 교착상태에 있었다.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킬 필요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세웠다.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작전 100-B(인천 상륙), 작전 100-C(군산 상륙), 작전 100-D(주문진 상륙)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채택된 것이었다.

상륙작전이 가능한 만조일은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이었기에 최적기를 9월 15일로 결정하고 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양동작전을 전개해야 했다. 9월 5일부터 평양에서부터 인천을 포함하여 군산까지의 지역을 폭격을 했고, 9월

UN군은 적색해안(만석동 일대), 녹색해안(월미도 일대), 청색해안(용현동 일대)이라 부르며 주력부대인 한국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 등을 투입해 점령해 나갔다. 그 후 서울 탈환을 위해 한국 해병 2개 대대, 미국 제1해병사단이 19일 한강을 건넜고, 28일 정오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을 마쳤다.

작전의 성과는 첫째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을 급속히 와해시킨 점, 둘째 서울을 탈환함에 따라 북한군의 병참선이 차단됐다는 점, 셋째 인천의 항만시설과 제반 병참시설을 복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따른 최대 성과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반격하여 38선으로 올라갔을 경우와 비교할 때 명확히 드러난다. 상륙작전



해병대 상륙

이후 10일 만에 서울을 탈환한 것은 전투 일수를 1/3로 단축시킨 것이며, 아군의 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 만 명의 피해를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새나라 자동차



새나라자동차 공장 (1963)

1955년 서울의 최무성 씨가 미국에게서 불하받은 지프를 개조하여 ‘시발(始發)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후, 1962년 재일교포 박노정 씨가 일본 닛산과 기술제휴를 통해 부평에 새나라 자동차를 세웠다. 1962년 4월 군사정부가 발표한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1962년 8월 27일 새나라 자동차 공장 제1단계 준공식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도 참석하였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수한 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외화를 절약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새나라 자동차는 그해 11월부터 1961년식 닛산 블루버드 P301형을 조립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대식 조립라인을 갖춘 한국최초의 자동차 조립에 해당한다. 유선형의 세련된 외형을 지닌 새나라 자동차가 등장한 후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시발자동차는 1963년 말 생산이 중단되었다.

새나라 자동차는 1963년 5월 문을 닫을 때까지 2,722대를 생산 판매한 후, 신진자동차(1965년) → 새한자동차(1976년) → 대우자동차(1983년) → 한국GM(2001년)으로 통합되었다. 새나라 자동차는 현재 한국GM의 전신에 해당하는 셈이다.

새나라자동차 광고(동아일보, 1962. 3. 30)

해외 복음 전파방송의 시작 극동방송



극동방송 북성동 연구소

최초 대외방송으로 기독교 복음방송이 전파를 탄 것은 1956년 인천시 학익동 588번지 동양화학 본사 자리에서였다. 한국복음주의방송국으로 간판을 걸고 주파수 1230KC 호출부호 HLKX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방송

을 개시했다. 당시 송신 안테나는 학익동 앞 바다의 매립지에 세웠고, 동양화학 인천공장에는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옛 송신소 건물 앞의 임시 건물에서 예배를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시카고에 본부를 둔 복음주의 동맹선교회가 공산국가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1954년 7월 한국정부로부터 방송국 설치 허가를 얻어 1956년 12월 23일 첫 방송을 위해 당초 부천군 여월리에서 시험방송을 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인근이라 장애가 많았고, 강력한 전파가 북한과 시베리아, 중국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으로 옮겼던 것이다.

극동방송의 설립목적은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공산권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함이었는데 1957년 10월 시베리아로부터 방송을 듣고 행복을 느꼈다는 내용의 서신이 날아오기도 했다. 1959년 9월 2일부터는 당시 민간방송으로 최대출력인 50Kw로 올렸는데,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는 물론 멀리 우크라이나로부터도 청취자의 감사편지가 전달되었다.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은 1961년 1월 명칭을 국제복음방송국으로 바꾸었으며 1962년 7월 북성동 3가 8번지 자유공원 일각에 연구소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내에 소재한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 문화계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지역 신문에는 「향토문화 발전에 호기 도래, HLKX와 문화

인의 협조를 바란다.」 「자유공원에서 자유의 소리 세계에 퍼진다.」 「HLKX 신축국사 완공박두 최신시설을 구비, 출력증가 24시간 계속방송」 등 사실이 실려 북성동 연주소 준공 이후 극동방송과 인천지역 사회 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64년에는 인천에서 열렸던 전국체육대회 등 중요한 행사의 현장을 중계하면서 지역사회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1966년 6월 1일에는 제2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인천 제2도크 기공식을 단독으로 중계하고, 자유공원에서 열린 시민의 날 기념 실탘을 중계하는 등 인천시 특집방송을 송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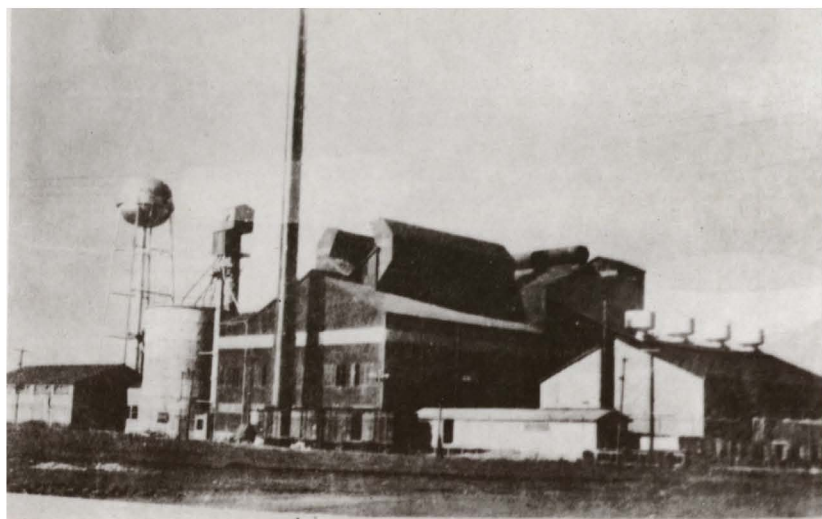
그러나 극동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는 1966년 12월 23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학익동 해변가에 있었던 송신소는 논현동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시흥시 방산동으로 옮겨갔다. 이후 극동방송은

해외 방송선교도 지원하면서, 1989년 중부권 지역을 위해 대전극동방송을, 이어 경남권의 창원극동방송과 호남스튜디오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방송으로 자리매김해 갔다.



초기 극동방송 모습

유리도 우리 손으로 인천판유리



인천판유리 공장 전경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낙랑시대의 유적에서 발굴된 것이며, 처음으로 유리가 제작된 것은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다. 일찍부터 유리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보석과 비슷하게 취급될 정도로 귀중한 물건이었으며, 이는 유럽에서도 비슷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리의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건축물에 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리의 대량생산 기술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일반 건축물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세우진 서양식 건물에 사용된 유리도 초기에는 모두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인천에 진출해있던 세창양행, 홈령거양행 인천지점, 타운센드양행 등에서 수입한 유리가 창문용으로 사용되었다.

인천에서의 유리 제조는 1905년 이후의 일이다. 1905년 3월 송월동에 설치된 구야(久野)유리제조소가 인천 최초의 유리제조소이다. 이후 1928년 4월 만석동에 인천유리제조소가 개업하여 약병·과자병·어항 등의 각종

소규모의 유리 제품을 제작하여 시내는 물론 충청도로 판매하고 중국으로 수출까지 했다. 이처럼 유리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물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에 등장한 도시형 한옥의 대청마루에 유리문이 설치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판유리 공장도 인천에 설립됐다.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기간산업 시설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는 유리 한 장도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운크라(UNKRA: 유엔한국재건기구)의 도움으로 1956년 동구 만석동 석탄공사 저탄장 자리에 인천판유리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기공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대통령전용열차’를 타고 참석했다. 이 공장은 당시 충주비료 공장, 문경시멘트 공장과 함께 3대 기간산업의 중요한 공장이었다.

운크라에서 2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환을 지원받은 이 공장은 1957년 9월 30일에 준공되어 국내 최초로 한국 원료와 기술로 만든 판유리를 생산했다. 판유리공장의 급수탑은 이 일대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긴다리를 가진 높은 구조물이라 만석동 공장 지대의 상징물이었다. 한국유리공업으로 출발한 이 공장은 지금은 군산으로 이전했고 이름도 한국유리(한글라스)라고 고쳤다.

화약의 국산화 한국화약



인천화약 (1955)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의 창업자 김종희는 1957년 인천화약공장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성공하여 1958년 상업화하였다.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다이너마이트를 국내 기술로 자체 생산하게 된 기념비적인 일로, 수입

화약의 국산화와 생산을 이루어낸 인천화약공장은 한국 화약산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개발이라고 하면 흔히들 고려시대 무신인 최무선(崔茂宣)을 떠올린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대표되는 근대화약이 순수 우리 기술로서는 최초로 인천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양에서는 1866년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개발하였고, 1941년부터 조선유지주식회사 인천화약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생산되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화약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1104년(숙종 9) 여진 정벌을 위하여 설치한 별무반에 발화(發火) 부대가 있었으며, 1135년(인종 13)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포를 사용하여 성루를 부수고 화구(火丘)를 던져 공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356년(공민왕 5) 충통을 사용하여 화살을 발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373년(공민왕 22)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명나라에 화약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1377년(우왕 3)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과 화기 제조를 담당하는 화통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세종 대부터 17세기 사이에 화약 기술의 절정기를 맞

이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발전이 더디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며 화약과 화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나 화약 개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전통시대에 취급되지 않았던 근대화약이 도입되게 된다. 1912년 일본은 「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을 공포하여 한국 내에서의 화약류 제조를 금지하고 필요한 화약은 일본에서 수입하도록 하였다. 1920년대 한국 내 수력 발전소 건설과 만주의 지하 자원 개발이 추진되어 화약수요가 급증하였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화약수요가 크게 늘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약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반도에 화약류 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1935년 조선질소화약주식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조선화약제조주식회사, 조선천야카리트주식회사, 조선유지주식회사가 잇달아 세워지게 되었고, 1941년 국내 유일 화약판매회사인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미군정은 김종희에게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의 관리를 맡겼다. 당시 31개의 화약고를 보유하고 있던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는 한국전쟁 때 화약을 제공하여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1952년 10월 부산에서 한국화약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1955년 10월 김종희는 조선유지주식회사 인천화약공장을 정부로부터 인수하였다. 인천화약공장은 1933년 설립된 조선유지주식회사의 17개 공장 중 하나로 1940년 준공되어 공업뇌관, 다이너마이트 등을 생산하던 곳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그는 조선유지주식회사가 인천화약공장을 설립할 때의 설계도를 구하여 공장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세간에서는 복구하는 것보다 새 공장을 짓는 것이 경제적이라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존 공장을 재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정부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복구비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하지만 복구비 지원이 늦어지자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장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수·신축된 인천

화약공장은 국산 화약 생산을 위하여 정진하였다.

1957년 10월 한국화약 인천화약공장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 끝에 국내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 제품을 세상에 발표하며 김종희는 “마침내 우리 한국화약이 국내 최초 다이너마이트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화약에서 만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이어 다음해에는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1958년 6월 인천화약공장에서 그동안 수입하던 화약류를 전량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정부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일반산업용 화약의 수입을 중단하고, 인천화약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약으로 대체·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한화’로 사명을 바꾼 한국화약은 2006년 국내 화약산업의 발상지인 한화 인천공장에서의 화약생산을 50년 만에 종료하고 그 자리에 한화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를 기리고 있다.



인천화약공장(1959)

굴다리에서 시작된 지하도상가



동인천 지하도 공사(1967)

지하도상가란 도로의 일종인 지하보도의 일부공간에 상가를 조성한 것이다. 일정한 지하도 구역 안에 도매·소매·용역점포와 부대시설이 함께 밀집하여 있는 복합공공시설로서 상인들의 경영수익 증대라는 수익성 측면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아울러 보행인의 이용에 지

장이 없어야 하고 긴급시의 피난이 쉬우며 또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공익적 측면도 중요시된다.

공식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도상가는 1967년 서울시청 앞 을지로1가에 세워진 ‘새서울지하상가’이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이 개통됨에 따라 지하철 역사와 내부로 연결된 지하도상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오늘날과 같은 지하도상가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최초의 지하도상가인 ‘새서울지하상가’가 개통되기 4년 전인 1963년에 이미 인천에는 ‘동인천지하도’가 건설되어 있었다. 폭 8m, 길이 70m인 이 지하도는 1963년 2월 15일 첫 삽을 떠서 같은 해 11월 20일에 완공되었다. 건설비 1,000만원은 중앙시장에 연고가 있는 상인 400명에게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 지금은 ‘동인천 구(舊) 지하상가’로 명명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흔히 ‘굴다리’라고 불렸다.



개통 초기의 동인천 지하도상가

그런데 이 ‘굴다리’ 상가가 최초의 지하도상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개

통 초기 인현동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상가도 없는 말 그대로 지하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인현동 주민들은 지하도가 개통되면 중앙시장이 한결 가까워짐으로써 인현동 청과물시장이나 주변 상가가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지하도상가의 개장에 반대하였고, 결국 인천시가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룩에 따라 8년 후에 정식 개장이 되었다. 이어서 1972년부터 1983년까지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이어지는 5개의 지하도상가가 완공되었다. 초기의 지하도상가는 민방공 대피용의 대피시설로 만든 목적이 강해서 냉난방 시설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환기조차 제대로 안됐으며, 조명도 열악했다.



현재의 부평역 지하도상가

현재 인천에는 5개 역세권(동인천, 주안, 부평, 제물포, 단일상가)을 중심으로 총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있다. 이중 부평지하도상가는 31,692㎡의 면적에 1,408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하쇼핑센터로, 2014년 11월에는 미국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 수’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받기도 하였다.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자 인천의 대표적인 역인 부평역 일대에 형성된 이 부평지하도상가는 하루 평균 8~10만 명에 이르는 지하철 이용객과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인천의 대표적 지하도상가이다. 1,408개의 점포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2,390여 명에 달해 지역 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고속도로의 효시 경인고속도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공사 조감도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인천과 서울 간 급증하는 인적·물적 수송 수요에 대비하여 건설한 것으로, 1967년 3월 24일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

양평동에서 가좌 나들목 구간이 우선 개통되었다. 기존 1시간에 달하는 운행 시간을 18분으로 단축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서울과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것은 물론 전국 1일 생활권을 구축하는데 서막이 되는 중대차한 사건이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7월 7일 개통한 것에 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그보다 이른 것이었다.

당시 산업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경제는 고도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었고,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라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주년 계획 중에 전국의 도로개발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제2차 경제개발 5주년 계획에 들어서 도로혁명을 과제로 삼고 도로정비촉진법까지 제정하고 도로개발에 주력한 결과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효시인 경인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고, 1967년 5월 27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경인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를 기점으로 하고 '경기도 인천시 신흥동'을 종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월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면 삼정리, 경기도 인천시 가좌동'을 경유하는 이 노선은 개통을 앞둔 1968년 9월 2급 국도 제95호선(노선명: 서울~인천선)으로 지정되었다. 1969년 7월 21일 가좌 나들목에서 인천항 구간이 개통되어 인천항으

로부터 양평동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송 체계의 변혁이 기대되었다. 1971년 8월 국도 제95호선을 고속국도 제2호선(노선명: 서울~인천선)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1971년 6월 착공을 시작한 인천항 제2도크 구간이 1973년 완공되어 개통되었다.

현재와 같이 경인고속도로라는 명칭이 공식화된 것은 1981년의 일이었다. 1981년 11월 7일 고속국도 제2호선의 노선명을 기존 서울~인천선에서 경인선으로 변경하였다. 기점은 여전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이었고 종점은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경유지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화곡동·신월동,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원정동·오정동·도남동·내동·삼정동,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서운동·삼선동·작전동·효성동·청천동·가정동·석남동·가좌동, 남구 도화동·주안동이 있었다. 그러다가 1985년 양평동에서 신월 나들목 구간을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분리시켰다. 기존 29.5km의 건설 구간 중 5.5km 구간이 서울시로 이관되며 일반도로로 전환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증가하자 경인고속도로는 수차례 확장을 거듭한다. 당초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었으나 1992년 5월 14일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기공식(1967)

경인고속도로 시점~부평 나들목 구간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 것에 이어 1993년 9월 4일 부평 나들목~서인천 나들목 구간 역시 왕복 8차선으로 확장 개통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 17일 도화 나들목~서인천 나들목 구간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여 경인고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1969)

2001년 8월 25일 고속국도 제2호선(경인선)은 고속국도 제120호선(경인선)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시점이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으로 종점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변경되었다. 한편 2008년 6월 12일 서인천 나들목~청라국제도시 구간의 직선화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9월 5일 개통되었다.

1996년 12월 18일 인천과 경기도 성남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2010년 5월 3일 인천과 경기도 시흥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경인고속도로를 제1경인고속도로로 칭하기도 하지만 공식명칭은 아니다.

매콤 달콤한 쫄면



쫄면

쫄면은 짜장면과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짜장면에 비하면 그 역사성은 매우 짧은 편이라고 하겠지만, 1970~80년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쫄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異說)이 있지만, 1970년대 초 인천 중구 경동

에 위치한 ‘광신제면’에서 냉면을 만들다가 사출기의 체(구멍)를 잘못 끼워 우연히 불거져 나온 굵은 국수 가락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일반 면발에 비해 녹말가루를 더 넣는 바람에 냉면보다 덜 질기면서도 더욱 쫄깃한 면발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굵고 쫄깃한 면발에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갖은 양념을 넣고, 콩나물 등 신선한 각종 야채를 함께 비벼 먹는 쫄면은 신포동 분식집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이윽고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특히 ‘신포우리만두’는 더욱 쫄깃한 면발과 색다른 양념을 개발하여 쫄면을 대중적으로 상품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신포우리만두’의 쫄면은 고추장에 미늘즙, 식초, 설탕, 생강즙, 레몬즙 등 30여 가지가 넘는 양념을 가미하여 매우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고, 밀가루 배합의 황금 비율을 조정해 그 면발의 쫄깃함을 살렸다. 1987년, 전북 김제에 공장을 짓고 전국 체인점에 쫄면과 각종 분식 재료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도 ‘신포우리만두’ 신포점은 전국 체인점 중의 1호점이다.

한편 2002년 일본 신주쿠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한국 10대 도시 향토요

리전시회'에서 쫄면은 서울의 모듬전, 부산의 동래파전, 대전의 죽순회, 수원의 찹쌀 부꾸미, 전주의 비빔밥, 광주의 홍어찜, 대구의 양하 산적, 서귀



광신제면

포의 돼지고기 양념조림, 울산의 해물볶음과 함께 인천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쫄면의 인기는 갈수록 더해 일본에서도 한국의 '매운맛'이 알려지면서 젊은층 사이에서 쫄면이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네티즌들도 쫄면 동호회를 구성해 쫄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과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늘로 세계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2001년 3월 29일 한국 최대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다. 기존의 김포공항은 시설의 확장이 어려웠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등과 인접 간석지를 매립하여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제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된 현재 총 5,606만㎡(국제 규격 축구장 7,800개 규모)의 부지에 A380기 등 초대형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한 3개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여객기 계류장 108개소와 화물기 계류장 36개소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승용차 11,410대, 화물차 6,2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0.9km 길이의 IAT(무인여객수송열차)를 갖추고 있다. 관제통신시설로 지상 22층 높이(100m)의 관제탑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여 연간 41만회의 항공기 운항과 최대 4,400만 명의 여객 및 450만 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는 활주로 5개로 증대되며, 여객 터미널 규모 114만 6천㎡, 여객수 1억 명, 화물 1,000만 t, 운항 횟수 74만 회(연)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입출국 평균소요시간은 입국 13분, 출국 18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환승 최소 연결시간도 45분으로 주변국 경쟁 공항을 크게 앞서고 있다.

탑승객과 환승객을 위해 다양한 테마 이벤트 및 전시를 개최하고 한국문화 체험공간 등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실시하는 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8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최우수 공항에 선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 연속으로 미국의 여행전문지 글로벌트래블러가 선정한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였다.



바다에서 본 영종대교

인천 또 하나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를 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 132.9km² 규모가 지정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仁川經濟自由區域)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실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레저, 관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내기도 하였다. 2위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도 10배 규모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 도심과 8km, 서울 중심지역에서 50km의 거리에 있으며, 인천항과 인접하고 수도권권의 주요 대도시에서 60 ~ 9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대내적으로 인천은 국토개발과 경제, 산업발전의 축인 서해안지역의 출발점

이자 2천 3백만 명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의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역이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 송도 앞 바다를 매립하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 중이다. 국제 금융과 무역, 지식기반산업,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3.4km² 정도를 매립, 간척지위에 도시를 개발하고 25만 2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에 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시를 더 키워 나가기 위한 매립공사가 계속 진행중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인천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완공, 광역버스 노선 편성 등 교통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뉴욕주립대 등 여러 대학교들이 송도에 자리를 잡았으며, 국제학교와 자율형 사립고교가 자리하는 등 교육특구로서의 모습도 갖춰가는 중이다.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진척이 빠른 이곳에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데 이미 국제 컨벤션 센터인 송도컨벤시아가 들어서 있으며, 동북아 허브라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이미지에 맞추어 대중, 대동남아 무역에 상대적 기지 역할을 할 동북아무역타워(NEATT)가 세워졌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국제기구 유치노력으로 2012년 10월 20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본사, 세계

선거기관협의회(A-WEB) 본사도 유치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국제도시의 공용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하는 영어 공용화 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종신도시

청라국제도시는 서구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 일대를 포함한 17.8km² 규모의 부지에 인구 9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국제도시로서,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구성하고 있다. 1979년부터 1989년에 걸쳐 동아건설이 갯벌을 매립하여 탄생한 땅이다. 국제업무와 레저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등 영종과 서울을 잇는 주요 교통축 상에 바다를 끼고 자리한 해안 도시로서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청라’라는 이름은 매립되기 전에 있었던 섬인 청라도(靑蘿島)에서 유래되



청라경제자유구역

었다. 청라지구 홍보 자료에는 ‘인천의 푸른 보석’이라는 의미로 ‘청라(靑蘿)’로 표기하고 있다. 청라1동과 청라2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완공되어 2010년 중순부터

입주를 하게 되었다.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61.7km² 면적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적인 공항신도시로 개발될 계획에 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객들, 물류업 종사자들에게 특화된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 관광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모두 14만 4천8백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에 있으며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 인프라 인천대교



인천대교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21.348km의 국내 최장의 다리이다. 2005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 개통함으로써 총 52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다. 투입된 사업비는 민자구간과 국고구간을 합하여 총 2조 3,829억 원에 이른다.

인천대교는 사업규모가 2조원이 넘는 세계적인 공사답게 교량에 관한 최신 첨단 기술과 공법을 집약하여 건설하였다.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방식으로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대폭 줄였으며, 초속 72m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항로부에는 선박과 교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최대 규모의 돌핀형 충돌방지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교량의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설계에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을 적용하였다.

특히 인천대교는 영종도-송도 구간 전체를 직선으로 뽑지 않고, 사장교 구간 1.48km를 제외한 양 구간을 활 모양의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인천항으로 진출입하는 선박들의 선화각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곡선으로 설계됐다는 것은 접합부분이 더욱 정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트 3,000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도록 작업해야 했다. 구간 길이



인천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

1.48km, 중앙경간 800m의 사장교는 국내 최장일 뿐 아니라 세계 5위의 규모로, 10만 t급 선박이 인천항 주항로를 통과할 수 있다.

인천대교의 완공으로 인천과 서울 남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소요되는 주행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되었으며, 물류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의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교 야경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이 입주한 송도 G-Tower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는 한국 최초로 유치한 유엔(UN)산하의 국제기구로, 2013년 12월 4일 국제도시 송도에 설립되었다. 자본금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기구를 인천에서 출범하였다는 점과 유럽과 미국에 편중된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GCF의 자본금 1,000억 달러는 국제통화기금(IMF) 8,450억 달러, 세계은행(WB) 1,937억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GCF의 유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GCF 관련 고용 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GCF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탄생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나가는 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Financial mechanism)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금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인류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해하고 또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어가게 되자 국제사회도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고자 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공문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온실가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고, 개도국의 경우 점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참여를 끌어내고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선진국들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자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금융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COP)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GCF를 유엔 상설기구로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년간 설립방안을 마련한 후 2011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함으로써 GCF의 출범이 확정되었다.

2012년 2월 22일 GCF 유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천과 서울을 후보 도시로 지명하였고, 같은 해 3월 5일 인천시는 후보도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월 13일 기획재정부 유치도시선정위원회에서 유치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측은 본부장이 와서 설명하였으나, 인천시 측은 시장이 직접 와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는 점,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인천시민들이 유치에 적극 나섰다라는 점 등의 장점을 내세운 인천이 후보도시로 선정되었다.

GCF 임시사무국에서는 2012년 4월 15일까지 유치국가 신청을 받았고,

한국, 나미비아, 독일, 멕시코, 스위스, 폴란드 등 6개국이 신청하였다. 2012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이사회가 열렸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송도에서 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인천은 이사회 환영 만찬회를 GCF 유치시 사무국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한 G-Tower에서 개최하여 사무국이 입주할 건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내비쳤다. 투표를 통하여 한국이 유치국가로 선정되었고, 마침내 12월 8일 도하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GCF 유치국가임을 명시한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GCF 사무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산림보호, 능력배양, 기술개발 및 보급,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기술용역 등을 지원한다.

GCF의 설립 취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이 목적이고
-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온실이 낮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촉진하며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되,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늘로 하늘로 동북아무역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있는 지상 305m, 68층 초고층 건물로, 약칭 NEATT (Northeast Asia Trade Tower)라 한다. 이 건물은 총 사업비 5163억 원, 지하 3층·지상 68층, 높이 지상 305m(해발 312m), 건축연면적 194,925.3㎡이다. 3~35층은 사무시설, 지상 36~64층은 423실 규모의 특1급 레지던스 호텔로, 36~37층에 레스토랑·연회장·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73번째로 높고 국내에선 가장 높다.

동북아무역센터는 2012년 68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부산 해운대의 301m, 80층 아파트인 위브 더 제니스 타워(Haeundae We've The Zenith Tower) A동을 누르고 국내 최고

층 빌딩으로 자리 잡았다. 65층의 전망대까지 276.7m인데, 상충부 안테나와 첨탑 높이를 포함한 공식적인 높이는 305m이기에 2013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었다. 지하 1층에는 전력, 조명, CCTV 출입 통제 등 모니터링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방재실이 있고, 30층과 60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다. 빌딩에는 분속 420m의 엘리베이터 29대가 설치돼 있어 1층에서 65층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데 1분이 걸리지 않는다.

동북아무역센터는 오피스와 호텔, 전망대 등 복합시설로 들어섰다. 이 중 전망대는 오는 2016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가 될 예정이다. 동시에 건물 상층부에 입주한 호텔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호텔이다. 9~21층(총 13개층)은 대우인터내셔널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교에는 인천대입구역(인천지하철 1호선)과 더샵 퍼스트월드와 웨라톤 인천 호텔,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 컨벤시아 등의 시설이 있다.

A detailed topographical map of a mountainous region, likely in Korea, showing various peaks, valleys, and rivers. The map is overlaid with a grid of latitude and longitude lines. The title '참고문헌' is centered over the map.

참고문헌

참고문헌

- 인천부청, 『인천부사』, 1933.
- 인천광역시, 『인천 개항 100년사』, 1983.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 1~3, 1993.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 1~6, 2002.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 1~3, 2013.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개항25년사(加瀬和三郎 저)』,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사정』,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개항25년사(信夫淳平 저)』,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근대의 이민과 인천』, 2004.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최초 인천최고』, 2005.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향토지』, 2005.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미두취인소 연혁』, 2008.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의 사회와 사적』, 2008.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2010.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 인천부세일만』, 2011.
- 고일, 『인천석금』, 경기문화사, 1955.
- 인천시, 『인천향토사료(仁川郷土史料)』(『시세일람(市勢一覽)』 별책), 1956.
-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 경기문화사, 1959.
- 이종화, 『문학산』, 흥신문화사, 1965.
- 신태범, 『인천 한 세기』, 흥성사, 1982.
- 인천내리교회, 『내리백년사』, 1985.
- 천주교 답동교회, 『답동대성당 100년사』, 1989.
-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100년사』, 1990.
- 한영국, 『학산서원지 학술조사 결과보고서』, 1993.
- 인천고등학교동창회, 『인고100년사』, 1995.
- 극동방송40년사 편찬위원회, 『극동방송』, 1996.
- 인천광역시남구 · 인하대학교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남부 종합학술조사』, 2003.
강화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2003.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120년사』, 2003.
이덕희, 『하와이 이민100년』, 중앙M&B, 2003.
조우성, 『인천이야기 100장면』, 인아트, 2004.
오인환 · 공정자, 『구한말 한인 하와이이민』, 인하대출판부, 2004.
인천광역시 · 인하대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2005.
한화, 『한화 인천공장 50년』, 2005.
손장원, 『인천근대건축』, 간행미디어랩, 2007.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2007.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언론사』, 2008.
남동구사편찬위원회, 『남동구사』, 2010.
인천발전연구원, 『인천 외국인묘지 정비 및 보존 방안』, 2010.
중구사편찬위원회, 『중구사』, 2010.
웅진군지편찬위원회, 『웅진군지』, 2010.
계양사편찬위원회,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 2011.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연수구사편찬위원회, 『연수구사』, 2014.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신인상정예문발미(新印詳定禮文跋尾)」
대조선제물포각국조계지도(1884)
《The Korean Repository》(1897년 10월호)
《The Korea Review》(1901년 1월 · 6월호)

인천역사문화총서 74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기획·총괄 김성훈 (인천시 문화재과 과장)/ 전) 김경집 (문화재 과장)
정태범 (인천시 문화재정책팀 팀장)
김학돈 (인천시 문화재정책팀 주무관)
강덕우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강옥엽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집필자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강덕우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강옥엽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문상범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이영태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유창호 (인하대 박물관 학예사)
손민환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발행일 2015. 9
발행 인천광역시
발행처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송학동 1가 2-2번지)
T. 032)440-8382, 8383
ISBN 978-89-93590-89-0
인쇄 (주)에스이씨글로벌 (032-527-2000)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